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가장 많이 닮은 이 땅의 사람은 열 달 동안 품어서 태어나게 한 어머니의 사랑임을 알고 그 사랑에 보답하는 신실한 자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하신대 그 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요한복음 19장 27절

사시: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

www.chpress.net

주후 2021년 5월 8일 (토) 제 1824호

□ L.A. :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Tel. 323-665-0009, 213-674-7982 Email: lachpress@gmail.com □ N.Y. : 143-17 Franklin Ave. 5Fl. Flushing, NY 11355 Tel. 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gmail.com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2021 어머니날, 베풀어주신 사랑과 희생에 진정 감사하는 시간 보내야

미국에서 사람들이 가장 전화를 많이 하는 때는 언제일까? 미국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외식하는 날은 무슨 날일까? 그 답은 5월 두 번째 주말인 어머니날이다. 이 날에는 아들과 딸들이 그들의 어머니에게 힘든 노고와 보살핌에 대한 감사를 하기 때문이다. 늘 희생과 기도로 가정을 일구고 교회를 지키는 어머니들에게 마음을 담은 감사를 보낸다. 어머니들이 있어 가정의 세워지고 교회가 든든하다. 그리고 나라가 굳건하다. 이 세상의 모든 어머니에

게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함께 하셔서 그 사랑의 깊이가 더 깊어지고 넓어지기를 소망한다.

아이들은 어머니날이라 케이크나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이유로 즐거워했다. 그러나 코로나 시국으로 일상의 소소한 행복을 잃어버린 우리에게 찾아온 어머니날은 다시금 베풀어주신 사랑에 감사를 전하는 따뜻하고 흐뭇한 시간대로 돌아가게 해준다.

이번 어머니날에는 어머니날의 참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건 어떨까?

단순히 선물을 사는 것 대신에 여러분의 어머니에게 뭔가 특별한 것을 해드린다. 집안일을 더 많이 거들거나, 어머니와 함께 산책을 하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연주해드릴 수 있다. 그것이 진정한 어머니날이다.

애나 자비스는 1914년에 어머니날을 시작한 여성이다.

1800년대에 미국은 남북전쟁을 하고 있었다. 부상당한 병사들과 많은 다른 사람들은 보살핌이 필요했다. 1858년 펜실베이니아 출신의 앤 자비스라는 이름의 여성이 돌기를 원했다. 앤 자비스는 애나 자비스의 어머니였다. 그녀는 병사들과 전쟁으로 병든 사람들을 위한 의료봉사를 제공할 여성들을 조직했다.

‘어머니날 봉사클럽’은 중립적이었다. 그들은 전쟁의 양쪽 편에서 병사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도왔다. 앤 자비스와 ‘어머니날 봉사클럽’은 수천 명의 사람들이 안전하게 먹고, 살고, 일할 수 있도록 도왔다.

전쟁이 막바지에 다다랐을 때, 앤은 모든 사람들이 평화롭게 모이도록 ‘어머니 친목의 날’을 개최했다. 전쟁터에서 서로 싸웠던 병사들은 친구가 돼



나란히 앉았다. 이 날은 매우 성공적이어서 그 이후로 수년간 반복됐다.

1908년 애나 자비스는 3년 전에 소천한 어머니를 기념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다.

애나는 어머니가 생전에 주일학교 교사로 일했던 교회에서 열린 추도식에서 ‘...오늘은 우리가 어머니에게 뭔가를 드려야 하는 날입니다. 다정한 말 한마디, 작은 선물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어머니에게 기쁨을 드립니다...’라는 전문과 함께 평소 어머니가 좋아했던 오백 송이의 흰색 카네이션을 보내 참가했던 사람들의 가슴에 달도록 했고 이것이 바로 어머니날의 작은 시작이었다.

애나는 당시 교회 예배를 아주 좋아했다. 따라서 그녀는 모든 곳에서 어머니들을 기억하기 위한 공휴일을 만들고 싶

었다. 그래서 그녀는 정부에 이 일을 홍보했고, 마침내 1914년에 윌슨 대통령이 어머니날을 공휴일로 제정했다.

그러나 곧바로 어머니날은 매우 상업적이 됐다. 어머니날에 물건을 파는 것이 그 의미보다 더 중요하게 됐다. 꽃 파는 사람들과 상점들은 어머니날에 카드와 카네이션 혹은 선물을 사도록 부추겼다. 사람들은 어머니와 함께 그냥 시간을 보내면 된다는 것을 잊었다.

애나 자비스는 이러한 것을 싫어했다. 그녀는 꽃 파는 사람들에게 어머니날에 꽃을 판 매하는 것을 그만두도록 요구했지만 그들은 거절했고, 애나 자비스는 진정한 어머니날의 의미를 사람들에게 일깨워 주려고 수년을 보냈다.

우리 어머니는 특별한 것을 원할까? 그렇지 않을 것이다. 나이 드신 어머니는 그저 딸자

식, 사위, 손자·손녀가 잘되기를 바랄 뿐이다. 어머니는 다 그렇다.

어머니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 드리는 선물 중 가장 뜻깊은 것은 사랑을 듬뿍 담은 말 한마디다.

초등학교 다니는 자녀가 만들어온 조약한 선물이 얼마나 감동적이었는지 기억해보라.

“어머니, 사랑해요. 그리고 감사해요.” 낮 뜨거워 민망해 입이 떨어지지 않으면 몇 번 연습해보고 지그시 눈을 감고, 아니면 멀리 전장을 보고 마음을 전해보라.

마더스데이 선물을 특별한 것으로 드리고 싶는데 딱히 떠오르지 않을 수 있다. 특히 한국에 있는 어머니와는 화상통화를, 돌아가신 어머니에게는 시간을 내서 어머니와의 좋은 기억을 떠올리는 사진과 비디오를 보며 기억해보자.

만약 사랑하는 마음을 담은 선물을 또 다른 방법으로 남기고 싶다면 여러 가지 선물을 마련할 수 있다. 꼭 고가의 선물이 아니더라도 코로나 시대 임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에게 전달할 수 있는 선물은 아주 많다. 풍성한 식탁부터 디지털 시대에 맞는 선물까지 생각해 볼 수 있다.

(3면으로 계속)



인도 코로나 확산, 우리 모두의 위기!

BBC, 과학전문기자 레베카 모렐의 변이바이러스 확산과 대응방법 소개

거센 코로나 확산세와 고군분투 중인 인도의 참혹한 광경이 전 세계에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그러나 이번 사태는 오롯이 인도만의 위기가 아니다. 우리 모두의 위기라고 BBC는 전한다(Coronavirus: Why is the whole world concerned about the Corona pandemic that is afflicting India?).

세계보건기구(WHO) 수석 과학자 소마 스와미나단 박사는 “코로나는 국경과 국적, 나이, 성별, 종교를 개의치 않는다”며 “현재 인도에서 일어나는 일은 안타깝게도 다른 나라에서 이미 있었던 일”이라고 진단했다.

이번 팬데믹으로 우린 전 세계가 얼마나 긴밀히 연결돼 있는지를 알게 됐다. 한 나라의 코로나 감염률이 높을 경우 그곳의 바이러스가 다른 곳으로 퍼질 가능성도 커진다.

아무리 해외여행을 제한하거나 여러 번 코로나 검사를 하고 자가 격리를 시행한다 해도 전파를 완벽히 제어할 수 없다. 코로나 고위험 국가에서 온 여행자들이 코로나바이러스를 같이 옮길 가능성이 높다. 최근엔 인도 뉴델리발 홍콩행 비행기의 승객 약 50명이 코로나

19 양성판정을 받은 일도 있었다.

우리가 인도의 심각한 코로나 상황을 우려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 바로 변이 바이러스다. 인도에서 출현한 B.1.617으로 불리는 이 변이를 일부에선 ‘이중 돌연변이’라고도 부른다. 바이러스 표면돌기에서 2개의 주요 돌연변이가 포착됐기 때문이다. 정확한 연구는 진행 중이지만, 해당 변이 바이러스는 전파력이 더 우세하고 항체가 막아내기 더 어렵다는 실험결과도 있다.

웰컴 생어 연구소의 코로나19 유전자 연구 이니셔티브의 책임자 제프 배렛 박사는 BBC 뉴스에 “해당 변이바이러스가 백신으로 제어할 수 없는 ‘이탈변형체’라는 증거는 없다”고 설명했다.

(3면으로 계속)



2면

발행인 칼럼 김성국 목사



4면

푸른초상 이지용 목사



15면

특별간증 하상규 집사

월드미션대학교
신학/상담학/음악학/예배학/간호학/사회복지학
캠퍼스온라인
www.wmu.edu | 500 Shatto Pl., Los Angeles | (213)388-1000

할렐루야 백화점
성경 / 기독교서적 / 일반서적 / 베스트셀러 / 성구 / 성화 액자 / 가운 / 교회용품 / 영문성경 / 영문기독교서적
교회 · 사업체 · 달력 · 기념패전문
뉴욕 Tel. 718)762-0011 40-21 159th St. #1B Flushing, NY 11358
뉴저지 Tel. 201)346-0030 5 Brinkerhoff Terrace Palisades Park, NJ 07650
www.bestsaver.us 917-863-0301

기독교서적센터
The Christian Book Center
전품목 50% 할인판매
www.j2b001.usg.com / cjb0101@j2b001.com
323-737-7699, 800-669-0451
1027 S. Western Ave., #2 L.A., CA 90006

영적 성장을 도와드립니다!
생명의 말씀사
교회 음향, 동시통역기, 성가곡집 주문 제작, 타월, 선물 주문 제작
TEL. 714.530.2211 | Fax. 714-530-8080 | biblestore@gmail.com
9838 Garden Grove Blvd., Garden Grove, CA 92844

미국 동부의 대표적인 한인교회 목회자가 말하는
코로나19 시대, 예배의 정수(精髓)!

국민일보

그 많던 예배사는 어디로 갔을까

저자 김성국 목사 (미국 뉴욕 퀸즈장로교회 담임)



한국 판매처: 국민일보 02-781-9870

미주 판매처: 미주크리스천신문사 (1)718-886-4400 www.hisfingermall.com

Hisfinger

편집 디자인 : 미주크리스천신문사 기독교화출판 히즈핑거

발행인 칼럼

당신은 누구시기에



김성국 목사 (퀸즈장로교회 담임)

4월 28일 수요일 오후, 연락을 받고 급히 심방을 갔다. 92세의 권사님. 그 날 아침 권사님이 직장에 출근하려던 따님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한다. "꿈에 흰 버선을 신었다. 내 발에 흰 버선을 신겨드렸던 따님은 직장에 나가서도 어머니의 말이 마음에 걸려 교회로 연락하여 심방을 부탁한 것이다. 권사님은 교회에서 가장 먼 곳에 사시는 분들 중의 한 분이시다.

그 먼 길을 오고가면서 보였던 모습은 한결 같았다. 그것은 다름 아닌 예수님의 정결한 신부 같은 모습이였다. 서둘러 권사님을 찾아보오니 기력은 많이 약해지셨으나 의식은 또렷하시어 예배도 잘 드리셨고 여러 대화도 거리낌 없이 나눌 수 있었다. 권사님이 누워 계신 침대 앞에 이런 성경구절이 붙어 있었다. "시편 116편 12절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따님에게 들으니 어머니가 그 날 자신이 잘 보이는 곳에 써서 붙여 달라고 하신 말씀이라고 하였다. 권사님은 침대에 눕듯이 기대어 자신이 받은 은혜가 너무 많은데 하나님께 보답할 것이 없다며 마음 아파하셨다. 그러면서 뜻밖의 말씀도 하셨다. "저는 이 4월에 주님에게로 가고 싶어요." 눈으로 볼 때는 위급한 상황이 전혀 아니었다. 나만 그렇게 본 것이 아니었다. 그 자리의 모두가 그렇게 판단하였음이 틀림없다. 무슨 말씀이시냐며 빨리 일어나시어 교회에서 뵙자고 하며 교회를 돌아와 수요일예배를 드렸다.

4월 30일 금요일 아침, 4월의 마지막 날 그 아침에 급한 연락을 받았다. 권사님이 천국에 가셨다는 소식이었다. 벅 온지 만 하루하고 절반이 되었을 뿐이다. 4월에 떠나고 싶다고 하신 권사님은 4월 마지막 날에 가족과 우리 모두를 떠나셨다. 그 이전 심방 때에 하신 말씀이 있었다. 자신이 4월에 떠나고 싶은 이유는 5월은 가정의 달, 어린이날도 있는데 자신이 자녀들에게 피해를 주고 앓고 자녀들이 5월을 즐겁게 지내길 바라기 때문이라고 하셨다. 권사님은 그의 따님이 20여 년 전 혼자된 이후로 딸의 집으로 이사와 딸이 직장에 다니는 동안 그의 어린 세 아들을 도맡아 반듯하게 기르셨다. 자신의 네 자녀도 딸의 세 자녀도 희생으로 사랑으로 키우시고 자식들의 5월에 부담을 주지 않으려 하셨다. 권사님의 바람대로 4월에 떠나셨지만 나는 그분의 빈자리를 향해 이렇게 물었다. "당신은 누구시기에 이렇게까지 하셨습니까?"

나는 이 땅의 모든 어머니에게도 묻고 싶다. "당신은 누구시기에 이렇게 희생하시며 사시는 것입니까?" 이런 시(詩)를 아시리라. "장남산야 어머니 등에 업었더니 너무 가벼워서 울컥, 세 걸음도 못 가네" 평생을 자식에게 자신을 내어주시느라 더 이상 자신의 것이 없이 가벼워지신 어머니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있다면 "어머니"이리라. 아브라함 링컨의 전기(傳記) 작가가 이런 말을 하였다. "하나님은 링컨에게 위대한 사람이 되는 조건을 한 가지도 주지 않으셨다. 다만 그에게 빈곤(貧困)과 훌륭한 신앙의 어머니를 주셨다." 나폴레옹은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프랑스어, 위대한 어머니를 가지게 하라. 그리하면 위대한 자녀들을 갖게 될 것이다. 위대한 어머니, 그것은 한 국가가 소유한 보물 가운데 최대의 보배이다." 보배임에도 그 각자의 이름은 잘 모르겠는 어머니. 밥도 대충 드시고, 남편과 자식 때문에 속도 풀이시고, 친정엄마와 친정식구 보고 싶어 남몰래 흐느껴 우는 어머니, 당신은 도대체 누구시기에 그렇게 사시면서도 기뻐하십니까?

결혼 안하는 사회, 교회공동체가 해결한다!

CT, 마크 레저루스 교수 글로벌 리서치 통해 크리스천 비혼증가 이유와 교회통한 해결방안 소개(하)

우리 대부분은 화목하고 건강한 가족의 일원이 되기를 원한다. 그런데 그런 가족은 도대체 어떤 모습인 걸까? 우리는 따뜻한 불빛이 비추는 방에 웅기종기 앉은 가족의 모습을 상상할지 모르겠다. 오늘날 현대적이고 도시화된 사회에서 가정은 세상으로부터 한 발짝 떨어진 휴양지 같은 의미다. 낮에는 각자 흩어져서 일하거나 공부하다가 저녁이 되면 함께 모여서 휴식을 취하는 모습, 즉 "가족시간"(family time)은 대부분에게 쉬는 시간을 의미한다.

이런 가정의 모습이 생긴 것은 그리 오래된 것은 아니다. 산업혁명 전까지만 해도 가족은 하나의 생산 단위였다. 집은 일하는 장소였다. 가족을 하나로 묶는 것은 함께 있으면서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게 아니라 가족은 노동을 함께 하는 사람들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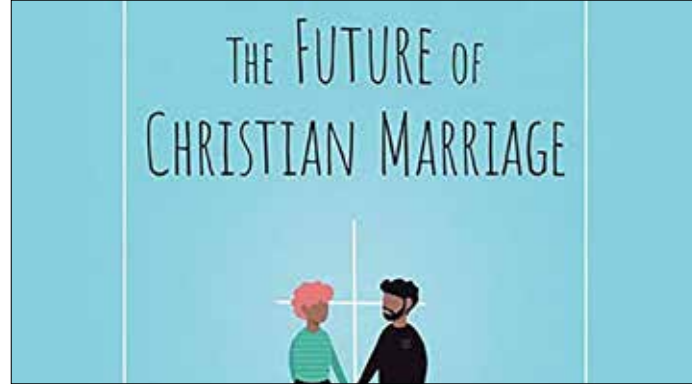
기독교인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 때문에 가족이 더욱 특별한 의미가 있다. 창조주가 지으신 피조물을 잘 관리함으로 다른 이들을 창조주에게 이끌고,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전하고, 주

님이 주신 대사명을 수행해야 한다. 남편과 아내가 사랑으로 하나 되어 함께 일할 때, 그것은 세상을 향해 예수님과 그의 신부에게 대해 증거하는 것이다. 부모가 자녀를 바로 양육하고 그들과 함께 일할 때, 그 모습은 세상을 향해 아버지와 그의 영적 자녀들에게 대해 증거하는 것이다.

저녁에 온 가족이 모여 가족영화를 보거나 게임을 하는 것도 가치가 있지만, 기독교인 가정은 사명을 공유해야 한다. 함께 일하고 또 함께 예배하는 것은 가족의 유대관계를 강하게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세상을 향한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다하는 것이다 (Strong Families Share Mission). 이에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TGC(The Gospel Coalition)가 소개한 헤리엇 코너의 "사명을 같이 한다"를 게재한다. 헤리엇 코너는 Sydney Missionary and Bible College에서 언어학과 신학을 전공했으며, 대표 저서로 'Big Picture Parents: Ancient Wisdom for Modern Life'가 있다.

유엔에서 시간제로 일하는 25세의 레바는 여성 파라는 이 결정을 내릴 필요가 없었지만 배우자를 마냥 기다리는 일은 어려웠다.

파라와 같이 레바는에서 대부분의 미혼 성인 자녀들은 결혼 전까지 부모와 함께 산다. 성직자인 그녀의 아버지는 결혼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



고 많은 사람들은 상호 제공 하는 공식화된 성관계의 결합이라는 차원에서 결혼에 여전히 관심을 두기 때문이다. 매력적이지 않고 구식으로 들릴 지 모르지만 사실이다.

결혼은 오랫동안 배우자들 사이의 불평등한 교류에 의존해왔다. 남편은 서로가 가진 것을 필요로 한다. 이 개념에

중간규모 기독교문화 공동체 모임 통해 만남 신앙과 제자훈련은 결혼생활에 유익한 기초 부모의 행복한 결혼생활, 자녀 결혼결정 촉진

귀가하면 피곤한 상태죠. 아이들을 갖기 전에도 부부는 함께 앉을 시간이 없어서 미루게 되는 것 같아요. 토요일이나 주말까지 밀린 일을 하느라 과부하가 걸리고 매우 피곤합니다"라고 파라가 말했다. 따라서, 파라는 분명히 결론을 내렸다.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으로 인해 결혼의 모습이 바뀌고 있어요."

이러한 역동적 변화는 레바논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배우자들은 서로의 커리어를 지원하고 평등한 부모로 양육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가장 친한 친구가 되어 많은 영역에서 희생하기를 서로에게 기대한다. 이러한 조건 중 일부는 경제적 부담과 같은 외부적 요

인이지만 내부적으로 생성되고 선택적으로 적용되기도 한다. 이런 맥락에서 이상적인 배우자를 찾고자 한다면 사회심리학자인 엘리 핀켈이 이름 붙인 결혼의 "숨 막히는 구조"에 함복하고 말 것이다. "결혼을 말하다"의 저자인 팀 켈러도 이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간단히 말하면, 사람들은 결혼상대에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결혼에 대한 관점을 생각할 때, 결혼생활에 실제로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곤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혼할 때 애정을 갖고 시작하지만, 시간과 장소를 불문하

많은 사람들이 반문을 제기할 것이다. "결혼의 기본이 전문화와 교환의 의미라면 결혼은 점점 시대착오적인 사회적 형태로 보입니다"라고 UCLA의 인구 학자 발레리 오펜하이머가 말했다.

그녀의 말이 옳다. 결혼율의 감소가 그녀의 주장을 입증하는 증거다. 그러나 결혼은 바로 그런 것이다.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면 실망할 일만 남을 것이다. 우리의 모든 사회적, 문화적, 법적 노력은 결합의 본질은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았다. 결혼제도는 변하지 않았다.

(3면으로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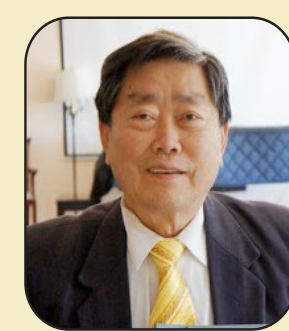
Bethesda Dental advertisement with contact info: 646.422.7330, 201.431.9753, 353 Lexington Ave, Ste 1600-2 New York, NY 10016

Joon Mo Myung, MD advertisement with contact info: Tel: 718-445-0200, Fax: 718-445-0226, 154-08 Northern Blvd, Suite 2K(154가 노던 코너) Flushing, NY 11354

하나님의 인을 받으라

도서안내

- 하나님의구원계획 10권
성경도표
다니엘, 계시록(상,하)
구약, 신약, 사도행전 공과책
다니엘, 요한계시록 공과책
구약, 신약, 사도행전 DVD
다니엘계시록 DVD
70이레, 최고의 복, 계 1:7 DVD
(영어책)구약, 신약, 70이레
(중국어책)하나님의구원계획 4권
구약, 신약, 사도행전 공과(Power Point)
다니엘, 요한계시록 공과(Power Point)
하나님의 구원계획(Power Point)



라홍채 목사

세미나 안내

- 1. 하나님의 인을 받으라
2. 70이레
3. 하나님의 구원 계획 세미나

하나님의 구원계획 성경공부를 인도하실 사역자들은 소정의 교육(7시간)후 POWER POINT와 모든자료를 공유하겠습니다. 뉴욕제자들과교회:(917)588-2934 / (917)968-1024

도서주문 연락처 (917)588-2934, (917)968-1024 / 주소: 27-23 Bayside Ln, #1FL, Flushing NY 11358 Email: Gpscenter2014@gmail.com / 미주크리스천신문 718-886-4400(NY), 323-665-0009(LA)(판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1면에서 계속) 에게 선물을 전할 수 있다
세상에 태어나 어머니 는 것이 지금 이 순간 열

마나 행복하고 즐거운 일
인가. “어머니를 사랑하는 것
은 너무나도 당연하여 해

어짐의 뒤에야 우리는 비
로소 그 사랑을 깨닫는
다”(기 드 모파상).

인도 코로나 확산, 우리 모두의 위기!

(1면에서 계속) 서 복제되는 걸 막는 것”
그러면서 “상황을 예의
주시해야 하는 건 맞지만
그렇다고 패닉에 빠질 이
유는 없다”고 당부했다.

다만 특정 국가의 코로
나 확진자가 많다는 건 그
만큼 그곳에서 신종 변이
가 출현할 가능성도 커진
다. 바이러스는 감염을 일
으킬 때마다 진화하기 때
문이다. 따라서 백신을 무
력화하는 막강한 돌연변
이가 출현할 가능성에 대
한 우려가 나온다.

영국 코비드19 유전체
학 컨소시엄의 책임자인
샤론 피콕은 “변이의 출현
을 차단하는 가장 좋은 방
법이 바이러스가 체내에

이는 인도의 급격히 악
화하는 코로나 상황이 전
세계에 연쇄 반응을 일으
킬 수 있는 또 다른 이유이
기도 하다.

지난 3월 인도 당국은
자국 내 확진사례가 급증
하자 옥스포드-아스트라
제네카 백신의 대규모 수
출을 중단하는 결정을 내
렸다. 수출 중단 백신엔
유엔(UN)의 코백스(CO-
VAX)를 통해 저소득 및
중산층 국가에 공급하기
로 한 분량도 포함됐다.

지난 달 26일 ‘글로벌 백
신 동맹(GAVI)’은 인도 당
국으로부터 백신 수출 재
개 시점에 대한 확답을 기
다리고 있다고 전했다. 인
도의 수출 중단 결정은 분
명 많은 나라의 백신 접종

계획에 영향을 끼쳤다. 그
럼에도 과학자들은 인도
의 심각한 상황을 고려했
을 때 인도의 자국민 백신
접종이 우선시 돼야 한다
고 강조한다.

스와미나단 박사는 “최
대한 빨리 백신 접종 속
도를 올리는 데 전념할 필
요 있다”며 “그렇지 않
으면 바이러스는 계속해서
전파될 것”이라고 경고했
다.

코로나바이러스가 곳곳
에서 파괴력을 과시하며
코로나 팬데믹의 기세가
완화될 기미가 보이지 않
는다. 인도의 상황은 전 세
계 모두가 안전해질 때까
진 누구도 코로나19로부
터 안전하지 않다는 경중
을 울리고 있다.

결혼 안하는 사회, 교회공동체가 해결한다!

(2면에서 계속) 그러나 힘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선택
권, 기술, 성 평등, ‘저렴
함’ 선행위, 세속화가 증
가하고 있는 이 시대에,
크리스천을 포함해 더 적
은 수의 사람들이 실제로
결혼을 선택한다. 이것이
현실이다.

결혼은 점점 더 ‘기독교
적’인 일

연구자로서 결혼의 소
멸을 연구하는 것은 파고
든 곰팡이가 서서히 오래
된 참나무를 천천히 파괴
하는 것을 보는 것과 같다
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
 좋지 않은 현실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품을 이유가 있다.
참나무는 멸종하지
않을 것이다. 실제로, 결
혼은 점점 더 ‘기독교적’
인 일이 될 것이다. 이는
미래가 확실한 사회에
대한 교회의 책임이 더 커
진다는 뜻이다.

전 세계의 사람들과 인
터뷰를 하며 많은 사람들
이 결혼을 성스러운 용어
로 묘사한다고 들었다. 일
부 사람들은 언약이라는
단어를 언급했다. 또 다른
사람들은 결혼을 가정교
회, 독창적인 연합, 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연
합이라고 묘사했다.

서구사회, 가족 해체되면 상상 외 심리적 취약사회 될 것

무시되거나 훼손될 때
다 결혼제도는 힘을 잃게
된다. 그리고 크리스천들
은 평균적으로 세속적 동
료들보다 이 선행을 위해
더 헌신하는 경향이 있으
므로, 크리스천이 계속하
는 결혼생활 동안에도 결
혼제도가 서서히 ‘기독교
적’인 일이 되는 것은 놀
라운 일이 아니다. 여러
서구 국가의 세계 가치관

조사 수치는 이를 상당
히 명확하게 보여준다.

결혼 패턴에서 보여지
는 성도들과 비성도간의
차이가 수십 년 후에는 훨
씬 더 큰 차이로 드러날
것이다. 따라서 가까운 미
래에 결혼은 세계적으로
종교적인 이슬람교도, 정
통 유대인, 보수적인 그리
스도인들과 점점 더 밀접
한 연관이 있는 개념으로
남을 것이다.

이 설문조사는 동시에
좋은 결과와 안 좋은 결과
를 나타낸다. 전반적으로
보수적인 크
리스천들이
결혼생활을
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반

면 결혼에 더 많이 실패하
기도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다행인 점은 크리스
천들이 여전히 결혼에 대
한 중대한 사회적 지원과
문제해결에 대한 강한 열
망을 나타낸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가 사는 이 고
되고 희망적인 공간에는
결혼을 위해 선택할 수 있
는 자원이 놓여있다. “모
든 것을 바꾸기에는 너무

늦었지. 그러나 무언가를
바꾸어 나가기에 너무 늦
은 때만 없어.” 나의 친구
이자 동료였던 이가 현명
한 말을 했다.

서구의 세속화가 결혼
생활과 멀어지게 만들기
때문에 믿음이 우리 삶의
핵심이 돼야 한다. 그러나
교회가 결혼의 수호자가
된다면 교회 안팎의 사람
들을 위해 어떻게 교회를
보호하고 장려해야 할까?

유사교회 조직 역할 중요

우리는 결혼을 가능하게
하는 사회적 조건을 연구하
고 육성해야 한다. 여기에서
유사교회(parachurch) 조직
의 역할 또한 중요하다.

(9면으로 계속)



시론

생명 주심과 나눔!



은희곤 목사
(기독교 평화포럼 대표)

오래 전 알카포네가 사실상 시카고를 지배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에게는 알카포네를 감옥에 보내지 않도록 하는, 별명이 “Easy Eddie”라는 아일랜드 출신의 기막힌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이 변호사의 저택은 시카고의 거리 한 블록을 뒤편 차지할 정도로 컸습니다. 에디는 주변에서 자행되는 범죄행위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으면서 시카고 마피아 최고의 생활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이런 에디에게도 한 가지 무른 점, 끔찍하게 사랑하는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모든 아버지들의 바람처럼 에디도 아들이 자기와는 다른 좀 더 나은 인물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에디가 사랑하는 아들에게 가장 물려주고 싶었던, 그러나 당시 그에게는 불가능했던 두 가지는 ‘깨끗하게 빛나는 가문의 이름’과 ‘아버지로서 좋은 모범이 되는 거였습니다. 고민하던 중 어느 날 그는 그 대가가 얼마나 클지도 알았지만, 당국에 알 카포네의 죄를 모조리 고발했습니다. 그 결과 당국은 오랜 기간 동안 잡지 못했던 알 카포네와 범죄조직원들 다수를 구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시카고는 드디어 안전해지게 됐지만 그 해가 끝나기 전에 에디는 시 외곽의 한 외딴거리에서 총알세례를 받고 생을 마감했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제2차 세계대전의 영웅중 하나인 ‘Butch O’Hare’입니다. 그는 전투기 조종사로서 남태평양의 렉싱턴이라는 항공모함에 배치됐습니다. 어느 날 이륙한 후 그는 연료계기판을 보고 연료탱크가 꽉 채워있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편대장은 그에게 항공모함으로 돌아가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는 내키지는 않았지만 편대에서 이탈해 한참 돌아가고 있던 중 뭔가를 발견하고 피가 얼어붙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일본의 비행중대가 저고도로 미국 함대를 향해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야군 전투기들은 모조리 출격했으니 함대는 거의 무방비나 다름없던 상태였습니다. 소속 편대로 돌아가 함대를 구하도록 하기에는 너무 멀리 날아와 있었습니다. 심지어 함대에 위험이 닥치고 있다는 경고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긴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그는 일본군을 향해 곧바로 하강했습니다. 적의 진행 사이를 누비며 탄알이 다 떨어질 때까지 될 수 있는 한 많은 적기를 격추시켰습니다. 탄알이 떨어진 뒤엔 비행기 기체를 그대로 돌진시키며 필사적으로 일본 비행중대가 미군 함대에 이르지 못하도록 모든 방법을 다 동원했습니다. 마침내 상황이 좋지 않다고 판단한 일본군은 기수를 돌렸습니다. 부치 오헤어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누더기가 된 그의 전투기와 함께 항공모함으로 겨우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가 탄 비행기에 탑재된 카메라의 필름이 사건의 전모를 구체적으로 밝혀줬습니다. 그는 이 일로 인해 전쟁 영웅으로 인정돼 국가가 주는 최고 무공훈장이자 가보로서 대대로 물려주는 영광인 의회명예훈장(Congressional medal of honor)을 받았습니다. 부치는 훈장 수여 1년 뒤 벌어진 한 공중전에서 분투 끝에 장렬히 산화합니다. 그의 고향인 시카고 사람들은 2차 대전의 가장 위대했던 영웅 중 한명이 그대로 사라지는 것을 용납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리노이는 물론 중서부에서 가장 큰 국제공항에 그의 이름을 붙였습니다. 시카고 ‘오헤어’ 공항은 그의 이름을 따서 명명된 것입니다. 터미널 1과 2 사이에는 ‘부치 오헤어’의 동상이 있습니다.

지금쯤 이 두 얘기가 서로 무슨 상관인지 궁금하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부치 오헤어’는 ‘이지 에디’의 아들입니다. ‘이지 에디’가 사랑하는 아들이 ‘부치 오헤어’에게 생명을 내줬습니다. 생명을 받은 아들도 자기 생명을 인류를 위해 내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깨끗한 이름의 유산을 남기고 싶어 했던 ‘이지 에디’의 결단과 소원대로 오헤어 공항 이름이 그 가문의 이름을 따도록 하셨습니다(피어 글인데 나누고 싶어 시론에 맞게 정리했습니다).

예수가 태어나신 곳은 말구유셨습니다. ‘예수는 밥’이었습니다. 밥은 ‘생명’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생명의 밥(떡)’을 나눠주셔서, 우리를 모든 세상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진리의 생명을 얻게 해 주셨습니다. 사순절과 부활절의 예표이기도 하셨습니다. 예수의 죽음과 나의 죽음, 예수의 부활과 나의 부활입니다. 오늘 에디와 아들인 부치를 통해 이를 또한 만나게 됩니다. 아버지 ‘에디의 죽음’이라는 ‘정의와 진리의 밥’이 아들인 부치와 시카고를 살게 했고, 또다시 ‘부치의 죽음’이 항공모함의 전우들뿐만 아니라 2차 대전 당시 많은 이들의 생명을 살렸습니다. 우리는 얼마전 사순절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생명 나누신 십자가와 이어 예수 부활을 목상했습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예수 진리를 먹고 생명 얻은 자들인데 이제 우리의 죽음(내어줌, 나눔, 헌신 등등)을 통하여 주변에 생명 얻는 이들이 많아져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여기에서 나를 통하여 말입니다.

가장 먼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내가 죽어 가정을 살리는 역사가, 내가 죽어 교회를 살리는 역사가, 내가 죽어 지역사회와 세상을 살리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그때 나도, 너도, 우리도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엡2:10).

pastor.eun@gmail.com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 발행인 겸 편집인: 김성국 ■ 편집국장: 유원정 ■ LA지사장: 이성자

· L.A. Office
·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 Tel: (323)665-0009(대표) (213)674-7982
· E-mail: lachpress@gmail.com

· N.Y. Office
· 143-17 Franklin Ave. 5th Fl. Flushing, NY, 11355
· Tel: (718)886-4400(대표)
· E-mail: nykpress@gmail.com

The Korean Christian Press(USPS 746-070)is Published Weekly(every Saturday)except for New Years Day and April 3, July 10, and Nov 27. \$100.00 per year by The Korean Christian Press,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Periodical postages are paid at Los Angeles, CA.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 to The Korean Christian Press,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갈보리장로교회 담임목사 청빙

갈보리장로교회는 미국 Missouri 지역에 위치한 미국장로교단(PCA-Presbyterian Church In America) 소속 교회로서 1991년 설립한 이후 2002년에 성전을 건축하고 30년 동안 복음전파와 세계선교의 사명을 감당해 온 교회입니다. 그동안 본 교회를 섬겨 오시던 담임 목사가 2021년 6월에 선교의 사명을 받고 사임하시기에 후임 담임 목사님을 청빙합니다.

자격

미국장로교회(PCA)에 가입되어 있거나 가입에 결격 사유가 없으신 분
정규 신학대학원(M.Div.) 이상의 학위 취득자
목사안수 받은 후 목회경력: 5년 이상(부목사 포함) / 이민목회 경험자 / 나이:40-55세까지)
이중언어(한국어와 영어) 가능하신 분
미국 내 목회 활동에 법적 문제가 없으신 분

제출서류

이력서
최근 설교동영상 2편(설교시간 : 25-30분)
자기 소개서
(목회소명/ 목회경험/ 신앙고백/ 신앙 간증/ 목회 비전 및 계획/ 성향배경/ 가족 소개와 가족 사진)
추천인 3인의 추천서
목사 안수증
졸업 증명서 및 학위 증명서
제출 마감일: 2021년 5월 30일
제출처 : E-Mail Address : youngpaullee49@gmail.com

기타

1.서류는 email 로만 접수합니다.(Word, PDF).
2.제출된 서류는 청빙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심사 후 안전하게 폐기됩니다.
(제출된 서류는 비밀을 보장하며 반환되지 않습니다).
3.모든 문의는 email 로만 받습니다.
4.청빙절차에 따라 서류심사 후 개별 통지합니다.

갈보리장로교회 청빙위원장

랄리한인장로교회에서 청년부 및 행정담당 풀타임 사역자를 찾습니다.

지원 자격 :

1. 청년부 사역 경험과 열정이 있는 분
2. 정규 대학과 미국장로교 (PCUSA)에서 인정하는 신학대학원을 졸업하신 분으로서 전도사 또는 목사 안수를 받으신 분
3. 현재 미국 내 합법적인 거주자
4. 나이 30대

제출 서류:

1. 이력서 (사진 첨부) 및 신앙 간증문
2. 최근 설교 (CD, DVD, Web Address)
3. M. Div. 졸업 및 안수 증명서
4. 추천서 2통

접수 마감일:
2021년 6월 30일

보내실 곳:

Raleigh Korean Presbyterian Church
Attn: Rev. Sanghyun Lee
5408 Duraleigh Road, Raleigh NC 27612

* 서류는 이메일(PDF)로 보내셔도 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이상현 목사 (919) 455-6500
pastorlee7@yahoo.com
www.rkpc.org



목사의 목상



이종식 목사

(뉴욕 베이사이드장로교회)

기도에도 인내가 필요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선을 행하면서도 인내가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 선한 일을

행했다고 해서 당장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 아니고 인내로 기다림이란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나는 목회를 하면서 이 말씀이 옳다는 것을 항상 느끼게 된다. 특별히 기도하면서 느끼는 것은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

이다. 기도한다고 다 금방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어도 믿음으로 꾸준히 기도해 나가면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을 확실하게 되는 일이 생긴다.

그 예로 1999년도에 내가 우리 교회 청년회를 직접 맡았을 때가 생각한다. 그때는 장년들은 꽤 모이는 편이었으나 청년들이 너무 적다는 생각을 했다. 그래서 염려가 되기를 이렇게 되면 앞으로 이 교회를 이끌고 나갈 사람들이 없게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청년회를 직접 맡기로 결심하게 된 것이다. 나는 청년부를 맡으면서 3가지를 약속하자고 했다.

그 첫째는 시작하기 전에 금식기도를 하루 하자고 했다. 그리고 제자훈련을 받기로 약속을 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매주 월요일마다 새벽예배 후에 예배당의 빈 의자를 붙잡

고 그 의자에 앉은 새로운 청년들을 보내 달라고 기도를 하자고 제안했다. 6명의 청년들은 그렇게 하기로 약속을 하고 청년회는 시작되었다. 청년들은 약속대로 매주 월요일 교회에 모여 새벽기도 후에 빈 의자를 붙잡고 새로운 청년들을 그 자리에 오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그런데 두 달을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때 당시 청년회 회장이었던 여 청년이 나에게 와서는 자기는 더 이상 이런 행동을 못 하겠다고 말하는 것이었다. 그 이유는 2달 동안 시키는 대로 해보았는데 아무 변화도 없고 너무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신은 여를 여행해야 힘을 얻기에 여행을 가겠다는 것이었다. 그리고는 두 달을 여행 계획을 잡고서는 떠났다. 그래서 나와 남은 청년 5명은 힘이

빠졌지만 한번 시작했으니 끝까지 한다는 마음으로 월요일마다 빈 의자를 붙잡고 이 의자에 앉은 사람을 보내달라고 기도를 해나갔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공교롭게도 그 청년이 여행하려 간 다음 주일부터 청년들이 몰려오기 시작하는 것이었다. 매주 3명 4명씩 청년들이 와서는 등록을 하였다. 그리고 여행을 떠난 청년이 올 때 즈음에는 청년회가 39명으로 부흥이 된 것이다. 그때 당시 우리 교회 금 장로로 시무하는 분도 있다.

그렇게 되자 이제 여행을 갔던 청년회 회장이 돌아와서는 나에게 이런 말을 하였다. “목사님 이 청년회가 2달 전에 제가 보았던 청년회가 너무나도 바뀌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렇게 청년회는 3년 내내 월요일

마다 모여 예배실의 의자를 붙잡고 새로운 청년들을 보내 달라고 기도하여 그 숫자가 300명까지 도달하게 되었다.

나는 그때 일을 생각하면 우리의 기도에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말할 수 있다. 믿고 기도했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으며 인내해야 할 줄로 믿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거짓말처럼 하나님이 기도를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는다. 이런 이유로 갈라디아서 6장 9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오늘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봉사하고 기도하는 모든 일들이 인내하므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바란다.

david2lord@hotmail.com

푸/른/초/장

이지용 목사

(뉴욕셋세마네교회)



푸르른 녹음이 있는 만물이 생동하는 5월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고, 오늘은 5월 2일 어린이주일입니다.

우리들의 가정은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 가정만큼 아름다운 것은 없을 것입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선물이라는 말은 거저 주셨다는 뜻입니다.

가정에는 자녀가 있습니다. 자녀를 낳으셨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그 기쁨은 세상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이었습니다. 저도 뉴욕에서 세 자녀를 하나님께서 주셨는데요. 그 기쁨이 말할 수 없이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가정은 갈수록 더 기쁨이 넘치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갈수록 더 은혜로운 관계로 성숙해져 가야 합니다. ‘손 안에 자식’이라고 내 맘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자녀가 서서히 부모의 손을 벗어나서 부모의 품을 떠나고, 부모의 권위를 떠나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워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멀어져가는 것을 보면서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냥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사람들이 자기 자녀들을 예수님께 데려오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만져주시기를 바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들의 접근을 가로 막고 있습니다. 어린 이들은 예수님께 올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고, 더 중요한 사역, 즉 어른들을 만나고 가르치고 치유해야 하는 일들에 비해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에 장애가 된다고 생각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 태도는 당시엔 큰 이슈였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15절). 왜냐하면 당시에 팔레스틴 지역에서 어린아이에 대한 인식, 어린아이와 여자들은 숫자에도 낯설지 않았습니다. 그런 시대에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이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매우 중요한 교

훈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위해서도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크신 사랑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의 아이들”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 합니다.

1. 자녀를 사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은 예수님의 아이들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선물은 소중한 것이고, 값으로 측정할 수 없습니다. 자녀로 인한 기쁨, 이만한 기쁨은 세상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습니다.

어린아이는 태어나서 3살 때까지 부모에게 일평생 할 효도를 다 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어린 자녀는 부모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입니다. 자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

할 때 기쁨이 옵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삶의 보람과 의미이고 목적입니다.

자녀를 사랑함에 있어서 자기만족을 위해, 자기목적 성취를 위해 자녀를 이용하거나 귀찮은 존재로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가까이 있는 부모들은 오히려 이런 잘못된 사랑을 의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가정에서 더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자녀는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부모들에게 있어서 무엇보다도 가장 잘못된 것은 자기중심적인 사랑(self-centered love)입니다. 내 가문이나 명예 따위를 앞세웁니다. “내가 못 다한 소원을 내가 이루어라! 내가 못 다한 욕망을 내가 성취 하려야 한다.”

사랑이라는 명목으로 자식을 이렇게 괴롭힙니다. 고스란히 희생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못살겠다고 합니다. 공연히 놓아가지고 이고 생을 시킨다고 불평합니다. 누구를 위한 희생이나, 누구를 위한 공부냐고 묻습니다. 철저히 자기기적인 사랑입니다. 많은 가정 문제가 여기서 발생됩니다. 사랑인줄 알고 있는 그 사랑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모

릅니다.

전혀 자녀사랑이 아닙니다. 이는 행태를 달린 자기사랑일 뿐입니다. 자녀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이나 천부적인 재능은 염두에 두지도 않은 무모함이요 무책임입니다. 모를 지기 우리는 그리스도인 된 사랑으로 돌아가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이 내게로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온전히 당신의 생명으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도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문제는 인간의 이기적인 본성입니다. 이기적 본성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역사를 가로 막고 있습니다.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를 가르치면서 자기 안에 숨어 있는 이기적 동기를 발견하지 못하

전하는 것이 사명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사명은 부모가 자녀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7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 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 할 것이며.”

자녀는 바로 부모의 손에 의해서 가장 바르게 자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는 적어도 자녀에게 하나님을 대신하는 존재로 서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부모에게 주셨습니다. 자녀가 태어날 때 부모는 자녀에게 가장 권위 있는 존재입니다. 물론 자녀가 성장하면서 부모의 약한 점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부모에 대한 약점을 봅니다. 결국 부모의 권위를 떨어뜨립니다. 하지만 부모가 이 권위를 내려놓거나 스스로 포기해서는 안됩니다. 부모는 끝까지 자녀에게 본이 되는 존재입니다.

요한 웨슬리는 “우리가 장차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세 가지 질문을 받을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첫째는 “네게 준 시간을 어떻게 사용했느냐?” 둘째는 “네게 준 돈을 어떻게 썼느냐?” 셋째는 “네게 준 자녀를 어떻게 가르쳤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부모가 가르침에 있어서 세 가지를 잠깐 23장 16절 이하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잠언서를 보면서 부모가 자녀 교육시 그냥 넘어가서는 안될 때를 알려주십시오.

첫째, 자녀가 거짓말했을 때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16절)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정직한 말의 반대말은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란 두 가지 뜻을 가진 것으로, “섞었다”란 뜻으로 음식물이 부패하거나 섞었다고 할 때에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부패된 음식물을 먹게 되면, 구토를 일으키게 되듯 거짓말은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빚나간게 만들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

첫째, 자녀가 거짓말했을 때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16절)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정직한 말의 반대말은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란 두 가지 뜻을 가진 것으로, “섞었다”란 뜻으로 음식물이 부패하거나 섞었다고 할 때에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부패된 음식물을 먹게 되면, 구토를 일으키게 되듯 거짓말은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빚나간게 만들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

첫째, 자녀가 거짓말했을 때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16절)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정직한 말의 반대말은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란 두 가지 뜻을 가진 것으로, “섞었다”란 뜻으로 음식물이 부패하거나 섞었다고 할 때에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부패된 음식물을 먹게 되면, 구토를 일으키게 되듯 거짓말은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빚나간게 만들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

첫째, 자녀가 거짓말했을 때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16절)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정직한 말의 반대말은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란 두 가지 뜻을 가진 것으로, “섞었다”란 뜻으로 음식물이 부패하거나 섞었다고 할 때에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부패된 음식물을 먹게 되면, 구토를 일으키게 되듯 거짓말은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빚나간게 만들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

저는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마18:4) 말씀이 오래 동안 잘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양보하고, 겸손한 것을 보았습니까? 자기 밖에 모르며, 부모 머리쪽에 앉아서 잘난 척하고, 영악스럽게까지 한 아이들을 주님에게 어떻게 “아이들과 같이 되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구약성경에서 이스라엘 역대 왕을 평가하는 기준이 정직이었습니다. 주로 이런 식이었습니다. (왕상15:11)“아사 그 조상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왕상 15:5)“이는 다윗이 헛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니라”고 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취한 일 외에는 하나님 앞에서 모두 정직했고 이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총리와 장관으로 삼은 것은 거짓이 통용되는 곳까지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을 요구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둘째, 자녀가 불신앙의 길로 갈 때에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17절).

성경에 자녀가 불신앙의 길

을 무가 된다는 것입니다. (잠 29:15)“자식을 임의로 하게 버려두면 그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부모가 나이 들어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이 노인네가 무슨 잔소리냐”며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믿음이 좋고, 경건하다고 반드시 그 자녀가 믿음 좋은 자녀가 되는 것도 아니며, 부모가 믿음이 없어도 그 자녀들이 얼마든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가 자녀를 내버려둘 때 그 혼란은 막대합니다. 엘리 제사장도 그의 두 아들을 내버려두었을 때 불량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셋째로, 나쁜 친구가 있는 것을 알면서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20절).

성경도 이 말씀에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잠27:17)“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유유상종”이란 비슷한 사람끼리 모인다는 말로 나쁜 친구를 가까이 하면 결국 우리의 자녀도 나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교회사에 잘 알려진 어거스틴이 30년이란 오랜 기간 동안 방탕생활을 한 것은 나쁜 친구를 끊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버린 후 비로소 하나님께로 돌아 올 수 있었습니다. (고전 15:33)“속지 말라 약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니.”

현 시대에 우리 자녀들의 주변환경은 참으로 열악합니다. 자녀들의 정신과 마음을 해치는 독극물들이 갈려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들의 행동과 태도를 수시로 점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 자녀들이 거짓말하는 것을 보고도 그냥 모른 채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불신앙의 길로, 세상의 길로 빠져 가는 것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안 된다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쁜 친구를 사귀고 있는 것을 알면서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어쨌든 가르치는 사명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자녀에게 부모는 끝까지 인생의 길을 인도하는 안내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도 영적으로 계속해서 자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자녀를 안내하는 안내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은혜, 이런 섬김, 이런 가르침을 계속 이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3. 자녀를 축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녀는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복의 통로이며 상속자이기 때문입니다.

(11면으로 계속)

울림이 있는 감동

최근에 마음의 큰 울림을 주는 일이 있었다. 코로나로 우울한 시기에 전해진 좋은 소식이었다. 한국영화 110년에 처음, 아시아 사람으로는 두 번째, 아카데미 영화제에서 '윤여정'이라는 배우가 상을 받은 것이다. 미국사람들이 'K-Pop'을 말하듯이 'K-Halmuni' 라고 부르는 74세 할머니를 세계가 인정한 것이다. 이분의 특별한 시상식 소감은 두고서도 큰 화제가 되었다. '아들들이 고맙다. 나를 밖에 나가서 일하게 해주어 이 상을 받게 되었구나.' 유머가 담긴 시상 소감이었는데, 국적을 초월하여 많은 듣는 이들로 하여금 큰 웃음을 주었다. 먹고 살아야했기에 그럴 수밖에 없었던 아주 힘들었던 삶의 이야기를 감동 있는 유머로 승화한 그녀에게 모두가 호응을 한 것이었다.

잘 알려졌듯이, 그는 조씨 성을 가진 남자로 인해 인생의 어려움을 크게 당한 적이 있다. 그는 굉장히 이상한 사람이었다. 신학교를 졸업하고 당연히 정상적인 가정을 이루며 목회자의 길을 가야했던 사람임에도, 자신의 죄의 결과로 가정의

않다. 흔히 생각하는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영화 같은 그런 대작의 냄새가 나는 것도 아니다. 할리우드 영화를 보면서 느끼는, '어떻게 저런 장면을 연출했을까? 돈은 얼마나 들었을까?'하는 그런 류의 계산이 흘러가는 영화와는 전혀 결이 다른 영화였다. 어찌 보면 평범하고 담담하게 몇 부작 아침 드라마를 찍듯이 그렇게 스크린이 움직이는 느낌이었다.

그런데 왜 74세된 그 K-할머니, 한국 할머니의 연기에 세계가 열광하였을까? 개인적으로, 그 이유는 인종과 피부색과 국적과 상황을 넘어서서, 하나님 이 지으신 인생에게 흐르는 동일한 감정선이 있었기 때문이라 여겨진다. 미나리 영화는 실제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다. 영화에 등장하는 그 꼬마가 현재 정이삭 감독의 분신이고, 그 부친은 현재도 알칸사 북서쪽에 서 영화에 나오는 채소 아닌 배나무를 키우면서 살고 있는 실존 인물이다. 그 손자는 훗날 아이비리그 명문학교를 나온 감독 그 자신인데, 그의 인생을 통해 할머니에 대한 소중한 추억의 보따리를 풀어내고 있는 것이다. 물론 부모님의 고단한 이민사에 대한 것이 주류이지

영화에서 이렇게 소년은 할머니와의 교감 속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잠언과 지혜를 배우게 된다. 그가 기억하는 할머니는 어떤 존재인가? 할머니는 심장질환의 병으로 인해 허약한 손자를 향해 늘 '스트롱 보이, 스트롱 보이' 하면서 격려와 응원을 한다. 또한 이 손자에게 미나리를 통해 교훈을 남긴다. 그의 기억에는 '미나리 원더풀 미나리 원더풀'하는 할머니의 음성이 있다.

할머니가 말하는 미나리는 어떤 것인가? '어디서도 잘 자라고, 부자들 가난한 사람들 건강하게 해주는 것, 강한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미나리' 그것을 사랑하는 손자에게 전하는 것이다. 마치 거친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이민자들과 힘든 2세들의 삶에 미나리처럼 잘 자라기를 소망하는 시대가 담긴 것이다. 이렇게 미나리는 할머니와 손자세대를 이어주며, 할머니의 간절한 기대가 전달되는 매개체가 된다. 그렇게 할머니의 미나리를 듣고 보고 먹고 자랐을 감독은 이 미나리를 통해 착박한 이민의 땅을 살아가는 부모 세대의 이민자들의 삶에 대해, 할머니가 가르쳐준 그 미나리 정신(?)을

맞바꾸기에도 전혀 주저함이 없을 그런 사랑을 말하는 것이다. 그런 사랑과 희생으로 할머니는 손자에게 최고의 역할을 다한 것이다.

실제 감독의 외할머니 이명순 여사는 일찍 남편을 잃고 홀로 외동딸을 키웠다. 얼마나 그 세월의 시간들이 고되었을까? 그런데 그런 고단한 시간을 지나면서 할머니는 더 강건해졌던 것 같다. 혼자 지켜내야 했을 외동딸에 대한 그 사랑의 마음과 그렇게 사랑하는 딸의 병약한 아들, 그 손자에 대한 애절한 마음은 모든 소통의 불가능을 뛰어넘어 버리게 했던 것이다. 그 강력한 사랑의 힘이 손자인 정 감독에게 전달이 되었던 것이다. 모든 K-할머니의 사랑과 희생의 교육법이 이와 같은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교육이 무엇인가? 학교에서의 지식과 기술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유용하고 유익하다. 그러나 진짜 그 인생을 따뜻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정감의 교류를 통한 마음과 영혼에 남는 기억들이다. 그런 기억은 오직 모든 것을 내어주는 사랑과 헌신의 희생 외에는 없다. 이것이 바로 K-Halmuni의 위대한 사랑의 교육법이다.

크리스천의 눈으로 본 세상



전남수 목사 (알칸사 제자들교회)

5월 사랑과 희생

- 미나리, K-Halmuni, 소통

파탄을 불러왔고, 그럼에도 아주 특이한 기인 같은 생활을 하며 세상에 이름을 알려왔던 것이다. 이후 그의 생활은 계속 이상하기가 그치지 않았다. 한때, 찬송가 테이프를 들으며 큰 은혜를 끼치기도 했는데, 그런데 이제는 그 좋은 재능을 가지고서 아주 최근 불교의 찬불가 음반을 냈다고 자랑스레 이야기 하는 것을 들었기 때문이다.

인생은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별 수 없는 죄인임을 부인할 수는 없지만 그로 인해 혼란스러웠을 한 여인의 삶은 무척이나 고단한 삶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아이들 때문에 일하러 갈 수밖에 없는 환경을 오히려 자신의 예술혼의 에너지가 되었다는 조크에 온 세계 사람들이 공감할 한 것이다.

그리고 보면 정말 뭔가 일을 이루어낸 사람들을 보면 공통의 선로가 있음을 보게 된다. 소설책 몇 권을 썼을 만큼의 삶의 고통과 어려움이 존재하더라도 그러다 모두가 포기하고 낙심하며, 자신의 인생의 어려움을 핑계할 구실로 삼았을 그런 일들도, 큰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인생의 맛과 향을 내는 좋은 재료요 양약이 되더라는 것이다. 그들이 당한 고난들이 오히려 자신의 약점을 강하고 새롭게 담금질해서 더욱 멋지고 정교한 작품 인생을 만들어 내더라는 것이다.

공통의 감성선

미나리 영화를 보면 출연자들의 대사가 그렇게 특별하지

만 필자는 유독 그 할머니에게 관심과 초점이 모아졌다.

미나리 영화의 실제 배경이 된 곳이 이곳 알칸사이어서 현재 주도인 리틀락과는 두 시간 반 정도 떨어진 외진 곳에서 약 초와 배나무를 키우며 살아가고 있지만 이곳까지 그분들에 대한 이야기가 전해진다. 정 감독의 부친은 착실하게 공부하면서 잘 장성한 두 자녀로 인해 한인교회 성도들에게도 모범이 되며, 교회가 교육 강연을 요청하면 와서 좋은 이야기도 많이 전해 주었다고 한다. 정 감독의 누이도 같은 학교를 진학하여 지금은 의사로서 봉사하고 있다고 한다. 게다가 더 귀하게 들었던 것은, 한국 아들의 이름을 성경의 이름 그대로 사용할 정도로 신앙도 아주 좋았으며 이곳에서 오래 사셨던 분들이 전언하는 여러 내용들이었다.

아마도 영화에서, 세상의 평범한 것을 평범하게 보지 않게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영화 곳곳에 나타나는 것이 그런 신앙적인 배경 탓은 아닐까 생각된다. 예를 들면, 물가에서 뺨을 본 손자가 두려워하자 '보이는 게 안 보이는 것보다 낫다. 숨어 있는 게 더 위험한 법이야'라고 타이르는 할머니의 모습 속에서 언뜻 기독교의 영적세계에 대한 암시를 주는 것처럼 들려지기 때문이다. 미리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을 잘 물리치고, 정말 두려워할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라는 말씀도 생각나도록 하기 때문이다.

할머니의 잠언

가지고서 최대의 경의를 영화라는 형태로 드러낸 것이라 여겨진다.

가능한 세대간(間) 소통

영화를 통해 느껴지는 최고의 감동은 한 세대를 건너뛰는 세대 간 소통의 가능성이었다. K-할머니, 그는 완전 한국의 시골 할머니 같은 1세 그 자체의 모습이다. 정말 순도 100%의 시골 할머니 모습이었다. 그런 그가 누구와 소통하고 있는가?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완전한 2세의 어린 손자이다. 그 손자에게 한국의 할머니가 배움과 가르침을 전하는 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음을 본다. 오히려 더 극적으로 할머니의 음성 기억하는 것을 본다.

여기서 어려움이 없다는 것은 기술적인 전달의 문제를 말함이 아니다. 할머니 세대의 정서적 온기가 그대로 완전 아메리칸 2세 손자에게 그 생각과 정신이 그대로 흘러 들어갔다 는 것이다. 어떻게 이것이 이토록 완벽하게 느낌을 전달할 수 있었을까? K-할머니들이 가지는 '물불 가리지 않는 사랑과 헌신'이 결국 문화와 언어와 배경이 다름에도 그 모든 것을 뛰어 넘어 완벽하게 녹아 흘러 전달되었다는 것이다.

물불 가리지 않는 사랑과 헌신은 무엇일까? 아무리 세상이 개인의 개성을 존중하고, 나중에는 부모자식 간에도 서로의 불간섭이 세련된 부모의 조건처럼 여겨지는 때가 되어도, 사랑하기에 생명도 내어주고,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는 불길 속에도 뛰어들며, 자신의 생명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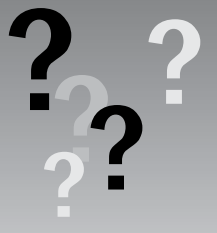
망각과 본성의 회복

그런데 실제로 이 사랑은 한국 할머니만 하는 사랑법이 아니다. 모든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의 작품인 이상은 부모로서 당연히 이러한 사랑과 희생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 세계가 한국 할머니에 대해 이토록 열광하는 것도 저들 속에 그런 영적 DNA가 존재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이 시대는 하나님이 주신 영적 DNA를 둔감하게 만든다. 잊어버리게 한다. 조부모와 손자는 말할 것도 없고, 부모와 자녀 간에도 서로의 입장을 존중하며, 자기 인생은 각자 알아서 사는 것이라며 마치 남 이야기하는 것처럼 한다.

지금도 그러하지만 장차 여자가 여자로, 남자가 남자로 부끄러운 짓을 하며 이제는 공식적으로 아이를 입양할 수 있는 시대마저 되었다. 한국에서 활동 중인 어떤 일본인 여성은 미혼모로서 아버지가 분명하지 않는 아이를 인공수정하여 낳고, 마치 정상적 가정의 자녀처럼 매체에 홍보하며 방송에 등장한다. 그런데 한국사회가 점차 이러한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다. 사회전체가 도덕과 영적 감각을 상실해가기 때문이다. 그저 각자의 Life Style을 인정하고, 개성을 존중하며, 각자 자기 인생사는 것이라고 쉽게 설명한다. 서로 간섭하지 않는 것을 인격과 수준 높은 배려라고 생각한다. 아주 많이 잘못된 현상이다. 이것은 배려를 핑계하는 사랑의 결핍이며, 영적인 타락이며, 사랑의 수고를 게으름으로 돌려막는 인생의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빛과소금교회 / (310) 749-0577
Johnjunghyunlee@gmail.com

Q: 저는 장로교회에서 신앙 생활하는 자입니다. 1) 구약성경(신5:14)에서 안식일을 오늘날 기독교에서는 주일이라고 함에 있어 안식일과 주일이 다른 의미를 갖고 있나요. 2) 주일에 불신자를 고용하여 교회식당에서 일을 맡김에 대해 3) 주일에 교인들이 외부로 식당이나 커피점 등에서 교제를 나눔이 주일성수행위에 잘못되지 않았는지요? - 남가주의 하지만

A: 3가지 질문이네요, 좋은 질문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명령인데 거룩이란 히브리어 원뜻은 구별되었다는 뜻입니다. 다른 날과 구별되어지켜야 한다는 뜻입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6일 창조 후에 쉬셨으니 피조물인 우리도 6일을 열심히 일하고 7일째 되는 날은 쉰다는 쉼(Resting)의 개념에서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안식후 첫날에(마 28:1) 예수님의 부활을 계기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신약의 주일개념은 구속에 근거하여 만들어진 개념입니다. 주일은 첫날이므로 예배를 통해 신령한 은혜와 힘을 얻어 한 주간을 승리한다는 개념입니다. 초대교회는 처음에는 안식일과 주일을 겸하여 지키다가 점점 주일(주의 날)로 바뀌었습니다(고전16: 2, 계1:10).

진정한 쉼과 안식은 주님 안에 있어

교단마다 목사님마다 주일을 지키는 것에 대한 해석이 다릅니다. 과거 한국의 어떤 교단에서는 주일에 차도 타지 않았습다. 신학교 다닐 때 저의 은사였던 고 박윤선 목사님은 3가지를 지적하여 주일에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별했습니다. 1) 생명에 관한 것입니다. 아파 죽어가는 사람을 주일이라고 병원에 안 데려가는 것은 잘못입니다. 생명을 살려야 합니다. 2) 예배에 관한 것, 한국 같은 경우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 전철이나 버스를 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3) 부득이 한 일, 차를 운전해 교회에 오다가 그만 깜빡 잊고 개스를 주중에 넣지 않아 개스가 떨어졌다면 당연히 개스를 넣어야 합니다.

주일에 개스를 넣거나 마켓에 가고 식당가는 것은 구원과 관계없는 "아디아포라"에 관한 덕 문제, 자유문제입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주일에 불신자를 고용하여 교회식당에서 일을 맡김에 대해서는 목사님들마다 해석이 다르겠지만 저는 그것도 안 쓰는 것이 더 좋다고 봅니다. 자기는 쉬면서 다른 사람에게 일을 시키는 모순된 결과를 낳기 때문입니다. 신5:14은 "네 문안에 거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을 하지 못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으로 주일에 교인들이 식당이나 커피숍에 가서 교제하는 문제는 아주 보수적인 목사 외에는 묵인하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주일에 일하지 말고 쉬라고 하면서 내가 식당에 가거나 커피숍에 가면 남을 일을 시키는 것이 되기에 모순적인 행동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주일에 식당이나 커피숍에서 교인들이 모여 교제하는 것이 은혜롭게는 보이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교인들에게 주일에는 식당이나 커피숍, 마켓에 가는 것은 가능하면 삼가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주일오후에 공원에 가서 성도들끼리 야외 친교하는 것은 교제를 위해 가능하다고 봅니다. 오늘날 주일성수문제가 너무 헤이해졌다고 봅니다. 주일은 다른 날과는 구별되게 지켜야 합니다. 주일성수 문제는 지나치게 율법적으로 매어서도 안되나 너무 헤이하게 행해서도 안될 것입니다. 그러나 참된 안식은 무엇을 지키고 안 지키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게 너희를 쉬게 하리라(마11:28), 진정한 쉼과 안식은 주님 안에 있습니다.

약한 모습일 따름이다. 이러한 약한 일이 가족 간에 나타난다면 이것조차 고상한 말로 회피하고 말 것인가? 영화 속 K-할머니라면 어떻게 했을까?

K-할머니, 미나리

5월은 가정의 소중함을 생각하게 만드는 복된 달이다. 미나리 영화를 보면서, 완전한 2세 아메리칸 손자와의 소통의 문체도, 상상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사랑과 희생으로 날려버리는 한국 할머니(K-Halmuni)의 당당함과 훌륭함에 찬사를 보낸다. 더불어 모든 이민자들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수고

와 사랑과 헌신에 경의를 표하

게 된다. 그들이 있었기에 마치 낯(?) 같고 어른 냄새가 나는 것 같고, 이제는 외로운 노인 아파트의 한켠을 차지하는 정도로 왜소해졌다 하여도, 그들이 있었기에 오늘날 다음 세대가 존중받는 것이다. 마땅히 공경을 받아야 할 분들이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한마디, "윤여정 배우, 당신이 연기한 그 한국 할머니가 바로 스트롱, 원더풀, 바로 그 미나리였습니다. 당신과 우리 한국의 모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렇게 강건하기를 기도합니다."

davidnjeon@yahoo.com



목회서신

“사활을 걸고 흔들 깃발이 무엇입니까?”



여승훈 목사 (남가주보배로교회)

“마치 미로를 걷는 것 같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오늘날의 기독교를 향해서 내뱉은 한마디입니다. 미로는 길을 잃게 만들어서 목표 지점에 도달하기 어렵게 만드는 구조를 일컫습니다. 현대 기독교를 미로에 비유를 한 그 목사님의 한마디는 방향을 잃고 혼란을 겪고 있는 현대 기독교에 대한 안타까움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약’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만큼 현대 기독교에 스며 들어온 영적 혼탁 현상은 신자 개인과 교회 공동체를 사방으로 둘러싸고 잠식해가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입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여기에 대한 해결책을 내놓기 위해 신학계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기독교 전문가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신학적 돌파구와 새로운 제도적 돌파구와 심지어는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복음을 제시하고자 애쓰는 흔적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새로운’

들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기독교 전문가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신학적 돌파구와 새로운 제도적 돌파구와 심지어는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복음을 제시하고자 애쓰는 흔적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새로운’

새로운 ‘새로운’ 무엇을 제시하는 발상들이 오히려 현대 기독교를 더욱더 길을 잃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현대 기독교에 스며든 ‘약’을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무엇이 결코 아닙니다.

현대 기독교에 스며든 ‘약’을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사도들이 전하고 가르쳤던 단순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종교 개혁자들이 중세 암흑기의 어둠을 빛으로 나오게 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사도들이 전하고 가르쳤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낡고 진부한 옛날 방식이라고 폄하하면서 시대 감각에 맞는 새로운 방식의 복음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런 사고방식은 완전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 사고방식을 유지하는 한 불붙는 신학이나 불붙는 메시지나 불붙는 기도나 불붙는 찬양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불붙는’이라는 표현은 성령의 불같은 은혜를 가리킵니다. 성령의 불같은 은혜 없이는 어떤 새로운 것으로도 기독교에 스며든 ‘약’을 제거하지 못합니다.

성령의 불같은 은혜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온전히 사로잡힐 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성령의 불같은 은혜를 찾기가 매우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 이유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사활을 걸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준 높은 신학은 있는데 불붙는 신학을 만나기가 쉽지 않고 수준 높은 메시지는 있는데 불붙는 메시지를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수준 높은 새로운 것을 찾으려는 시도를 멈춰야 합니다. 그저 단순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단단

히 붙드는 것입니다. 결국 승리하는 것은 결코 수준 있는 새로운 무엇이 아님을 깊이 되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승리하는 것은 단순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신자 개인들과 교회공동체들이 단순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사활을 걸고 불붙도록 모두 함께 간절하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단순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사활을 걸고 붙든다면 비록 그 숫자가 적다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현대 기독교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신자 개인들과 교회 공동체들을 성령의 불로 뜨겁게 타오르게 할 것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외치고 선포하며 나갑시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 나의 구세주, 나의 삶의 주인!

newsong6364@gmail.com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집단면역 회의론 vs 낙관론

코로나19 ‘집단면역’은 불가능한 목표일까. 해외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국제 과학 학술지 네이처는 지난 3월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 집단면역이 불가능한 5가지 이유를 내놓았다. 반면 집단면역이 충분히 달성 가능한 목표라고 보는 전문가들도 적지 않다.



네이처는 집단면역이 불가능한 첫 번째 이유로 코로나19 백신의 감염 차단 여부가 불확실하다는 점을 꼽았다. 화이자, 모더나 등 백신이 코로나19 발병을 예방하는 데는 효과적이지만 타인에게 감염을 전파하는 것을 막는지는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변이 바이러스의 출현, 백신의 면역 지속력 문제, 일정치 않은 지역별·연령별 백신 접종률과 백신 접종으로 방역수칙 준수에 소홀해지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이 때문에 코로나19가 매년 백신을 맞는 독감과 같은 풍토병이 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집단면역이 여전히 달성 가능한 범위에 있다는 반론도 나온다. 데일 피셔 싱가포르 국립대의 교수는 지난달 CNBC에 “코로나19를 근절하려는 게 아니라 통제 불가능한 지역사회 전파를 막으려는 것”이라며 “(집단면역을) 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피셔 교수는 집단면역을 흑백 상태로 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는 “대부분이 집단면역이 있거나 없거나 둘 중 하나라고 생각했지만 그 사이에 분명 회색시대가 있다”며 “면역 인구 비율이 70%에 달하면 추가 감염을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벤저민 코울링 홍콩보건대 교수도 “머지않아 세계 각 지역이 집단면역에 도달할 것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그는 “집단면역이 영원하지 않을 수도 있고 상대적으로 단기간일 수도 있다”면서도 “면역력이 떨어진다면 부스터샷(백신 효과를 높이는 추가 접종)이 도움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존스홉킨스 블룸버그 공중보건대학 연구진도 지난달 코로나19 집단면역을 완성할 수 있다는 취지의 기사를 게재했다. 연구진은 “백신 제조와 유통이 빠르게 이뤄져 조만간 집단면역이 가능할 것”이라며 “미국은 2021년 늦여름까지 전체 성인의 절반 이상이 예방접종을 마무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집단면역으로 가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감염 예방을 위한 장기적인 노력도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연구진은 “집단면역에 도달하는 가장 빠른 방법은 마스크를 쓰고, 거리 두기를 유지하고, 실내모임을 피하고, 즉시 백신 접종을 하는 등 각자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美 정부 “전세계 예방접종 장벽 없애야”

미국에서 코로나19 백신 지식재산권(지재권) 한시적 면제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진보 정치인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이 연일 관련 주장을 내세우고 있고, 민주당 일각에서

도 ‘백신외교’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미 연방정부도 세계무역기구(WTO)와 협의의 절차를 시작했다. 미국이 주저하는 동안 중국, 러시아 등이 백신 외교에 선제 대응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론 클레인 백악관 비서실장은 2일 CBS방송 ‘페이스 더 네이션’에 출연해 “미 무역대표부(USTR)가 코로나19 백신을 더 많이 공급·허가하고, 공유할 방안에 대해 WTO와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ABC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제약회사가 전 세계에 대규모 비용을 들여 모든 사람이 예방접종을 받는 데 아무런 장벽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믿는다”며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 대표가 WTO에서 협의에 참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은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재확산이 가파르게 이뤄지면서 자국 제약회사들의 지재권을 한시적으로 면제해 백신 생산량을 늘려야 한다는 압박을 받아왔다. 미 무역대표부는 그간 코로나19 백신 개발 제약사 대표들과 업계 관련자, 전문가들과 접촉해 의견을 수렴해왔다.

클레인 비서실장은 “이와 관련해 며칠 내에 더 말할 게 있을 것”이라며 백악관의 추가 입장 발표도 예고했다.

다만 화이자와 모더나, 존슨앤드존슨 등 코로나19 백신을 생산하는 미국 제약회사들은 지재권 적용 중단에 회의적인 입장이다. 미 상무부와 백악관 내부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작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미국 내에서는 백신 외교의 필요성이 연일 제기되고 있다. 샌더스 의원은 NBC방송 ‘미트 더 프레스’에 나와 “다양한 국가에서 백신이 생산돼야 한다. 제약회사들이 백신의 지재권을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염병이 다른 나라에서 계속 퍼진다면 다시 돌아와 우리를 물 것”이라며 “세계 나머지 국가를 도와야 한다는 것은 미국의 도덕적 의무일 뿐 아니라 미국의 이익에도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가난한 나라의 수백만명이 아직 백신을 맞을 수 없다. 선진국에서 백신을 맞을 수 있다는 건 도덕적으로 불쾌한 일”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샌더스 의원은 민주당 상원의원 9명과 함께 지난주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한시적 지재권 면제 지지를 촉구하는 의견서도 제출했다. 이들은 서신에 “미국의 명성을 되돌릴 수 있을 뿐 아니라 팬데믹을 더 빨리 종식시킬 수 있게 할 것”이라고 썼다. 워싱턴포스트는 이를 “백신외교”를 위한 노력”이라고 평가하며 “중국과 러시아가 개발도상국에 적극적으로 백신을 배포하면서 지지를 얻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얀마 기독교인들, 쿠데타 후 정글로 내려

지난 2월 미얀마에서 쿠데타가 발생한 후 기독교인들이 안전을 찾아 정글 등 야생으로 피신하고 있다고 최근 미국 오픈도어선교회가 발

표했다.

이에 따르면, 현지에서 작은 교회를 목회 중인 치트 목사는 2월 쿠데타 이후 그와 교회가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미얀마 정치 지도부를 규금했던 군사 정권은 현재 교회, 사무실, 카페, 주거용 건물 등을 습격해 시위자들을 색출하며 총격을 가하고 있다.



치트 목사와 교회에 소속된 18명의 가족들은 정글이 더 안전한 장소라는 결정했고, 모두 야생에 몸을 숨겼다. 쿠데타 이후 음식 값이 2배로 뛰었기 때문에, 이들은 쌀을 살 여유가 없어 밀림에서 뿌리와 잎을 채취하고 있다.

이들이 직면한 위협 중 하나는 군사 정부에 의해 군대에 징집되는 것이다. 외딴 마을에 사는 한 목회자는 오픈도어와 협력하고 있는 루원에게 “지난 주 총장에게 군복무 요원 30명을 모집해야 한다는 요청을 받았다. 지금 목회자를 비롯한 기독교인들은 숲속에 숨어 있다”고 전했다.

루원에 따르면, 사람들은 상황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하며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인터넷이 끊기면서 통신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미얀마 오픈도어의 파트너들은 현지 기독교인 440만 명 중 상당수가 겪고 있는 현재 어려움을 함께 나눌 수 있었다고 한다.

수도 양곤 출신 기독교인인 민 내임은 오픈도어와의 인터뷰에서 “매일 집 근처에서 총성과 수류탄 소리가 들린다. 대부분의 집들은 저녁 8시 이후 불을 꺼놓고 아무도 소리를 내지 않는다. 우리는 낮에도 집 안에 있다. 식료품을 사러 가는 것과 쓰레기를 버리는 것 외에는 외출할 수 없다. 양곤의 한가운데에 보안 없이 살고 있다”고 했다.

기독교인들은 미얀마에서 심각한 박해에 직면해 있으며, 대다수가 분쟁 기간 동안 표적이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쿠데타 이전에도 미얀마는 가장 오랫동안 내전에 휘말린 국가였다. 내전은 1948년 영국에서 독립한 직후 시작했다. 중앙 정부는 제한된 자치권을 약속 받은 지역을 통제하려고 한다. 이들 지역의 무장 민족은 자기결정권을 위해 싸웠다.

내전은 특히 친, 카친, 카렌의 기독교 공동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기독교인들은 반란 단체와 군대 양쪽의 박해를 받는다. 전투는 계속 진행 중이며, 대부분 기독교인으로 구성된 10만 명 이상이 난민 캠프에서 지내고 있다.

그들 중 대부분은 음식과 의료 서비스 없이 수 년간 그곳에 있었다. 기독교 소수인이 많은 이웃 산 주에서도 싸움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따라서 2월 쿠데타는 현지 기독교인들에게 긴장감을 더했을 뿐이다.

그들 가운데 일부는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거리에서 시위자들과 합류했다. 미얀마 중부의 마이아 목사는 시위가 처음 시작되었을 때, 지역사회의 구성원들과 매일 시위에 동참했다. 그는 오픈도어와의 인터뷰에서 “우리 사람들이 싸우고 항의할 때 기뻐할 수 없었다. 난 나가서 항의하기로 결심했다. 일부 다른 목회자들도 교회에 남아 단식과 기도를 관철하는 쪽을 택했다. 우리는 나라를 위해 가장 좋은 것을 원한다”고 했다.

마이아 목사는 너무 위험해지자 시위를 중단해야 했다. 군 장교들이 그들의 지역을 침략했고, 그는 교회의 문을 열 수 없지만, 기도와 성경공부를 위해 일부 성도들과 함께 모였다. 미얀마 중부 조슈아 목사도 초기의 민주화 지지 시위에 참여했다. 경제 상황이 악화되자, 그는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 모두에게 음식 꾸러미를 나눠주기 시작했다. 또 다른 목회자인 지우 목사는 가난한 교회 이웃에게 77파운드의 쌀을 기부했다. 또 시골에서 온 다른 목회자들을 전화로 돕고 격려했다.

오픈도어는 “수도에서 멀리 떨어진 정글까지, 미얀마 교회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기도하고, 음식과 격려의 말이 필요한 모든 이들에게 실제적이고 영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려 한다”고 전했다.

워싱턴에서 ‘Korea’ 가 사라졌다

워싱턴에서 ‘코리아(Korea)’가 사라졌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한반도에 집중됐던 미국 조야(朝野)의 관심이 정권 교체 이후 급속히 쪼그라든 모습이다. 취임 직후부터 북한 문제를 행정부 차원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했던 트럼프 전 대통령과 달리 조 바이든 대통령은 한반도 현안 자체를 거의 언급하지 않고 있다. 한반도 문제가 바이든 행정부의 핵심 의제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있는 것이다.



물론 북한의 태도가 크게 달라졌다. 4년 전 북한은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 미국에 위협적인 전략적 도발을 거듭했지만 최근 들어서는 별다른 움직임이 보이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미국의 ‘대(對) 중국 정책 변화’가 보다 근본적인 이유라고 분석했다. 정권 교체 후 미·중 경쟁이 더욱 심화하면서 북한보다 중국에 관심이 쏠린 측면이 크다는 것이다. 코로나19 극복과 경기부양 등 시급히 해결해야 할 내부적 과제로 안착해 있다.

일각에서는 한국이 미국 주도의 대중국 견제 동맹 참여에 미온적인 반응을 보였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내놓는다. 미·중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는 데 전념하고 있는 바이든 행정부 입장에서 한반도 이슈에 관심을 가질 이유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한·미동맹이 한·미·일 안보 협력의 종속 변수로 다뤄질지 모른다는 우려가 고개를 드는 이유다.

국민일보가 29일 미국 대통령의 공개 발언 데이터베이스 사이트인 팩트베이스를 분석한 결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기 첫 100일 동안 북한(North Korea)을 포함해 한국(Korea)을 언급한 것은 총 74회로 집계됐다. 반면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후 최근까지 내놓은 한국 관련 발언은 28일 기준 다섯 차례다.

코리아를 언급한 날 수를 보면 한반도에 대한 전현직 미국 대통령의 관심도 차이가 더욱 분명히 나타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취임 후 첫 100일 동안 코리아를 언급한 날은 총 26일이었다. 나흘에 한 번 입에 올린 셈이다. 이에 반해 바이든 대통령은 100일 중 다섯에 불과했다.

바이든 대통령 입에서 코리아란 단어가 처음 등장한 건 지난 2월 4일 국무부 연설 때다. 당시 바이든 대통령은 동맹국 정상과의 전화통화를 언급하면서 한국이란 단어를 한 번 사용했다. 이후 등장한 건 지난 23일 폐막한 기후정상회의 때다.

북한에 대한 언급은 3번에 불과했다. 러시아에 대한 새로운 제재 발표(지난 15일)와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와와의 공동 기자회견(지난 16일), 이날 있었던 첫 상·하원 합동연설이 전부다.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취임 첫 100일 간 북한을 69회 언급했다.

목회자와 평신도

한국 장로교회에서 최초로 안수 받은 목사가 배출된 것은 1907년이였다. 그렇다면 이전까지의 한국교회의 상황은 어떠한가? 초기부터 지도자의 위치의 선교사들과 그들의 지도를 받았던 평신도라는 2중구조가 지속되었다. 안수 받은 목사가 세워지기 전까지 오직 외국선교사만 목사신분으로 세례를 베풀 수 있었다. 따라서 성도들은 직, 간접으로 이들의 영향 하에 놓이게 되었다. 선교사들은 교회에 출석하면 무조건 세례를 베풀어 교인의 수를 늘려 본국선교부에 보고하는 우매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받아들인 결과 진정한 회심을 경험하였으며 믿음의 결단을 지니고 있는지 확인하는 일에 힘썼다.

이런 구조는 1907년 이후에도 지속되었다. 목회자들이 다수 배출되어 자체적으로 교단이 구성하고 운영되기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되어야 했다. 성도들은 선교사들의 영향력이 약화되고 국내목회자들이 세워진 후에도 2중구조가 지속되었다. 그 당시 목회자와 가족은 가난과 궁핍을 감수해야 했다. 일제강점기와 공산당 치하에서 교회를 대표하고 교인을 돌보는 위치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생명의 위협을 받는 경우가 허다했다. 목회자의 신분으로 사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얻는 이익이 없던 상황 속에서, 성도들은 십자가 복음에 대한 확신과 복음전파의 사명을 지닌 목회자들을 영적지도자로 존경하고 따랐다.

‘목회자와 평신도’ 사이의 2중구조가 연연중에 현대교회에도 지속되고 있는 듯하다. 단지 이런 구조를 어떻게 수용할 것인지에 대한 객관적인 견해가 분명하게 세워지지 않는 상황으로 인해 불미스런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한편, 신분차이를 수직적으로 관계로 이해하는 경우가 있다. 목회자라는 직분이 평신도보다 높다거나 평신도는 목회자에게 반드시 종속적이어야 한다는 견해이다. 이와 반대로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9-10절에 근거하여 모든 성도가 ‘제사장직’을 지녔다고 해석하고, 나아가서 목회자와 평신도가 신분적으로 동일하고 전혀 다를 것이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이다.

여러 방법으로 목회자와 평신도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 1960년대 이후 ‘평신도신학’이라는 분야가 크게 발전되기도 하였다. 직분에 대한 신분(being)과 사역(doing)으로 나누어 설명하는 것이 매우 가장 효과적이라 생각한다(다음호에서 다룰 것이다). 그러나 필자는 자칫 ‘목회자나 평신도’ 사이의 긴장관계에 지나치게 초점을 맞출 때 생기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매우 크다. 교회에 주신 소중한 사명, 즉 모두 함께 복음전파에 부름을 받

았다는 사실을 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한국교회의 출발시점에 드러난 평신도의 귀한 사역을 살펴보면, 복음전파와 사명완수를 위한 상호협력의 소중함을 각성하는 기회를 가지길 원한다.

특이한 출발

‘성경중심’은 한국교회가 지닌 특징 중 하나이다. 그 출발과 발전과정에서 선교사들은 성도들이 성경을 제대로 읽고 배워 속히 신앙이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였다. 효과적인 사역을 위해 무엇보다 자신들이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넘어야 했다. 동시에 한국어 성경을 보급하기 위해 먼저 번역작업에 착수해야 했다. 이와 같이 선교사들이 먼저 언어를 습득한 뒤 성경번역

성경의 내용은 어떠한가? 결코 완벽하지 않았다. 단어 선택의 오류, 무리한 문자적 번역, 심지어 번역자의 사투리 표현도 담겨 있다. 그러나 공식 한국어 수업이나 사전도 없던 상황에서 성경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표현하려는 시도가 담겨있다. 향후 1893년에 언더우드와 아펜젤러를 중심으로 공동번역작회가 출범하였고 그 결과 1936년에 구약성경이 1938년에 신약성경이 출판되었다.

평신도의 역할

이처럼 한국교회가 ‘성경중심’으로 출발할 수 있었던 역사적 배경으로, 외국선교사들과 협조하였던 한인 평신도의 헌신과 열정을 빼놓을 수 없다. 먼저 일본에서 번역을 시도한 이

는 이수정은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조선으로 입국하기 전 일본에 머물며 최종 사역준비를 하는 동안 직접 그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쳤다. 이수정은 신학을 공부하거나 오래 교회생활의 경험을 하지 않았던 초년생 평신도였다. 그렇지만 그는 조선 복음화를 위해 긴요하게 쓰임을 받은 하나님의 도구였다.

중국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존 로스 선교사와 그의 동료들은 효과적인 한국어 성경번역을 위해 한국인들을 참여시켰다. 1875년에 청년이었던 이응찬과 김진기가 먼저 시작하였고, 그 후 백홍준, 서상륜, 이상하, 김철승 등이 협조하였다. 물론 이들은 기독교의 진리에 대해 무지하던 자들이었으나 번역에 동참하는 과정에 회심하여 선교사들에게 세례를 받았다. 조선 땅에

것이다. 한국에서 활동하던 선교사들은 1890년 이후 존 네비우스 선교사가 창안한 선교정책인 3차 원칙, 즉 토착인의 자전, 자립, 그리고 자치를 수용하였다. 그러나 선교사들이 한국인에 의한 한국교회를 세운다는 선교정책을 수용한 것이지만 시간적으로 이보다 훨씬 앞서 이미 한국교회는 자생적 전도인으로 헌신하였던 평신도들에 의해 이 방향으로 실천되었던 것이다.

로스 선교사의 번역에 결정적인 도움을 주었던 서상륜은 1883년 복음서를 들고 국경을 넘어 불심검문에 걸려 투옥되는 경험을 하였다. 지인의 도움으로 압수당했던 복음서 중 일부를 돌려받은 뒤 고향인 의주에 도착한 뒤 서상륜은 동생 서경조와 함께 황해도 장연군 송천으로 자리를 옮겨 전도사역을 시작했다.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한 결과 몇 달 후 18명의 결신자를 얻게 되었다. 이들은 비밀리에 주일예배를 드리기를 시작하였는데 이렇게 세워진 교회가 바로 한국 최초의 개신교 교회인 소래교회이다.

이상하는 1883년부터 고향인 의주에 잡입하여 처음에는 구두로 나중에는 위험을 무릅쓰고 성경을 반입하여 복음을 전했다. 건강상의 이유로 백홍준이 1884년부터 그의 사역을 대신하게 되었다. 초기에는 의주를 중심으로 했지만 서서히 다른 도시로 전도영역을 넓혀갔다. 그는 이미 한국에서 활동하던 언더우드선교사와 연결이 되어 더욱 힘을 얻었다. 1892년, 백홍준은 국법을 어기고 외국인인 내통하였다는 죄명을 받고 봉천교도소에 수감되었다. 그는 옥고를 치르던 중에 생을 마치게 되었다. 한인 최초 개신교 순교자의 제물로 자신을 주님께 바친 것이다. 비록 그는 이 세상을 떠났지만 남아있던 성도들을 중심으로 복음이 더욱 왕성하게 전파되었다.

개혁의 땀방울- 무엇을 기대할까? (34)

부제: 교회사가 가르친다!(20) - 직분의 이원론 (1)

조진모 목사

(Ph.D.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을 시도하는 것은 현재에도 널리 실행되고 있는 선교방법이다. 그러나 한국교회의 출발은 특이했다. 서양출신 복음 선교사들이 조선 땅을 밟기도 전에

수정(1842-1886)의 경우를 알아보자. 그는 고종의 허락을 받아 새로운 문물을 접하기 위해 수신사 수행원 자격으로 김옥균과 민영익, 그리고 박영효와

정식 교회가 세워지기 전 일본의 이수정보다 앞선 시간에 중국 땅에서 배출된 평신도들이 한국교회를 위한 사역에 이바지 한 것이다. 이들의 헌신은

선교사들 한국어성경 들고 입국...번역 동참 과정에서 회심

번역자들 국내서 전도사역...백홍준은 최초의 개신교 순교자

먼저 외국에서 성경이 번역된 것이다.

1885년, 최초 복음 선교사였던 호러스 언더우드(Horace G. Underwood, 1859-1916)와 헨리아펜젤러(Henry G. Appenzeller, 1858-1902)가 함께 조선 땅을 밟았다. 이때 미국인이었던 그들이 1884년에 일본에서 번역된 ‘신약전서 마가복음언해’를 손에 들고 입국할 수 있었다는 것은 매우 놀라운 일이다. 더욱 고무적이었던 것은 이에 앞서 이미 중국에서 스코틀랜드선교사였던 존 로스(John Ross, 1822-1915)에 의해 한국어성경이 번역된 것이다. 1882년에 누가복음과 요한복음, 1883년에 사도행전, 1884년에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이 차례로 번역되었다. 그 결과 최초 한글신약성경인 ‘예수성경전서’가 1887년에 출판되었다.

이와 같이 일본과 중국에서 번역된

함께 1882년 10월에 일본으로 건너갔다. 불신자였던 그는 기독교 신자였던 한 농학박사로부터 성경을 건네받고 그 진리를 탐구하는 과정에 회심하여 결국 1883년 4월에 세례를 받았다.

기독교인으로 새롭게 태어난 이수정은 조선을 가슴에 품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 3가지 성과를 소개한다. 첫째는 미국 북장로교회 해외 선교부에 조선에 선교사를 보내줄 것을 요청하는 편지를 발송하였다. 이수정의 편지로 인해 언더우드를 파송하는 일이 가능하게 되었던 것이다. 두 번째는 한국교회 선교를 위해 성경번역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확신하여 자신이 직접 번역작업을 주도하였다. 일본에 거주하던 미국선교사들이 이수정의 번역에 협조하였고, 성경출판에 대해 미국서서공회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기도 하였다. 세 번째

한국교회사의 한 획을 긋는 공헌으로 이어졌다.

자생적 전도인

선교지에 교회가 세워지기 전 선교사들은 초석의 역할자로 동역할 소수의 현지인을 얻는데 주력한다. 십자가 복음을 분명하게 이해할 뿐 아니라 주님의 지상명령을 공유하는 열정적인 신앙인이 세워질 때 선교사역이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 필수적으로 이 시점까지 인내하며 잘 견뎌야 한다.

한국교회의 시작은 매우 달랐다. 상식과 기대를 뛰어 넘는 일이 발생하였다. 중국에서 선교사들과 함께 성경번역에 협조하였던 이들이 조선 땅에 입국하여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였 다. 자생적 전도인의 역할이 시작된

협력 관계

외국선교사들은 평신도 전도인의 활동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언더우드선교사가 1887년 가을에 1차 전도여행길에 올랐을 때, 이미 세례 받은 준비가 되어있던 교인들을 보고 놀랐다. 최초로 세워진 소래교회도 예외가 아니었다. 더욱이 각 곳에서 세례를 받기를 원하는 지원자들을 점검할 때 그들이 기독교의 기본진리에 대해 익히 잘 배워 알고 있었다는 사실로 인해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초기 한국교회가 남지 발자취의 일부를 추적해 보았다. 언제나 목회자와 평신도 사이에 갈등이 생길 수 있다. 믿음의 선배들은 역사를 통해 우리에게 남겨준 중요한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모두 함께 복음전파를 위해 부름을 받았으며,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 자신의 자리에서 한 마음으로 협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covenantcho@yahoo.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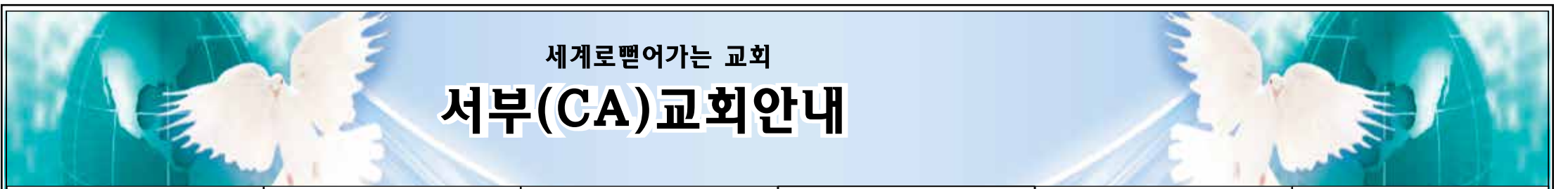


Table listing various churches and their details, including: 감사한인교회, 나성순복음교회, 남가주든든한교회, 남가주사랑의교회, 대흥장로교회, 디아스포라선교회, 미주양곡교회, 미주평안교회, 빛과 소금의 교회, 복음장로교회, 베델한인교회, 세계소망교회, 열매교회, 엘피스사역원, 은혜한인교회, 주님의교회, 주님의영광교회, 좋은마을교회, 코너스톤 교회, 토렌스조은교회, 핼(PIM)선교회, 교회, 하늘소망교회,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리더십 코멘터리 (134)



손동원 목사
(미드웨스트대학교 교수)

진정한 리더, 진정한 리더십

급변하는 사회속의 진정한 리더

어떤 사회나 조직에서 중심이 되고 핵심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을 리더라고 한다. 겉으로는 큰 영향력을 미치지 않지만 은연중에 조직을 이끌어가는 영향력을 나타내고 있으면 그 사람은 분명히 리더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어떤 타이틀이나 화려한 명함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속한 사회나 조직에 아무런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진정한 의미의 리더라고 할 수 없다. 리더의 자질은 선견지명을 가지고 전체를 살피고 미래를 내다보며 다른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자질과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우리들이 살고 있는 급변하는 사회에서는 많은 곳에서 진정한 리더를 필요로 한다. 사람들이 예전보다 학식이 풍부해지고 4차 산

교회 등 각종 조직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유형의 리더십 모델들이 정립되거나 개발되었다. 그 중에 최근 들어 주목받고 있는 것이 서번트 리더십이다.

서번트 리더십의 성경적 요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에서 서번트 리더십의 핵심적인 원리들을 찾을 수 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분이시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서번트 리더십은 어떤 것인가?

첫째로, 리더는 종이 되어 섬겨야 한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예수께서는 열두 제자들을 훈련하시기 위해 말씀과 능력을 주신 후에 돌씩 전도여행을 보내셨다. 그들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고, 귀신을 내쫓으며 병자를 고친 후 사역을 마치고 돌아와 예수께 선교보고를 하였다.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리더십

이와 같이 서번트 리더는 구성원들의 입장을 공감하고 그들과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 노력할 수 있어야 한다. 기존의 경험이나 고정관념, 편견을 버리고 열린 마음으로 구성원들의 상황과 처지를 가슴으로 이해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구성원들의 고충과 필요를 살피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며 노력해야 한다.

현대사회는 구성원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리더십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다. 그것이 바로 서번트 리더십이다. 이 시대의 리더들이 섬기는 자세를 가지고 리더십을 발휘할 때 우리 사회는 한층 더 성숙해질 것이다. 우리 모두가 구성원들을 사랑으로 보살피며 따뜻한 가슴으로 안는 이 시대의 진정한 서번트 리더가 되기를 소망한다.

장기적인 성장을 경험하는 리더십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이 기독교공동체에서 반드시 영적리더로 성공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영적 리더가 반드시 세상에서 성공하지도 않는다. 일반 리더십과 영적 리더

사·모·칼럼



장사라 사모
(텍사스 빛과소금교회)

열린문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한 번도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된 적이 없는 것 같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주인이든지 마귀가 주인이든지 하나님을 택해야 하는 운명으로 태어나지 않았다...

예수님은 빌라델비아교회에 ‘내가 네 앞에 열린문을 두었도되’(계3:8)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문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알려주지 않으셨다. 그렇다. 우리는 열린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면서도 그 열린문 안에 무엇이 있는지 정확하게 모를 때가 많은 것 같다. 아니 그 열린문이 여러 개라면 어떤 문이 하나님께서 열어 놓으신 문인지조차 분별할 수 없는 우리이지 않은가.

오래전 남편과 나도 이 열린문 앞에 여러 번 선 경험이 있다. 그래서 브라질에서 하와이로 하와이에서 한국으로 또 다시 텍사스로 옮겨가면서 그 열린문을 따라 오느라 허덕이며 오늘에 이르렀다. 그럴 때마다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열린문인지 진동하며 심각하게 고민하며 열린문 하나하나를 통과했다. 그렇다 그 문이 다 옳은 문은 아니었다 해도 하나님이 여신 문이라는 확신 때문에 여기까지 오지 않았다... 그리고 앞으로 남은 생도 몇 번의 열린문을 통과하며 그 나라에까지 이를런지... 모른다.

많은 사람이 선택과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에 대해 혼란스러워 한다. 그래서 야고보는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나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씀한다. 그 말은 어느 문으로 들어갈지 문지 말고 지혜롭게 선택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구하라는 뜻일 게다. 스스로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고... 그렇다. 우리는 살면서 어느 문이 진짜 열린 문인지 모르더라도 한 가지 확실히 아는 것은 우리가 그 문이 열리는 문이냐는 인격을 품은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것이라. 하나님은 준비된 자보다 순종하는 자를 더 원하시지 않음

예수님을 닮은 위대한 사람은 여러 가지로 들 수 있겠지만 혼자 있을 때도 누가 지켜볼 때나 다름없이 같은 행동을 하는 사람, 성공하여도 여전히 바닥으로 살 수 있는 사람, 늘 결과보다는 과정을 즐기며 그 속에서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면 족하지 않을까 그렇게 열린문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곧 우리가 즐겨하던 이상들을 기꺼이 다 뒤로한 채 그 자리를 떠나는 뜻이라. 아브람이 편하고 익숙한 곳에 머물렀다면 결코 믿음의 조상이 되지 못했을 거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쉬운 삶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않으셨지만 우리에게 쉬운 땅을 주겠다고 말씀하셨다. 그 쉬운 땅에는 예수님께 꼭 붙어있을 때 누리는 평안이라. 즉 외적 환경이 쉬워지는 게 아니라 내적 삶이 쉬워지는 것일 게다. 다시 말해서 나의 문제들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감당할 수 있는 마음과 능력을 주신다는 뜻이라.

늘 잣대로만 판단하고 생각했던 생각 너머의 무한한 삶과 열린 문이 있다는 것... 그래서 그 열린 문을 과감히 들어가 보며 새로운 미지의 삶에 발을 디디려한다.

changsamo1020@gmail.com

서번트 리더십: 구성원을 동역자로 보고 소중한 가치 지닌 인격체로 존중 수평적 파트너 관계로 지속적 변화 통한 장기적 성장 경험

업혁명시대에 최첨단화의 문명을 경험하며 살고 있다. 그러나 사람들은 미래발전을 위해 전통적인 것으로부터 무엇인가 탈피한 새로운 형태의 리더십을 원하고 있다.

진정한 리더십

그렇다면 리더십이란 무엇인가? 리더십이란 한마디로 목표를 이루기 위해 개인이나 단체에 영향력을 미치는 프로세스이다. 조직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핵심적인 위치에서 영향력을 미치는 리더가 조직의 공통된 목표를 달성하도록 기술적으로 능력을 발휘하는 영향력이 바로 리더십인 것이다. 현대사회의 조직운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가 리더십인데, 그 이유는 조직의 성패가 리더의 역량에 따라 좌우되기 때문이다. 수많은 리더십 이론들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리더십에 관한 신간들이 끊임없이 출간되고 있는 것도 리더십이 이 시대에 얼마나 중요시 되고 있는지를 잘 말해준다.

효율적인 리더십에 관한 연구는 오래전부터 활발하게 이루어져왔다. 그 결과 오늘날 정부를 비롯하여 공공기관, 기업, 학교,

도리어 섬기러 왔다”고 하심으로써 종으로서 섬기기 위해 이 땅에 오셨음을 분명히 하셨다(막10:44-45). 서번트 리더십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먼저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종이 되어야 한다. 종이 된다는 것은 가장 낮은 곳에서, 자신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섬기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로, 리더는 겸손하고 온유해야 한다. 예수께서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셨다(마11:29). 온유함이란 친절하고 너그러운 태도를 의미하며, 겸손은 자신의 지위와 신분을 낮추는 마음자세를 가리킨다. 권위주의는 타인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에서 나타난다. 권위주의는 아랫사람을 하대하거나 무시해도 된다는 인식을 갖게 만들고, 상대방의 이야기는 귀담아 듣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을 하게 한다. 그러나 서번트 리더십을 실천하는 리더는 자신이 가진 지위나 권한으로 구성원들을 움직이지 않도록 자신을 낮추어야 한다. 즉, 상하관계가 아닌 동역자 정신을 바탕으로 구성원들을 소중한 가치를 지닌 인격체로 존중해야 한다.

셋째로, 리더는 이해하고 배려해야 한다.

심에는 차이가 존재한다. 리더십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리더가 조직을 이끌어가기 위한 자질, 수단, 기술 등을 뜻하지만 리더십이 수단만을 의미하지는 않고 구성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조직이 더 나은 모양으로 발전하게 할 수 있는 자질, 기술, 능력을 포함하는 것이다.

오늘날의 교회에서 흔히 보는 전통적인 리더십은 교회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직분을 가진 리더가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명령을 하고 또 이에 따르는 통제가 따라왔다. 보다 효과적인 조직의 통솔을 위해서 중앙집권적인 위계질서나 가부장적인 리더십 형태를 첨가해서 모든 책임과 권한을 리더에게 부여해왔던 것이다. 하지만 서번트 리더십은 모든 사람들의 합의를 통해 어느 정도 그 권한이 나누어지고 수평적인 파트너 관계로 진행된다. 따라서 리더에게만 집중되었던 권한과 책임도 당연히 리더와 그 구성원들이 함께 하게 된다. 이를 통해서 단계적이고 일시적인 성장만이 아니라 지속적인 변화를 통한 장기적인 성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sondongwon@gmail.com

<p>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동부(NY, NJ)교회</p>		<p>뉴욕셋세마네교회 담임목사: 이지용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2:4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수요 저녁 예배: 오후 8:30 금요일 기도회: 오후 8:30 한국학교: 오전 9:30(토) Tel: (516)520-2004, www.nysetsemene.org 2408 5th St., East Meadow, NY 11554</p>	<p>뉴욕목양장로교회 담임목사: 허신국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02:00 수요성경공부: 오후 08:00 수요 저녁 예배: 오후 8:30 금요일 기도회: 오후 09:00 새벽기도회: 오전 05:45 Tel: (718)357-9199, www.moakyang.org 12-25 Clintonville St., Whitestone, NY 11557</p>	<p>뉴욕부르클레제일교회 담임목사: 이윤석 주일예배: 오전 11:00 영양예배: 오전 02:00 수요예배: 오후 08:45 금요일예배: 오후 08:45 새벽기도회: 오전 05:30 성경훈련: 오전 10:00 화,토 Tel: (718)265-2584, www.ikcb.org 14 Gravesend Neck Rd., Brooklyn, NY 11223</p>	
<p>뉴욕새벽별장로교회 담임목사: 정기태 주일 1부예배: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오후 1:30 주일 3부예배: 오후 1:15 수요성경공부: 오후 8:00 수요 저녁 예배: 오전 6: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화-토) Tel: (917)733-7387, chungkitae@yahoo.com 45-16 162 St., #204, Flushing NY 11358</p>	<p>뉴욕새생명장로교회 담임목사: 허운준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 주일 학교: 오전 11:00 수요 저녁 예배: 오후 8:30 금요일기도회: 오전 6: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Tel: (718)637-1470 45-50 162 St., #2FI, Flushing, NY 11358</p>	<p>뉴욕새사람교회 담임목사: 이종원 주일예배: 오전 10:30 영양예배: 오전 10:45 수요 예배: 오후 8:00 주일학교: 오전 9:30 새벽기도회: 오전 6:00 주일학교: 오전 10:30 Tel: (718)461-2810(Fax 겸용), (917)373-3411 46-04 162 St., Flushing, NY 11358</p>	<p>뉴욕센트럴교회 담임목사: 김재철 주일예배: 오후 2시 수요예배: 오후 8시 Tel: (718)662-6611 142-01 38th Ave., Flushing NY 11354</p>	<p>뉴저지성도교회 담임목사: 허성희 주일 1부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10 새벽기도회: 오전 5:40(화-금) 금요일기도회: 오후 8:30 (매주 1주, 3주) Tel: (201)342-9194, sungdochurch.org 309 State St., Hackensack, NJ 07601</p>	
<p>리빙스톤교회 담임목사: 유상열 주일예배: 오전 10:50 주일학교: 오전 10:50 청년성경공부: 오후 1:30 주일학교전일예배: 오후 12:30 주일학교성경공부: 오후 1:30 수요 찬양모임: 오후 8:30 Tel: (718)961-2171, Fax: (718)961-3631 215-29 42 Ave., Bayside, NY 11361</p>	<p>베이스айд 장로교회 담임목사: 이종식 장년예배: 1부 오전 7:30 2부 오전 9:15 3부 오전 11:30 주일 저녁예배: 오후 8:00 수요 저녁 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45 전교인특별찬양예배: 매주 토요일 오전 5:30 Tel: (718) 229-2858, www.nybaysidechurch.com/2/1 45-62 211 St., Bayside, NY 11361</p>	<p>사랑의동산교회 담임목사: 강신용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오전 1:00 주일 E.M.: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일기도회: 오후 8:30 새벽예배: 오전 5:20 Tel: 516)433-0862 8 Duffy Ave., Hicksville, NY 11801</p>	<p>어린양 개혁 교회 담임목사: 유승래 EM 목사: 임지윤 On-line Worship Service: 11am Transformed Transforming Prayer Healing Ministries, Bible Studies, One-2-One, 2nd-3rd-Multicultural Ministries Jesus said "Feed My Lambs" (John 21:15) Tel: (845)848-2013</p>	<p>빛과소금교회 담임목사: 정순원 주일 1부 오전 7:30(30분) 주일 2부 오후 1:45(30분) 주일학교 오후 1:45(30분) 청년예배 오후 3:15(20분) 새벽기도회 매일 오전 6시 목요일 오후 8시 토요일 오후 7시 30분 Tel: (347)513-1351, cheongssoonwon@yahoo.com 45-11 149 St., Flushing, NY 11355</p>	<p>퀸즈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성국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후 12:15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Tel: (718)886-4040, www.kapcc.org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p>
<p>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하와이 및 북미 지역</p>		<p>맨큐버빌라델비아교회 담임목사: 김성훈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 성경강좌: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00(화-토) 금요일기도회: 화, 목, 금, 토, 일 오전 7:30 금요일 기도회: 화, 목, 금, 토, 일 오전 7:30 Tel: (804)584-5780, www.pccov.org 9135 132nd St., Surrey, B.C., Canada, V3V 5P6</p>	<p>브라질 한인교회 담임목사: 한봉헌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 포어예배: 오후 7: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45 Tel: 011-55-11-3270-9233, 3277-3141 R. Livreiro Alves 16 Liberdade SP CEP 01505-010</p>	<p>브라질 서물교회 담임목사: 하경남 주일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40 Tel: 3277-1489, Fax: 3209-9343 Rua Joaquim Piza, 281 Cambuci S, Paulo Cep 01528-010</p>	
<p>아르헨티나 제일교회 담임목사: 최광연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00 주일 저녁예배: 오후 3:30 주일학교: 주일 12:00 Tel: (54)114-631-2171, AV. CARABOBO 1253, CAP. FED., B.S., A.S., ARGENTINA</p>	<p>칠레 한인연합교회 주일 오전예배: 오전 11:00 주일 저녁예배: 저녁 7:00 수요기도회: 저녁 9:00 7:14중보기도회: 아침 7:40 유, 초, 중, 고등부예배: 오전 9:30(주일) Tel & Fax: (562)556-7628, (562)341-0389 Santiago Correo - 3 Casilla 325 Chile</p>	<p>토론토 가든교회 담임목사: 김성민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주일 오후예배: 오후 2:00(영어)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 금요일예배: 오후 7:30 Tel: (416)490-9060, www.torontogarden.org 260 Yorkland Blvd., North York, ON M2J 1R7</p>	<p>하와이 행복교회 담임목사: 이남수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15 수요성경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Tel: (808)585-1859 1130 N. Limitz Hwy C-100 Honolulu HI 96817</p>	<p>호놀룰루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일규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주일 3부예배: 오후 12:30(영어) 주일 4부예배: 오후 7: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일기도회: 오후 9:00 Tel: (808)947-5252, www.hawaiichurch.org 2122 Metcalf St., Honolulu, HI 96822</p>	<p>멕시코 현지인 교회 선교사: 임함곤 선교사 1. 멕시코 빈천 신학교 교수 2. 임마누엘 신학대학 교수 주일 1부예배: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오후 3:00 주일 3부예배: 오후 5:00 Tel: (52)33-3507-4111, hanimkr@hanmail.net Goya 530 Manuel, Acuna, Guadalajara MEX(멕시코)</p>



목회서신



지용덕 목사
(미주양곡교회)

소중한 울타리

소중함을 깨달아 그 소중한 것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 당시에는 그 소중함을 모르다가 세월이 지난 후에 혹은 그것을 잃어버린 후에야 그 소중함을 깨닫고 후회하고 아쉬워하게 됩니다. 삶의 지혜는 제 때에 그것의 소중함을 알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존재론적으로 사람은 보호를 필요로 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보호 받음이 필요치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람은 출생하여 천국에 갈 때까지 여러 가지 종류의 보호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은 보호본능을 주셨습니다. 스스로 자기를 보호하지 못하는 연약한 대상을 향한 보호본능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 보호본능을 통하여 보호받아야 할 존재들이 보호를 받으며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보호본능은 사람은 물론 모든 생명 있는 존재들에게 있습니다. 동물들의 세계에도 보호본능이 존재합니다. 심지어 식물의 세계에도 은밀한 보호본능을 따른 보호하고 보호받음의 이치가 있습니다. 특별히 사람들에게는 강력한 보호본능을 주셨습니다. 자식을 향한 부모의 강력한 보호본능이 있습니다. 가족에 대한 강력한 보호본능이

있습니다. 목회를 하는 저 같은 목회자로 교회를 주의 종들은 자기에게 허락한 주님의 양무리에 대한 강력한 보호본능을 가집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전능자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생명과 인생과 귀한 것들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보호를 하십니다. 특별히 몇 가지 울타리(fence)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보호해 주십니다.

목자는 어두운 밤이 되면 양무리들을 양우리 곧 양을 보호하는 울타리 안으로 인도합니다. 양들은 그 우리 곧 울타리 안에서 어두운 밤에도 보호를

받으며 편안한 밤을 지나게 됩니다. 목자는 양의 우리를 통하여서 양무리를 보호합니다. 양은 양의 우리 안에서 목자의 보호를 받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들을 위해 우리 곧 울타리를 만들어주셨습니다.

예컨대 교회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 만들어주신 우리들의 귀중한 울타리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사자를 비롯한 맹수 이리떼가 득실거리는 이 세상을 살아 갈 때에 목자이신 하나님의 강력한 보호를 받으려면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비록 울타리 안에 머무름에 따르는 고충이 있어도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울타리 밖이 환경이 깨끗하고 불편케 하는 이렇듯 없고 부딪힘이 없는 자유로움이 없다 해도 울타리 밖에서는 안전을 보장 받지 못합니다. 목자의 보호를 받지를 못합니다.

혹 교회라는 우리 곧 교회울타리 안에 있는 것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곳이 안전한 곳입니다. 그리고 교회울타리 안에서 살아가는 수준 높은 행복도 있

기에 교회 울타리 안의 분복을 누리며 살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겸손히 적응하고 이웃을 사랑으로 섬겨야 합니다.

그리고 가정은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 만들어 주신 복된 울타리입니다. 사람은 가정에서 출생하고 가정에서 자라고 가정에서 살다가 가정에서 죽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가정적 존재이며 가정이란 울타리 안에서 살 때 모든 것이 형통하고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가정이란 울타리가 가끔 사람을 부담 되게 하고 부자유하게 하고 고통이 될 때도 있겠지만 그래도 가정이란 울타리 안에서 존재자로서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이유에서라도 가정이란 울타리를 탈출하면 헛된 방황의 인생을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혹 가정이란 울타리 밖에서 제 아무리 화려하고 욕망충족적인 인생을 산다 해도 결국은 후회만 가득한 허망한 방랑아로 존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가정이란 울타리를 만들고 지키며 그 울타리 안에서 오손도손 얽히고설켜며 더불어 살아

가는 것이 가끔 힘들고 어려울지 몰라도 그것이 인생의 분복이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참 행복은 가정이란 울타리 안에 있습니다.

5월은 흔히 가정의 달이라고 합니다. 가정은 나그네 인생길을 걸어가게 하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소중한 가정의 가치를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가정이란 울타리를 허물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가정이란 울타리 안에서 누리는 행복에 감사하고 만족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중한 가정의 울타리를 허는 사탄의 공격을 말씀과 기도와 성실한 사랑과 인내로 막아내고 가정의 울타리를 견고하게 지켜야 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신 소중한 가족을 책임지고 보살피며 모든 가족이 가정이란 울타리 안에서 가정을 통해서 주시는 인생의 분복을 누리도록 기도하는 5월이 되시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cyd777@hotmail.com

서부 3개 한인교회 담임목사 재파송 불허

UMC기주태평양연회 하키야감독 일방적 통보

미연합감리교회(UMC) 기주태평양연회(이하 Cal-Pac연회) 하키야 감독은 연회의 진보적인 방향과 다른 입장을 갖고 있는 서부지역 대표적인 한인 연합감리교회 3교회(남가주주님의교회, 벨리연합감리교회, 샌디에고한인연합감리교회)의 담임목사에게 '감독이 연회를 이끌고 가는 방향에 동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난 4월 21일 일방적 재파송불가 통보를 했다.

또한 최근 동부의 솔 감독은 한인연합감리교회 최대교회인 뉴저지 베다니교회의 이기성 담임목사에게 정직 120일 처분을 내리며 부당한 행정조치를 취해 많은 한인연합감리교회 교인들과 목회자들에게 혼란을 줬다.

2019년 세인트루이스에서 열린 교단 특별총회에서 전 통주의 장정을 유지하면서 결혼에 대한 정의를 기존의 "한 남자와 여자의 결합"으로 보는 입장을 고수하기로 했을 뿐 아니라, 보다 강력하게 '인간의 성' 이슈에 대한 규제조항을 추가했다.

하지만 진보성향의 감독과

미국 내 다수 연회와 교단 지도자들은 UMC 장정에 대한 불복종을 선언하고, 장정이 불법이라고 규정한 안수와 파송을 지속해오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교단의 법인 장정을 지키려는 한인교회에 교단 지도장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규정된 파송 협의과정도 없이 한인 목회자에게 일방적으로 재 파송 불가를 통보했다.

안성주 장로(KUMC 평신도 연합회 회장)은 "그동안 하키야 감독은 신학적 입장이나 문화, 전통이 달라도 서로를 존중하면서 지낼 수 있다고 개인적으로 또 공식적으로 계속 말해왔다. Cal-Pac 연회에 속한 한인교회는 인종적으로 소수일 뿐만 아니라 UMC 장정이 성경의 가르침과 일치한다고 믿는 소수이기도하다. 그런데 한인교회와 평신도, 목회자의 신학적 입장이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장정에 불복종하는 연회의 방향에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이번 결정은 불의한 처벌적 파송이다"라고 말했다.

이철구 목사(남부플로리다 KUMC 한교총 회장)는 "앞으로 근거 없는 사실을 기반으로

한 정직명령이 나올 수도 있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전망은 감독들의 권한을 남용한 부당한 결정이며, UMC의 장정을 어기는 행위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런 불의한 결정과 파송이 한인교회를 타깃으로 하고 있다는 것은 교단이 보여주고 있는 구조적인 인종차별주의(Actions of Systematic Racism)의 분명한 증거가 될 수 있기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또한 "한인교회총회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인교회의 평신도들과 목회자들이 뜻을 같이해 도움을 요청할 경우, 교단법인 UMC 장정은 물론 사회법에 의거해 한인교회를 보호하고, 한인교회의 신앙적 정체성을 지키며, 교회와 목회자를 지키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또한 장정을 의도적으로 어기고 무시하는 불법적 처사, 신앙과 양심에 따른 선택을 무시하는 교단지도자, 감독님들의 불공정하고 불의한 파송에 대해 모든 한인교회와 연대에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 대처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문의: 김일영 목사 (856)424-9686, ikim89@hotmail.com (기사제공: KUMC 한인교회총회)

아시아혐오범죄 이해, 예방과 대책 화상세미나

한인여성소사이어티와 최석호 기주하원의원 공동주최

한인여성소사이어티(KAWS, 대표 나은숙)와 최석호 기주하원의원 사무실은 지난 29일 오후 6시(미서부시간) 아시아인 증오범죄 이해, 예방과 대책에 관한 화상 세미나를 개최했다.

미주한인단체들의 활동 현황 및 역할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웨비나에서는 KACE 이민자보호 법률대행위 최영수 뉴욕위원장이 '인종차별과 증오범죄에 대한 법적 이해와 대응'이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최 변호사는 "코로나바이러스와 함께 우리를 찾아온 또 하나의 역병은 인종차별주의에 기반한 혐오범죄/혐오발언"이라며 "이 모든 것이 모르는 것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 닫힌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최근 미국 전역에서 보고되고 있는 아시아인 비하 모드와 혐오범죄에 피해자가 되지 않고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 변호사는 "증오범죄 발생에 대한 대처방안으로는 △피해자를 보호하고 관련기관에 협조를 구해야 한다. △지역커뮤니티 전문가 등과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한다. △사법당국에 협조를 구한다. △대중매체와 협력한다. △증오범죄에 취약한 여성과 노약자들을 보호 등을 들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에게 닥친 혐오범죄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다른 인종차별적 발언 혹은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하다"며 "다른 문화와 인종에 대해 이해하고 관심을 가지고 살아야 하며 그것이 이민자의 가치"라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는 이지연 교수(노스웨스턴대학 역사와아시아인 아메리칸 스터디)가 '편견에서 폭력까지 동양인을 대하는 미국'이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그리고 김동찬 뉴욕시민참여센터 대표가 '반이민과 아시아인 증오범죄에 대한 활동사례'라는 주제로, 손식 KA Voice 대표가 '정치력 신장과 제도개선을 통한 인종차별 반대활동', 서명용 오렌지카운티 한인회 총괄기획실장이 '아시아인 증오범죄 대책리드 워크샵 소개', 이은정 AARIN 대표가 'AAPI 소셜서비스 비영리단체&리서치 입장에서의 이해와 대응', 드립태권도 최창익 사범이 '아시아인 증오범죄 발생시 셀프피렌스 시범'에 대해 발표했다.

(박준호 기자)

결혼 안하는 사회...

(3면에서 계속)

더 많은 성도들의 결혼을 장려하기 위한 목회적인 노력에 대한 설교는 종종 들었지만 일관된 성공담은 들리지 않았다. 신앙공동체 안에서 이뤄지는 이야기를 좀처럼 들을 수 없었다.

인터뷰에 참여한 사람들은(특히 미국에서) 데이트 사이트를 통해 짝을 찾은 것이 일반적인 방법이라고 말했지만(그 중 크리스천을 선호) 사람들은 알고리즘을 통한 짝짓기보다는 실제 사람을 통해 소개받는 것을 선호했다(중매인은 더 많은 사람을 알고 있지 않은가). 활기 넘치는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를 만나고, 사랑이 빠지고, 결혼하는 과정을 겪으면 만족도가 컸다.

교회의 회중은 종종 규모가 너무 크고, 소규모 그룹은 너무 작고 선택권이 없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중간규모의 공동체가 가장 적합하다. 기독교적 공동체가 갖고 있는 독특한 방식으로 때로는 문화를 넘나드는 방식으로 또래 청년들을 끌어들이 수 있다. 따라서 결혼연령이 늦어짐에 따라 대학졸업 후 사회에서 생성되는 중간규모의 공동체 모임이 결혼의 성쇠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크라쿠프에서 결혼한 부부인 파웨와 마르타는 두 가톨릭 단체가 결혼전후에 그들의 결혼을 도왔다고 말했다. 하나는 인근 도미니카공화국의 청소년 단체였으며, 다른 하나는 폴란드, 레바논 및 스페인에서 인터뷰에 응한 사람들이 언급한 최대 50명으로 구성된 교회기반 공동체의 운동인 신교리교육운동

(Neocatechumenal Way이다. 즉, 젊은 크리스천이 외로움이 아닌 거룩함에 초점을 맞췄을 때 배우자를 곧 만나게 될 것이다. 간단하고 생경한 말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CS 루이스의 말을 기억해야 한다. "하늘을 겨냥하면 땅을 '들어올릴' 것이다." 물론 높은 목표를 정하는 사람이 모두 결혼을 기다리는 것은 아니다(성비 불균형은 지속적인 문제로 남아 있다). 그렇지만 먼저 신앙과 제자훈련에 집중한다면 결혼생활에 유익한 기초가 될 것이다.

결혼의 시작은 개인적 방식과 축적된 경험을 통해 생겨난다. 한 러시아 인터뷰 대상자가 언급한 것처럼 타인의 나쁜 사례는 결혼에 대한 일종의 백신 역할을 한다. 대조적으로, 좋은 예는 다음 세대에게 영감을 주기도 한다.

물론 이러한 과정에는 한계가 있다. 우리는 모범적인 이야기만 하며 결혼이라는 개념을 다시 정하거나 포괄할 수 없으며 우리의 노력이 성공하기를 기대한다. 어떻게 정의하든 결혼을 하고 가족을 꾸리는 것은 전통적인 행위다. 그러나 공동체 훈련을 통해 전통을 강화하는 것도 많은 사람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두 달 만에 결혼하는 과달라하라 출신의 34세의 학교 상담사인 토마스는 이 교훈을 받아들이었다. "부모가 어떻게 결혼생활을 하는지는 강한 인상을 줄 것"이라고 그는 말했다. "저는 부부관계가 아름답다면, 정말로 사랑이 있다면, 그것은 젊은이들에게 '나도 부모님처럼 살고 싶다'라고 말할 수 있는 열정을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혼 이상화 함정 피하라

마지막으로, 우리는 결혼을 이상화하거나 지나치게 이상화시키는 함정을 피해야 한다. C.S. 루이스의 "천국을 향한 목표"라는 개념으로 접근한다면 결혼의 본질을 생각하고 결혼에 대한 오늘날 만연한 세상의 물질적, 심리적 기대에 대해 경계해야 한다. 결혼은 부활의 때 하늘에서는 없을 지상에서의 일이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셨다(마22:30). 그것은 우리의 물질적인 번영을 위한 도구인 동시에 일상에서(또는 매 순간) 희생적이고 육체적인 사랑을 나타낼 기회가 되며, 영적 진보를 위한 도구인 것이다.

이제 서구에서는 젊은이들은 남편과 아내, 어머니와 아버지가 수십 년 동안 해왔던 수많은 희생의 그림자에서 벗어나려고 하고 있다. 우리는 헌신적인 결혼생활이 건강한 사회의 핵심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결혼이 여러 면에서 배우자와 자녀뿐만 아니라 가정 밖의 세상을 향해 실질적(그리고 영적)으로 자비를 베푸는 행위라는 사실을 잊었다.

서구사회의 성공은 가족의 사회구조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이를 해체하면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리적으로 취약한 사회가 될 것이다.

교회와 세상을 향해 결혼이 무엇인지 설교할 수 있는 시간은 이미 지났다. 그러나 우리는 크리스천으로서 결혼에 대한 영원하며 탁월한 동기를 갖고 있다. 이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멋진 과업은 아닐 수도 있다. 그러나 어쩌면 실현 가능할지도 모른다.

교육목사 청빙 / Seeking Education Director

미국에서 가장 인구 유입이 많은 도시 중 한 곳인 라스베가스에 위치한 갈보리장로교회에서 교육목사를 청빙합니다.

We (Korean-American Calvary Presbyterian Church in Las Vegas) are currently seeking a part-time or full-time pastor for our education department.

1. 자격요건

- a. 현재 공인된 신학교 M.div 재학 중이거나 졸업하신 분
- b. 영어, 한국어가 가능하신 분 우대

2. 섬기는 지역

- a. 교육부서 전담
- b. Part-time or Full-time ministry 협의 후 결정

3. 지원서류

- a. 이력서
- b. 개인 또는 가족의 최근 사진
- c. 자기 소개서
- d. 신앙 간증
- e. 추천서 2부

4. 서류제출

- a. 서류 접수는 이메일(drjho@hotmail.com)이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 b. 보내주시는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Qualifications:

- a. Currently attending or graduated M. Div from an accredited seminary
- c. Bi-lingual in Korean and English preferred, not required

Position:

- a. Education pastor
- b. Part-time or full-time ministry

Requirements:

- a. Current resume
- b. Recent photos of you and your family
- c. A letter of self-introduction
- d. Personal testimony of faith
- e. Two letters of recommendation

Please submit all applications to "drjho@hotmail.com" or by regular mail.

라스베가스 갈보리장로교회
Korean-American Calvary Presbyterian Church in Las Vegas

담임목사: 조중철, 소속교단: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교회주소: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동부교계 기사판

뉴저지목사회 회원목사위로회 행사

뉴저지한인목사회(회장 이의철 목사)가 주최하는 '회복을 위한 회원목사 위로회 행사'가 6월 7일(월) 오전 10시 Veteran's Park(88 Overlook Ave. Ridgefield Park)에서 열린다. 뉴저지목사회는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회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운동도 하고 바베큐도 하며 서로 위로하고 교제하며 새 힘을 얻고 회복하는 시간을 가지려 한다고 개최이유를 밝혔다.

▲문의: 총무 김주동 목사(201)919-2865

'2021 목회자 컨퍼런스'

뉴욕교협(회장 문석호 목사)이 후원하고 뉴욕청소년센터(대표 황영송 목사)와 뉴욕가정상담소가 공동주최하는 '2021 목회자 컨퍼런스'가 5월 24일(월) 오전 10시 온라인(https://tinyurl.com/35sbhm2x)으로 개최된다. 가정폭력 근절 및 건강한 가정의 귀중한 한인교회들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프레젠테이션과 Q&A 세션으로 진행된다. 강사는 뉴욕가정상담소 유미정 LMHC 디렉터, 임신영 MFT, 조원태 목사(뉴욕우리교회). ▲문의: (718)279-1313

산을 향해 눈을 들어 하나님 의지하자

뉴욕교협 봄맞이 목회자 친목 아우회

뉴욕한인교회협의회가 코로나펜데믹 가운데서도 봄맞이 목회자 친목 아우회를 가졌다.

5월 3일 롱아일랜드 선컨메도우파크에서 열린 아우회는 뉴욕시 방역지침인 실외 마스크 미착용이 힘을 더해줬다.

1부 예배 설교를 맡은 회장 문석호 목사는 "내가 산을 향하여"(시121:1-8)라는 제목으로 "실족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시편 73편 아삽의 시에는 불평을 말하고 세상의 모든 일이 꿈같다, 즉 모순덩어리라고 말한다. 그러나 잠을 깬 후에는 주께서 모든 것을 되돌리신다며 죽은 후 꽃피우는 인생도 있다"고 말했다.

문 목사는 "정글의 법칙에서 강한 자가 살아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살아남는 건 힘 없고 약한 짐승들이다. 하나님은 약자를 보호하신다. 산을 향해 눈을 들어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자"고 말했다.

예배는 총무 한기술 목사 인도로 기도 이춘범 장로(이사장), 설교 문석호 목사, 광고 박시훈 목사(서기), 축도 안창의 목사(증경회장) 순서로 진행됐다.

설교 후에는 한기술 목사 인도로 평등법 반대운동을 위해 합심기도 하는 시간을 가졌다. 2부 교제와 친교의 시간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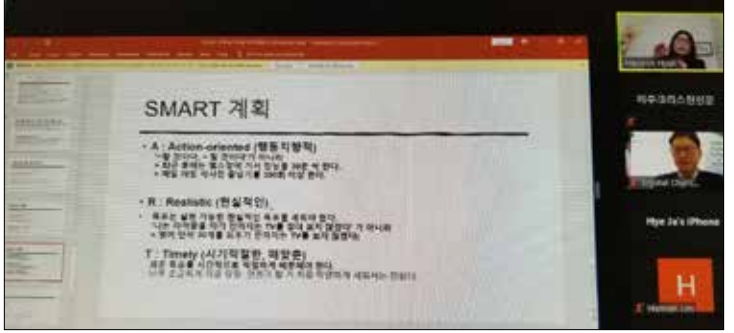
황영진 목사(엘살바도르 선교사)의 식사기도 후 오찬을 하고 이진아 목사의 레크리에이션, 송병기 목사의 보물찾기 시상 및 나눔과 대화, 운동경기 배구, 족구 등이 진행됐으며 송병기 목사의 마침기도로 모든 행사를 마쳤다.

교협은 이날 푸짐한 바비큐(

뉴욕효신장로교회 후원)와 선물을 준비해 참석자들에게 골고루 나눴다.

한편 5월 16일로 예정됐던 교협 주최 어린이 청소년 설교대회는 펜데믹으로 교회학교가 모이지 못해 연기됐다. 6월 25일 마감하고 7월 중 개최 예정이며 성경이야기 구연으로도 참가가 가능하다.

(유원정 기자)



뉴욕청소년센터가 주최한 슬기로운 부모생활 세미나가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온라인시대, 슬기로운 부모생활"

뉴욕청소년센터 세미나, 강사 현미숙 박사

뉴욕교협 산하 청소년센터(AYC, 대표 황영송 목사)가 주최한 "온라인시대, 슬기로운 부모생활" 세미나가 현미숙 박사(에스더하재단 사무총장, 뉴욕신학대학원 상담학교수)를 강사로 2일 오후 4시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청소년센터는 Covid-19 팬데믹 상황이 1년 넘게 이어지는 가운데 가족들이 유래 없이

"청소년 80%가 부모 때문에 힘들다고 말한다. 부모가 힘들게 사는 것도 알고 있다. 부모에 대한 미운감정만 있으면 해결이 쉬운데, 고마운 감정과 미운 감정이 복합적으로 있을 때 해결이 어렵다. 부모 자체가 우울하고 불안하다. 일관성이 없다. 본인 기분에 따라 양육태도가 달라 자녀들에게 혼란을 준다."

많은 시간 동안 함께 한 공간에서 지내게 되다보니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는 경우, 부부관계 혹은 부모-자녀관계에 심각한 문제를 겪게 되지만 해결책을 찾기가 쉽지 않아, 보다 건강하고 효율적인 소통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세미나를 열게 됐다

황영송 목사의 기도 후 시작된 강의는 △중시대에 강의하는 교수로서의 경험과 상담사례 소개 △'뭘이 중한디?' 중시대에 자녀와의 의사소통, 해야 할 것과 해서는 안 될 것 △프론트라인에서의 불안관리 △스마트폰 사용 지도원리 등을 주제로 진행됐다.

강의는 정신질환부터 시작했으며, 많은 경우 우울증을 사춘기로 치부해버리면 안된다고 강조하고 불안장애,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ADHD(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등에 대해 설명했다.

"회복은 부모와의 소통이다. 3일만 시도해보라(충고, 칭찬, 위협, 평가, 판단, 비교, 반복(다른 말로 바꾸라), 지적하지 말라). 부모의 태도는: 심리적 어려움이나 정신질환 여부에 관심, 공감능력 갖기, 의사소통 시 긍정적 부정적 감정 드러내기(전달), 1대1로 분위기 좋은 장소에서 시간을 들여 1-메시지 사용해서 앞의 대화를 사용해서 해보라. 안되면 전문가의 도움 받으라."

△단기해결중심상담 질문기법(원인구명보다는 문제해결 능력향상): 기적질문(꿈), 척도질문(만족도), 대처질문, 예외질문 △SMART 계획: Specific(구체적이며 명확하게) Measurable(질 수 있는, 주목할만한) Action-oriented(행동지향적인 계획) Realistic(현실적인 계획) Timely(적절한 시간적 배분에 대해 강의했다. 세미나는 최호섭 목사 폐회기도로 마쳤다.

(유원정 기자)



뉴욕교협이 주최한 봄맞이 목회자 친목 아우회 참석자들이 예배 후 기념촬영 했다.

황영진 선교사 참석 선교보고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 4월 월례모임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 4월 월례모임이 지난 28일 오전 10시30분 퀸즈침례교회(담임 박진하 목사)에서 열렸다. 이날 엘살바도르 황영진 선교사부부가 참석해 선교보고 시간을 가졌다.

1부 예배는 사무총장 박진하 목사 인도로 기도 황영진 선교사, 말씀 권캐더린 목사, 합심기도, 축도 최장섭 목사 순서로 진행됐다.

권캐더린 목사는 "생애 최고의 날"(딤후4:1-2)이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무엇을 위해 사는가"라는 에세이를 쓴 박진영은 세상적으로 성공했지만 그 답은 성경에서 찾았다"며 "나 스스로도 마음속에 생각한 대로 살고 있는가 묻는다"고 말하고 "사도바울처럼 생명을 조급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일을 발견한다면 생애 최고의 날이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권 목사는 "죽음 앞에서 말씀 선포를 주저하지 않았던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가장 중요한 사명인 말씀전파를 하며, 기아대책이 투명성과 순수성을 갖고 어린이를 섬기는 기구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권 목사는 설교에 이어 합심기도(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 회장 및 회원을 위하여, 결혼아동과 후원자들을 위하여, 선교사들을 위하여: 폴롬비아 김혜정 선교사, 페루 김중원 최은실 선교사, 과테말라 장경순 박운정 선교사, 코트디부아르 김형구 이선미 선교사, 엘살바도르 황영진 황은숙 선교사)를 인도했다.

2부 회무는 회장 유상열 목사 사회로 조상숙 목사의 개회기도 후 시작됐다.

유상열 목사는 후원아동 명단을 정확하게 확인할 것을 언급하고 뉴욕방문 길에 참석했던 본기구 회장을 역임했던 황영진 선교사를 소개했다.

황 선교사는 현지 상황을 알리며 "2천명 주민이 사는 마을에 코로나 사망자가 1명밖에 없었는데 선교사를 떠난 지난 한 주세 100명으로 늘고 7명이 사망했다는 소식을 받았다"며 돌아가면 방역사역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작년 3월부터 1년간 코로나로 2개 교회 후원이 중단돼 사역을 못할 위기였으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은혜

로 다른 곳에서 후원금이 담지해 식량 패키지 600개를 주민에서 전달하고 마스크(자체 제작 4천장, 후원 2천장), 손소독제 등 방역제품을 전달하는 등 코로나 기간 중 더 많은 일을 하게 하셨다고 보고했다.

황 선교사는 "교회건축을 진행 중에 있었으나 현지인 담임 목사가 사망하는 등 사고로 지연되다가 최근 건축을 마쳤다"며 "기아대책이 보내준 후원금(1500달러)으로 목사님 방, 화장실, 성전의자 등 부족한 부분을 채웠다"며 감사했다.

이날 박진하 목사의 사역보고와 1/4분기 회계보고가 있었으며, 신입회원 한필상 목사를 소개했다. 이어 임병남 목사의 폐회기도, 한준희 목사의 식사기도로 마쳤다.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의 주 사역인 아동후원은 1명당 월 30달러.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breadngospel.org)를 참고하면 된다.

(유원정 기자)



베이스айд장로교회 이종식 목사가 뉴욕나눔의집에 1만5천불 후원했다.



최정혜 장로가 두 아들과 함께 뉴욕나눔의집에 1만불을 전달했다.

뉴욕나눔의집 쉼터 건립 후원금 답지

베이스айд장로교회, 1만5천불 후원

뉴욕 베이스айд장로교회(담임 이종식 목사)는 설립 30주년을 맞아 한인노숙인 쉼터 후원금을 전달했다.

지난 4월 28일 뉴욕나눔의집을 방문한 이종식 목사는 후원금 1만5천 달러를 박성원 목사(뉴욕나눔의집 대표)에게 전달했다. 이로써 현재 쉼터구입 기금모금은 총 260,355달러가 됐다.

뉴욕나눔의 집은 현 거주지 리스가 오는 6월로 끝나고 연장이 안 돼 지난연말부터 쉼터구입을 추진해오고 있다.

박성원 목사는 "1차 모금 목표 40만 달러에서 약 14만 달러가 더 모금되면 쉼터를 계약할 수 있다"며 한인들의 따뜻한 후원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최정혜 장로 후원금 1만 달러 전달

한편 4월 30일 뉴욕그레이넵교회(담임 양민석 목사) 최정혜 장로가 뉴욕나눔의집에 후원금 1만 달러를 전달했다.

최 장로는 "이민 와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잘 정착하고,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대한 감사의 표현으로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었다"며 "금번 한인노숙자 쉼터구입을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두 아들 최민 권사와 최성 권사와 상의해 함께 미주한인노숙인 비영리기관인 뉴욕나눔의집(대표 박성원 목사)에 도네이션하게 됐다. 모금이 잘돼 나눔의 집이 속히 구입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달식에 함께 참여한 담임 양민석 목사(뉴욕나눔의집 부이사장)는 "축복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이 나누고 베풀며 살았느냐에 의해서 평가 받으리라 믿는다. 최정혜 장로님은 평소에도 교회 안에서 항상 먼저 헌신의 본을 보여 오신 분으로 복된 분이시다. 금번 기회도 아들과 함께한 본을 보여주셔서 참 감사드리며, 하늘의 상급이 크실 줄 믿는다"고 축복했다.

나눔의집 대표 박성원 목사는 "지금까지 각계각층의 후원으로 협력하신 모든 분들께 마음 깊이 감사를 드린다"며 "앞으로 한인사회의 적극적 후원으로 한인노숙자쉼터를 우리 모두 함께 세워가도록 힘을 보탬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5월 1일에는 "트바로티 김호중 펜카페 미동부 아리스"가 후원금 2000달러를 전달했다.

▲후원문의: (718)683-8884 (기사제공: 뉴욕나눔의집)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 4월 월례모임을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FAMILI STUDY

Food And Microbiome Longitudinal Investigation

NYU 의과대학 웨일리 연구 참여자 모집 안내

- 미국 국립보건원(NIH)과 NYU 의대 웨일리 연구팀 (총책임자: 안지영 교수)은 세계 최초로, 여러 민족의 식습관, 환경, 박테리아와 만성 질병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 특히 미국에 거주하시는 한국인의 질병발생 및 위험요인을 연구하여, 질병예방 및 보건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 의료보험이나 신분증에 관계없이, 40세 이상인 미국내 거주자는 한번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이메일을 보내 주시면, 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우송해 드립니다.
- 집에서 완료하신 후, NYU의대로 무료 우송해 주시면, 25불 기프트카드를 보내 드립니다.

NYU 의과대학 웨일리 연구 연락처

FAMILI Study (Hee Choi, MS, RD) NYU School of Medicine 180 Madison Avenue # 3-23 New York, NY 10016	전화: 646-501-3673 646-501-3674 문자: 929-410-4475 이메일: hee.choi@nyulangone.org 웹사이트: http://www.nyufamili.org/kor/index.php
--	---

SCAN ME

한분 한분의 참여는 우리의 2세에게 보다 건강한 사회를 남겨 줍니다.

여러 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월드미션대학교 주최 예배와 찬양의 어제, 오늘, 그리고 미래 주제 예배찬양세미나가 온라인으로 열렸다

“예배와 찬양의 어제, 오늘, 그리고 미래”

월드미션대학교 예배찬양세미나 열어

월드미션대학교(총장 임성진 박사)는 “예배와 찬양의 어제, 오늘, 그리고 미래” 주제로 예배찬양세미나를 지난 4월 19일 오후 7시 온라인으로 열었다. 이날 세미나는 가진수 교수(본교 예배학석사과정 디렉터)가 강사로 참여해 ‘글로벌 워십 트렌드(한국과 외국 사례를 중심으로)’와 ‘예배와 찬양 어제와 오늘, 그리고 미래’라는 제목으로 강의했다. 가진수 교수는 “성경적 예배와 찬양을 아는 것과 예배가 과연 어떻게 교회와 연결되어야 하는가가 중요하다”며 “예배가 다음세대까지 전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진수 교수는 “우리는 태어나면 서부터 예배자로 태어났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드리게 영광 드리는 존재로 만드셨다”라며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예배드리며 살아가는 것이다. 예배가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 교회에서는 예배를 가장 잘 드리는 자가 주목받아야 하며 하나님께 칭찬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예배는 중요한 패턴이 있다. 예배의 패턴은 부르심과 만남(경배와 찬양), 말씀(설교), 성찬(봉헌, 감사의 기도), 파송(예배의 마침이 아닌 삶의 예배로 나아가는 결단) 등이다. 이는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다. 그러나 현재는 파송은 축도로 남아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눈을 뜰 때 하나님과 만남이 있어야 한다. 오늘 하루 승리하게 해달라고 새날을 주신 것에 대한 고백이 있어야 한다”며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공동체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우리 안에 있는 일들이 연관되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유는 좋은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창조하셨고 축복된 삶 살기위해 이 땅에 보내셨다. 그래서 좋은 임재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 축복해주신다”고 말했다.

(박준호 기자)



사랑의빛선교교회 창립28주년 기념예배에서 윤대혁 담임목사와 성도들이 교회 생일을 축하하고 있다

“하나님 도우심에 감사”

사랑의빛선교교회 설립28주년 기념예배

사랑의빛선교교회(담임 윤대혁 목사) 설립 28주년 기념예배가 지난 25일 예배시간에 열렸다. 윤대혁 목사는 ‘너는 행복자로다(신33:29)’라는 설교에서 “지난 한해 우리에게 돌아온 큰 풍량이 있었다. 우리에게 때로는 넘어짐의 시간도 있지만 끝없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일어설 수 있다”고 말했다. 윤 목사는 “설립 28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행복한 교회, 행복한 성도라는 것에 감사한다”며 “은 세상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참 행복을 전하고 사는 우리들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예배는 남성중창단이 특송을 했으며 예배 중 케익을 절단하는 시간을 갖고 윤대혁 목사 축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지금이 상속계획 하기 좋은 시기

소망소사이어티 4월 웨비나 개최, 강사 최재홍 변호사

소망소사이어티(이사장 유분자 장로)는 한인커뮤니티를 대상으로 4월 웨비나를 개최했다. 강사는 최재홍 변호사(뉴욕 라이프)다. 최재홍 변호사는 현재가 상속계획을 하기에 좋은 여건이라면서 유례없이 낮은 소득세와 유리한 상속세 및 증여세 시스템, 낮은 이자율을 꼽았다. 상속세는 여러 번 수정 역사를 겪었는데, 2017년 세법개정 및 일자리 법(Tax Cut and Jobs Acts)로 면세한도액이 2배로 늘어났지만 상속세에 적용되는 법률의 일부가 2025년 말에 폐지될 예정이며, 새로운 행정부에서는 기존의 세금코드를 조만간 변경할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상속계획에 있어 주의할 점은 먼저 본인에게 있고 있는 자산을 정확히 파악하고 상속계획을 미루지 말라고 권했다. 또 상속계획(리빙트러스트)과 증여의 차이에 대해 설명하

고 미국에서 현금 자산이 15만 달러를 넘는 경우와 부동산이 있는 경우에는 사망 후 상속에 긴 기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상속 재판을 피하기 위해 리빙트러스트를 미리 작성해야 한다고 조언하며 리빙트러스트의 종류와 그 내용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소망소사이어티는 비전에 맞춰 한인커뮤니티에서 알고 싶어 하는 주제를 갖고, 매월 셋째 주 수요일에 웨비나를 진행하고 있다. 5월 웨비나는 5월 19일(수) 오후 3시에 열리며 주제는 ‘건강한 풍광, 행복한 삶’으로 신성준 교수(동국대 일산병원 신장내과 분과장)가 맡는다.

▲문의: (562)977-4580, somang@somangociety.org (기사제공: 소망소사이어티)

이대학 몽골 선교사 사역소개

기쁜우리교회 제1회 JCCC선교페스티벌 열어

기쁜우리교회(담임 김경진 목사)는 제1회 JCCC선교페스티벌을 지난 4월 15일부터 17일까지 열었다. 첫날 찬양팀의 찬양인도와 민홍식 장로 기도 후 김경진 목사 소개로 이대학 몽골 선교사 소개로 이대학 몽골 선교사는 “2020년은 코로나19로 인해 선교사역의 모든 것이 바뀌게 됐다. 많은 것들을 경험해 왔다. 코로나로 인해 23년간의 선교사역을 새로운 모습으로 바꿀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 선교사는 “가장 중요한 사역은 목회자 훈련 지도자 훈련 사역이었다”며 “예전에는 신학교에서 대면수업을 했지만 코로나시대 맞게 비대면 사역으로 전환해야 했다. 고비사막 같은 경우 인터넷이 잘 안 돼 동영상으로 녹화된 것으로 강의가 진행됐다. 강의를 듣고 토론하는 시간으로 진행됐고 과목당 3학점으로 운영됐다. 작년에 6과목 콘텐츠 제작했으며 올해는 4월부터 신학교 강의가 진행되고 있다. 전체 40%가 몽골교수가 강의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저희 지도를 받은 학생들이 현재 동역자가 되어 함께 사역하게 된 것이 보람되고 감

사하다. 제작된 영상자료를 가지고 학생들이 공부한다. 강의 듣고 토론하고 기도하는 방식으로 수업이 진행됐다. 코로나 19에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몽골의 신학교육은 중단 없이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매월 한차례 화상모임을 갖고 어떻게 공부하고 사역하고 있는지 나눔의 시간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내년까지 신학사 과목 40%가 영상으로 제작돼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더라도 각 지역의 담임목사가 훈련생들에게 수업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경진 목사가 △항상 성령으로 충만하여 몽골의 필요에 맞춰 사역을 감당하도록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몽골 신학교육 사역전환이 잘 이루어지도록 △2022년까지 신학사과정 40과목 강의 콘텐츠가 잘 제작되도록 △신학강의 제작에 필요한 재정 △인적자원의 부족함 없이 채워지도록 △진성녀 선교사의 선교사 상담, 가정 사역에 성령과 지혜를 주시도록 등의 기도제목으로 기도인도 했다.

(박준호 기자)



기쁜우리교회 주최 제1회 JCCC선교페스티벌에서 이대학 몽골 선교사가 선교보고하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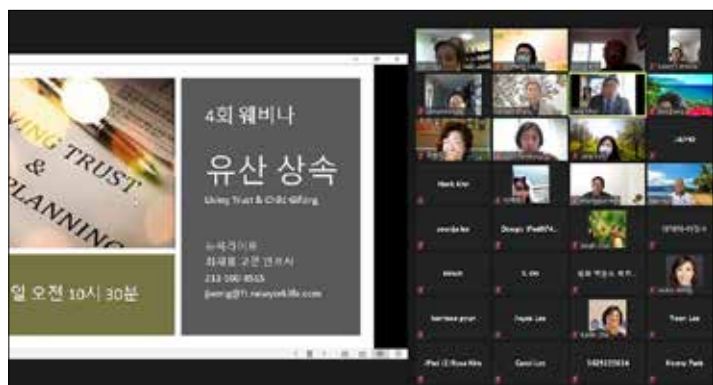
미주복음방송에서 실시한 2021 나눔On특별공개생방송 모습

“나눔-On(온) 캠페인 2021”

미주복음방송 특별 공개 생방송 진행

미주복음방송(사장 이영선 목사)은 지난해에 이어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커뮤니티 회복을 위해 ‘퍼스트 펠린’을 찾는 “나눔-On(온) 캠페인 2021” 특별 공개 생방송을 지난 4월 20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했다. 이번 특별 공개 생방송은 시간마다 각 프로그램 진행자와 커뮤니티의 고통에 동참하려는 많은 청취자들이 참여해 생생하게 소통하고 함께 하는 시간이었으며 공개방송을 통해 106,663달러의 성금이 모아졌다. 이 “나눔 On(온) 캠페인 2021”은 코로나 사태가 호전될 때까지 계속 진행될 예정이다. 미주복음방송은 이 성금으로 우선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퍼스트 펠린을 찾습니다”란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먹이를 찾기 위해 펠린 무리 중 제일 먼저 검푸른 바다로 뛰어드는 퍼스트펠린처럼 세상을 밝히는 작은 변화의 시작에는

사회문제의 해결을 위해 제일 먼저 움직이는 ‘공의단체’와 ‘시민’들이 있는 것처럼 세상의 불을 밝히며 변화를 이끌고 있는 남가주의 퍼스트 펠린들을 소개하고 함께 선한 사역에 동참하려는 운동이다. 모집기간은 오는 5월 19일(수)까지이며 대상은 지역사회와 이웃을 위한 나눔, 선한사역을 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단체다. 최대 5000달러의 나눔 활동비 지원, 물품 지원, 사역소개 및 후원을 위한 방송 및 SNS 홍보, 자원봉사자 연계 등을 후원한다. 심사는 5월 19-21일이며 최종발표 날짜는 5월 24일이다. 미주복음방송은 또 열방에 진리의 빛을 전하는 선교사 가정에 미션펀드(선교후원금)를 지원할 예정인데 모집기간은 오는 12월 31일(일)까지이며 선교지에 파송된 선교사 가정 이 대상이다. ▲문의: (714)484-1190 (정리: 박준호 기자)



소망소사이어티 주최 4월 웨비나가 유산상속에 대한 주제로 열렸다

서부교계 게시판

은혜한인교회 일천번제 특별새벽기도회

은혜한인교회(담임 한기홍 목사)는 ‘기도는 미래를 위한 저축이다’라는 주제로 일천번제 특별 새벽기도회를 2024년 1월 13일까지 실시한다. 일정은 월-금요일 오전 5시15분, 토요일 오전 5시45분 ▲문의: (714)446-6200

주님의영광교회 다니엘 21일 새벽기도회

주님의영광교회(담임 신승훈 목사)는 다니엘 21일 새벽기도회를 16일(주일)까지 개최한다. ‘기도의 차이가 능력이 차이이고, 기도의 차이가 축복의 차이입니다’라는 주제로 열리는 다니엘 21일 새벽기도회는 본 교회 호프센터 2층 하이웨이에서 실시간 온라인으로 오전 6시에 갖는다. ▲문의: (213)749-4500

KFAM 가족사랑 배송 서비스

한인가정상담소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 간의 소통을 독려하고 가족 사이를 더욱 가깝게 만드는 ‘하트 앤 하트’ 캠페인을 실시한다. ‘하트 앤 하트’ 캠페인은 평소 표현하지 못했던 가족사랑의 마음을 한인가정상담소를 통해 전하는 취지에서 기획된 캠페인이다. 또한 팬데믹 기간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로 비록 사회적 거리는 멀어졌지만 가족사랑은 더욱 깊어질 수 있도록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여방법은 한인 가정상담소 카카오톡 아이디 ‘KFAMLA’로 가족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작성해 보내고 우편, 카카오톡, SNS, 이메일 등의 전송방법을 선택해서 알려주면 된다. 또한 번역이 필요한 경우 영한 한영 번역도 제공된다. 캠페인 기간은 가정의 달인 5월 한달 간이며 행사에 대한 문의는 카카오톡 KFAMLA로 하면 된다. ▲문의: (213)235-4848



원하트미니스트리 주최 찬양으로 드려지는 원하트 심플워십에서 찬양팀이 찬양하고 있다

찬양으로 드려지는 원하트 심플워십

원하트 미니스트리 유튜브라이브로 개최

원하트 미니스트리(대표 피터박 목사) 주최 찬양으로 드려지는 원하트 심플워십이 5월 1일 오후 8시 유튜브라이브로 열렸다. 이날 예배는 원하트미니스트리 찬양팀의 뜨거운 찬양을 함께 불렀으며 성경말씀을 함께 읽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피터박 목사는 “6개월 이상 예배를 쉬다가 다시 시작하게 된 것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첫 예배가 온라인이어서 아쉬

웠지만 예배할 수 있음에 너무 감사하다”라며 “앞으로 있을 대면으로 드려지는 원하트 심플워십을 더 잘 준비해서 찬양과 예배에 감동이 있는 예배자들과 나누고 싶다”고 말했다.

원하트 심플워십 라이브 예배는 오는 18일(화) 저녁 7시 30분 오버플로인교회 본당(15246 Barnwall St, La Mirada, CA 90638)에서 갖는다. (박준호 기자)

푸른초장

(4면에서 계속)

성경에서 예수님은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자녀를 향해 부모가 가진 가장 큰 특권 중 하나는 자녀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위대하고 감격스런 일입니까? 자녀는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주신 최고의 복의 통로, 유통자입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주신 최고의 복의 통로이며 상속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실 때 그 대신 그 자녀에게 복을 주시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복은 아브라함이 받은 것도 있지만 상당한 복은 그 후손이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복을 주셨습니다. 성경에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구절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복의 흐름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쌓아놓은 복은 우리의 자녀들이 받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누릴 은혜입니다. 자녀에게 축복하는 것이 부모의 특권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복을 내려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충분히 축복하지 못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자녀를 축복하지 못합니다. 하나는 자신들의 일이 너무 바빠서 때문입니다. 직장과 바쁜 가정살림 때문에 자녀를 축복하지 못합니다. 또 하나는 부모의 욕심, 이기심 때문입니다. 부모 스스로가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이 잘 풀리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내 마음이 복잡합니다. 여기저기서 상처를 받고 답답한 가슴이 채 회복되지 않은 채 사정없이 자녀들에게 감정을 폭발시켜 버립니다. 우리는 이제 상처 주는 자리와 분노하던 곳에서 축복의 자리로 바뀌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최고의 선물의 아이들 사랑하고, 바르게 가르치고, 그리고 한없이 축복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nygo4tgc@yahoo.com

청년이 교회 떠나는 이유...

ARCC 연구소, 설문 조사 결과 공개

‘청년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에 대해 청년과 사역자 간 생각의 괴리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들은 목회자의 언행 불일치 등 목회자 문제가 크다고 봤지만 사역자들은 청년이 복음의 본질을 듣지 못하는 것을 문제로 꼽았다. 전문가들은 사역자, 목회자들의 자기성찰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세상과 교회를 섬기는 ARCC 연구소는 청년 1017명과 사역자 10명을 설문 조사한 결과를 담은 ‘청년, 그들은 왜 교회를 떠나는가’ 자료집을 28일 공개했다. 조사는 지난 1월 13일부터 2월 4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복수 응답도 가능했다. 연구소는 ‘교회를 옮길 의향이 있다’고 한 응답자 320명과 ‘신앙을 포기할 의향이 있다’고 답한 청년 80명의 대답에 초점을 뒀다.

교회를 옮길 생각이 있다고 답한 청년들은 목회자 관련 항목에 불만족 점수를 많이

줬다. 이들이 1점(매우 만족스럽다)~5점(매우 불만족스럽다) 중 매진 값의 평균을 보면, 목회자의 언행 불일치(3.63점), 목회자의 설교(3.59점), 목회자의 상처 되는 말(3.31점) 등 목회자 요인이 불만족도가 높았다. 교회의 헌신 강요(3.60점), 영적 필

요가 채워지지 않음(3.36점), 청년부 내의 끼리끼리 문화(3.23점) 항목도 높은 점수를 받았다.

한 응답자는 심층 조사에서 “목회자의 인성은 보통 말이나 행동에서 드러나는데, 어

짜 존중하고 있구나’ ‘편애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반면 사역자들은 목회자 요인을 주된 문제로 여기지 않고 있었다. 대신 ‘청년이 복음의 본질을 듣지 못해서’ ‘교

회 말씀이 청년의 현실과 동떨어져서’ ‘믿음에 설득되지 않아서’ 등의 이유로 청년들이 교회를 떠난다고 봤다. 이에 대해 이수인 아세아연합신학대 교수는 “청년과 사역자의 응답이 다르다는 건 사역자들의 자기 성찰이 부족하다는 점을 드러낸다”고 지적했다.

연구소는 다음세대를 전문적으로 섬기는 사역자를 키워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병철 ARCC 연구소장은 “바쁜 직장인에게 새벽기도, 헌금, 전도를 강요하는 등 여전히 현실 감각이 떨어지는 교회, 목회자가 적지 않다”며 “양적



청년들 “목회자 언행 불일치에 실망” 사역자 “복음의 본질을 듣지 못해서” 양측 인식에 큰 괴리...자기성찰 필요

성장을 중시했던 X세대까지만 해도 이런 것들이 통했을지 몰라도 개인의 성장을 우선시하는 MZ세대는 그렇지 않다. 청년의 삶과 고민을 제대로 아는 청년부 전문 사역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임대표회장 심평종 목사 선출

세기총 제9차 정기총회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주제로

사단법인 세계한국인기독교총연합회(이하 세기총) 제 9차 정기총회가 4월 27일 노보텔엠베서더 강남호텔에서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대하7:14)”라는 주제로 개최됐다. 이번 총회는 코로나19 가운데 10개국 42명이 참석했다.

1부 개회예배는 수석상임회장 심평종 목사 사회로 상임회장 김동욱 목사의 기도, 공동회장 김준배 선교사의 성경봉독, 세기총 홍보대사 김정 교수의 찬양 후 대표회장 조일래 목사가 “세기총의 사명”(막16:15-18)이라는 제하의 말씀을 전했다.

또 일본지회장 이상열 선교사가 ‘나라와 민족, 위정자를 위해’ 불가리아지회장 김호동 선교사가 ‘대한민국 국민과 750만 재외동포를 위해’ 콜롬비아지회장 김선훈 선교사가 ‘코로나19의 종식과 회복을 위해’ 필리핀지회장 임흥재 선교사가 ‘미얀마의 자유와 평화, 민주화를 위

해’ 멕시코지회장 정득수 선교사가 ‘3만 한국인 선교사와 선교지를 위해’ 각각 특별 기도를 했으며 3대 대표회장 김요섭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2부 회무처리는 준비위원장 심평종 목사의 환영사, 감사 김준규 장로의 내빈소개, 대표회장 조일래 목사의 의장인사와 함께 공동회장 김태성 목사의 개회기도로 시작했다.

이어 황의춘 목사, 소강석 목사, 김희선 장로, 최순덕 목사, 최호 대표(동강모터스), 박혜숙 권사에게 감사패를 수여했으며 홍보대사로 위촉된 김정 교수에게 위촉패를 수여했다.

대표회장은 수석상임회장 심평종 목사가 추대돼 만장일치로 선출됐으며, 신임 수석상임회장은 대표회장단 및 운영위원장회의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가결했다. 이어 임원인선 및 9회기 사업계획 및 예산 심의의 건을 처리하고 세기총 10주년

기념대회 준비위원회의 구성은 대표회장단과 임원회에 일임하기로 하고 이어 정관을 개정 가결한 뒤 신임 대표회장 심평종 목사의 기도로 마쳤다.

대표회장 이·취임식 및 후원이사장 취임식은 오후 1시 30분 같은 장소에서 1부, 2부로 진행됐다.

이날 대표회장 취임인사에서 심평종 목사는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당하는 이때에 취임하게 됐으니 귀한 직분을 믿음으로 감당하길 바란다. 장로교에서 출발해 성경교를 거쳐 PCUSA에 정착했다. 세기총 사역을 잘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사역을 잘 감당하기 위해 A부터 G까지 계획을 세웠다. 목표를 잘 세우고(Achievement), 믿음으로(Believe), 협력해서



세기총 제 9차 정기총회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했다.

(Cooperation), 성결한 삶으로(Divine), 성령과 함께(Experience of Holy Spirit), 초점을 맞춰(Focus), 주님께만 영광 돌리길(Glorify) 바란다”고 말했다.

후원이사장에 취임한 김희선 장로는 취임사에서 “부족하지만 전 세계 750만 한국인 디아스포라와 3만여 명의 한국인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하고, 장로로서 섬기고 나누고 봉사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기사제공: 세기총)

피케이러브, 프로젝트로 확대

목회자 자녀들, 개척교회 가정위해 정기후원 사역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개척교회에 따뜻한 손길을 건네는 목회자 자녀들이 있다. 목회자 자녀로 구성된 사역단체 ‘피케이러브(PKLOVE)’는 26일 경기도 포천과 남양주, 기흥에 있는 개척교회 세 곳을 찾아 후원금 30만원씩을 건넸다. 이번 달부터 시작한 개척교회 정기 후원 사역 ‘조금드림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대표인 유한영 목사를 비롯한 15명의 예배팀과 10명의 리더 등 피케이러브의 사역자는 모두 목회자 자녀들이다. 유 목사는 2001년 참석했던 한국지역복음화협의회의 목회자자녀 세미나를 계기로 온라인 커뮤니티를 운영하다가 2010년부터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했다. 조금드림 프로젝트 외에도 목회자 가정의 가족사진을 찍어주는 ‘꿈소리 프로젝트’, 월 1회 목회자 자녀 대상 정기예배 등을 진행한다.

유 목사는 피케이러브의 사명을 ‘목회자 가정과 함께 울어주는 공동체’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공동체’ ‘예배하는 공동체’ 세 가지로 소개했다. 그는 “목회자 자녀들은 공동체에 소속되거나 훈련을 받은 경험이 많지 않고, 부모님과 관계에 따라 신앙의 기복도 크다”며 “이들과 공동체를 이뤄 함께 예배하고 가족이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돕는 등 가정과 신앙의 회복을 위해 사역한다”고 말했다.

조금드림 프로젝트는 지난해

9월 일회성으로 처음 시작했다. 한 사모가 어려운 교회를 위해 써달라며 건넨 한 달 사례비에 후원금이 더해지면서 교회 15곳에 25만원씩을 지원할 수 있었다. 1차 지원이 끝난 후에도 후원금이 계속 생기면서 피케이러브는 2차로 27곳에 25만원씩, 3차로 16곳에 30만원씩을 추가로 지원했다. 특히 사역자들이 직접 교회로 찾아가 후원금을 전달할 3차 지원이 조금드림을 정기사역으로 정하는 계기가 됐다.

유 목사는 “전주의 한 목사님은 지원금을 드리자 눈물을 흘리며 ‘연약한 어린아이의 오병이어서 기적을 일으킨 것처럼 이 연약한 자녀들이 가져온 헌금이 오병이어서 기적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다”며 “저에게 그 기도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다. 하나님께서 이 사역의 비전을 주셨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목사님과 사모님을 만나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목회자 자녀인 사역자들도 큰 위로를 받는다”고 덧붙였다.

피케이러브는 매일 성도 수 30명 미만의 개척교회 두 곳을 선정해 30만원씩을 전달할 계획이다. 후원금 상황에 따라 지원 교회 수를 늘릴 계획이다. 유 목사는 “도움이 필요한 교회가 있다면 편하게 신청하고 주변에도 알려달라”며 “저희의 작은 손길이 목회자 가정에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그래, 나 신천지다” ‘오픈 포교’로 전환

신천지, 이만희 “포교집중” 특별지시에 공격적 전략수행

윤재덕 종말론사무소장이 지난 3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누군가 신천지 신도라고 밝히면서 교리교육을 들어보라고 접근할 경우 대처법을 안내하고 있다.

최근 동영상사이트 유튜브의 한 채널에 올라온 영상 속 청년이 말한다. “그래, 나 신천지다. 어쩔건데.”

신천지에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이 최근 공개적으로 포교에 나서는 이른바 ‘오픈포교’ 전략을 취하고 있음을 상징하는 대목이다.

신천지는 그동안 자신들의 정체를 일단 숨기고 접근해 교리교육을 받게 한 뒤 어느 정도 교리를 받아들였다 싶으면 그제야 정체를 밝히는 ‘모락포교’ 전략을 주로 취해왔다. 하지만 지난해 코로나19 사태 속 이만희 교주가 재판을 받는 등 신천지에 대한 사람들의 경계심이 높아져 자포교에 제동이 걸렸다.

이 교주는 지난 2월 특별지시 사항을 띄우고 “각 부서 전도부는 이메일과 영상으로 전도하고 각 선교센터는 간사, 전도사를 통해 선교센터별로 전도해 매월 총회 본부 전도부장에게 보고하라”며 포교에 다시 집중할 것을 내부에 지시했다.

최근 신천지 홈페이지에 ‘2021년 신천지에수교회 홍보 책자’도 올려졌다. 책자에는 신천지 역사와 교리를 안내하고 논란이 된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사항을 적극적으로 해명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유튜브처럼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인터넷사이트엔 앞선 청년처럼 공개적으로 신천지 신도임을 밝히며 그동안 신천지가 받아온 시선에 대해 ‘억울하다’ ‘오해’라며 적극적으로 해명하는 영상도 부쩍 증가하고 있다.

윤재덕 종말론사무소장은 “코로나19 이후 신천지의 모락포교가 사회의 못매를 맞았기 때문에 적어도 표면상으로는 오픈전도 방식으로 포섭하려는 것”이라면

서 “다만 아직도 타인을 속이는 방식이 신천지 내에서 근절되지는 않았다”고 전했다.

길거리 포교와 정통교회를 향한 공격을 재개하려는 움직임도 포착됐다. 한 신천지 탈퇴자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최근 신천지 신도로 보이는 이에게 길거리 포교를 당한 경험을 고백했다. 그에 따르면 이 신도는 휴대전화용 ‘앱’ 개발을 위한 설문조사를 하고 있다며 접근했다. 그는 “처음엔 의심스러웠는데 듣고 보니 예전에 내가 해왔던 방식과 닮아 100% 확신하게 됐다”면서 “신천지가 노방전도에도 나서고 있으니 조심하라”고 했다.

이 교주는 27일 내부 소식망인 ‘인터넷시온선교센터’에서 신도들에게 “각 지파와 기획부는 기독교 전화번호 책을 구하라”면서 “전화번호와 이메일을 구한 후 각각 열 번이고 백 번이고 신천지에 진리가 있음을 알리라”고 재근거했다.

오픈포교 전략은 이 교주의 재판과 코로나19 사태로 어수선해진 내부를 단속하고 침체한 포교의 동력을 회복하려는 몸부림으로 보이지만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다.

윤 소장은 “신천지는 조직 자체가 성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구조”라면서 “코로나19 이후 탈퇴자는 계속해서 나오는데 전도가 안 되니 신천지 지도부로서 그동안 가장 취하기 어려웠던 오픈포교 전략까지 쓰며 포섭 압박을 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길거리 포교까지 나선 것도 “교육 지책의 하나”라고 진단했다.

윤 소장은 “신천지 신도라고 밝히면 그들은 편견을 버리고 신천지 세미나나 교육을 같이 들어보자는 식으로 요구한다”면서 “하지만 이를 무작정 따르기보다는 먼저 신천지 신도 당사자가 신천지에서 무엇을 경험했는지, 어떤 내용을 믿고 있는지 충분히 들어보고 그 출처와 진위를 확인해 보라”고 조언했다.

비전교회 지원 ‘나세남프로젝트’

기감 서울남연회, 매달 최대 100만원씩 시작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감독교회장 이철 목사) 서울남연회(감독 김정석 목사)가 연회 산하 비전교회(미자립교회) 자립 지원을 위해 ‘나세남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나세남은 ‘나누고 세워가는 서울남연회’에서 한 자씩 따 만든 조어다.

이 프로젝트는 지난해 김정석 감독이 부임한 뒤 시작된 2년 동안 한시적으로 이어졌다. 연회는 비전교회에 재정·교육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궁극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초체력을 키워주는 걸 프로젝트의 목표로 세웠다. 420여개에 달하는 연회 산하 교회 중 180여개가 비전교회로 분류된다. 연회는 비전교회의 형편에 따라 20만~100만원까지 매달 차등 지원을 시작했다. 동시에 비전교회 목회자들에게 교육과 전도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할 기회도 제공한다. 연회는 준회원에게도 전도와 기도, 영성, 설교, 미디어 활용 등을 주제로 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준회원은 장로교의 전임 전도사에 해당한다. 연회는 3개의 비전교회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공유 예배당 지원을 위한 연구도 시작했다. 예배당 지원 사업은 임대료를 감당하기 어려운 비전교회를 위한 공간 지원 프로그램이다.

김 감독은 지난해 취임 직후 비전교회와의 상생을 강조하며 구체적인 프로젝트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김 감독은 28일 국민일보와 통화에서 “비전교회와 이미 자립한 교회들이 서로 돕고 함께 성장할 길을 찾아야 연회의 미래를 기약할 수 있다”며 “나세남 프로젝트를 통해 연회의 내일을 위한 건강한 기틀을 다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국 교회 순회 ‘세이레평화기도회’

평화한국 내달 4-25일 ‘나를 따르라’ 주제로 진행

사단법인 평화한국(이사장 임석순 목사)이 주최하는 제15회 세이레평화기도회(포스터)가 다음 달 4일부터 25일까지 21일간 전국 교회와 단체를 순회하며 진행된다. 주제는 ‘나를 따르라’(요 21:22)이다. 현장 예배가 어려운 이들은 유튜브 채널 ‘세이레평화기도회’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기도회는 한국교회와 교계 단체들이 연합해 나라와 민족, 복음 통일을 위해 한마음으로 기도하는 취지로 2007년 시작했다. 성경 인물 다니엘이 민족을 위해 21일간 기도했던 것을 교훈 삼아

‘21일 기도회’로 기획했다. 올해 기도회는 개회 예배를 드리는 한국중앙교회를 비롯해 여의도순복음교회 남서울교회 남대문교회 등에서 열린다. 미국 러시아 프랑스 등에 있는 한인 교회들도 온라인으로 동참할 예정이다.

기도회 기간 중 세 차례의 문화 행사가 예정돼 있다. 다음 달 12일 나섬교회에서 다문화 가정 및 장애 청소년을 위한 공연과 찬양 예배, 19일과 24일엔 평화한국이 주최하는 토크콘서트와 평화콘퍼런스가 열린다.

“선교지에서 필요로 할 때 자리 지켜야”

KPM 소속 선교사들 혼돈의 미얀마속으로

미얀마 현지 상황 악화로 주재원들의 철수가 이뤄지고 있는 이때 오히려 미얀마 입국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다. 대만에 수교장로회(예정) 고신총회계선교회(KPM) 소속 선교사들이다. 최근 2명의 선교사가 미얀마로 향한 데 이어 다른 3명의 선교사도 출국을 기다리고 있다.

KPM 소속 A선교사는 최근 미얀마로 가기 위한 특별 비자를 발급 받았다. 미얀마에서 7년간 사역했던 그는 지난해 5월 비자 갱신차 한국에 잠시 들어왔다가 코로나19로 발이 묶인 채 한국에서 안식년을 보내고 있었다.

A선교사는 28일 국민일보와 통화에서 “그동안 계속해서 미얀마로 돌아갈 방법을 간구했다. 비자가 안 나와서 계속 기다리고 있었는데 최근 비자 발급이 이뤄졌다”며 “하나님 인도하심 같아서 기쁘게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미얀마 군부는 시위 진압 과정에서 수류탄과 포탄까지 사용하고 있다. 이에 외국 선교단체에서는 100% 철수 명령을 내렸고, 대부분 서양 국가들은 필수 요원 외 철수 권고를 내렸다. 상황이 이렇지만 A선교사는

“선교사를 위해서 선교지가 존재하는 게 아니다”며 “선교지에서 가장 필요로 할 때 선교사가 그 자리에 있는 게 합당하지 않을까 생각했다”고 말했다.

A선교사는 특히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미얀마에 외국인인 있으면 있을수록 도움이 된다고 했다. 그는 “그곳에 외지인이 있는 것 자체만으로 미얀마 군부의 악행을 조금이나마 억제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며 “또한 그곳에 있는 외지인들로 하여금 국제 사회의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고 말했다.

A선교사에 따르면 현재 미얀마는 개방 정책을 추진하며 10여년간 이뤄왔던 게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상황이라고 한다. 경제가 마비됐고 당장 피난민만 20만명 넘게 생겼다. 그는 “미얀마에 들어가면 먼저 구제사역 위주로 진행될 것 같다”며 “그들이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지혜롭게 도움 계획”이라고 말했다.

KPM은 최근 긴급 대책 회의를 열고 미얀마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KPM은 사역자들을 위한 모금운동을 펼치는 한편 4주간 매주 화요일 기도회를 열고 사역자들과 미얀마를 위해 중보하기로 했다.

왜 교도소 문서선교여야 하나요? (1)



이영희 목사
교도소 교육, TPPM대표

교도소 선교를 하는 이영희 목사가 최근에 보내온 교도소 선교 당위성에 대한 글을 수회에 걸쳐 연재한다.

나는 가난이 무엇인지를 안다. 가난한 사람들의 심정을 이해하고 그들의 고통을 헤아릴 수가 있게 된 것이다. 나에게

들과 나누고 싶다.

미국에서의 시작

나는 한국에서 미군이었던 키스(Keith)와 결혼을 한 후 1979년 그와 함께 미국에 들어왔다. 그리고 우리는 오레곤 주 포트랜드 시에 있는 신학대학에 입학하여 함께 학교를 졸업했다. 졸업 후 남편은 목회자가 되기를 원했지만 나는 그가 진로를 바꾸기를 원했다. 그가 목회자로 헌신한다면 우리 가족은 가난하게 살아야 할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이었다.

하지만 남편은 뜻을 굽히지 않았다. 하나님은 오히려 내 마음을 바뀌게 하셨다. 삶에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내게 말씀해주

비에 있는 아릴릴 신학대학원을 졸업했다. 그리고 몬테나 주에 작은 마을에 있는 플레린스 교회와 파라다이스연합감리교회에 임명이 되었다. 우리 아이들이 둘 다 어릴 때였다.

그가 목사가 된 후 우리 가정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나는 가난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 싫어서 목사되는 것을 반대했던 터라 남편에게 화가 나 있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내가 컴퓨터에 관련된 일 자리를 찾아서 빚 없이 살 수가 있게 되었다.

부르심

“모든 사람들이 다 나 같다면, 세상에 목사는 단 한사람도

이 없었기 때문에 그 말씀이 하나도 반감지 않았다. 그러나 묵상집, “예수님과 걷는 길”을 쓰면서 나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예수님이 상처 받은 사람들과 구원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를 내게 말씀해 주신 것이다. 나는 많은 눈물을 흘리며 수없이 갈등한 끝에 사역의 길을 가기로 결단하였다.

포기하지 않음

나는 남편이 목사였기 때문에 내가 사역을 하겠다고 하면 남편이 기꺼이 지원해 주리라는 기대를 했다. 실제로 남편이 신학대학원을 다니는 동안, 나는 일을 해서 생계를 꾸려나가

원에 가서 목회학석사과정을 밟겠다고 하자 그는 내게 미쳤다고 했다.

그리고 학교 근처로 이사할 생각이 없으니 통학을 하라고 했다. 그때 당시, 우리는 몬테나 주에 글래스고에 살고 있었는데 콜로라도 주 덴버에 있는 아일릴신학교까지의 거리는 편도로 약 1330킬로미터(750마일)였다. 남편은 사역의 길을 가겠다고 하는 나의 의지를 꺾으려고 했던 것이다.

그러나 나는 부르심에 순종하겠다고 이미 하나님께 말씀을 드린 상태였다. 그의 태도는 실망스러웠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키스는 그 해에 와이오밍주 버펄로에 있는 두 교회로 전근을 가게 되었다. 그 해 가을 나는 그곳에서 덴버에 위치한 아일릴신학교를 다니기 시작했다. 그때부터 나는 편도로 약 700킬로미터(430마일)가 되는 거리를 3년간 운전하며 학교를 다녔다. 와이오밍에 겨울 폭풍이 불던 어느 날, 살얼음판에서 자동차 사고가 나서 나는 거의 죽을 뻔한 적도 있었다. 그러나 다친 곳 하나 없이 무사했다. 하지만 내 차는 폐차 처분을 해야 했다.

yonghui.mcdonald@gmail.com

가난

나는 한국에서 태어났다. 어릴 적 우리 집은 가난했기 때문에 나의 부모님은 많은 어려움을 겪으셨다. 쌀이 부족한 날이 많아서 나는 집에 있는 밀가루로 국수를 만들어서 가족들을 먹여야 했다. 돈이 없어서 먹을 것조차 살 수 없는 상황, 매달 내야 할 공과금이 없어서 마음을 조려야 하는 상황은 너무나 고통스러웠다. 하지만 그러한 성장과정이 나에게 준 선물이었다.

절대로 가난을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돈을 움켜쥐고 있으려 했던 시절이 있었다. 하지만 삶을 통해 나의 경험에 근거한 신념 그 이상의 것이 있다는 사실을 배우게 되었다. 더 크고 의미 있는 일을 위해 자기중심적인 계획을 버려야 할 때가 있다는 것이 바로 그것이었다. 나는 이 글을 통해 그 이야기를 독자

신 것이다. 그 후 돈을 충분히 벌어야 한다는 내 생각을 접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겠다고 마음 먹었다. 남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려는 것이 분명했다. 나는 그런 그를 더 이상 그 길로 가는 것을 막으려고 하지 않았다.

1987년, 남편은 콜로라도 덴

버에 있는 아릴릴 신학대학원을 졸업했다. 그리고 몬테나 주에 작은 마을에 있는 플레린스 교회와 파라다이스연합감리교회에 임명이 되었다. 우리 아이들이 둘 다 어릴 때였다.

부르심

“모든 사람들이 다 나 같다면, 세상에 목사는 단 한사람도 없을 거예요”라는 말을 나는 목사인 남편의 친구들에게 하곤 했다. 그만큼 나는 목사가 된다는 것에 대해 긍정적이지 못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 마음에 말씀하시기 시작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한 사역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이었다.

나는 사역을 하고 싶은 마음

며 그의 학업에 필요한 뒷바라지를 했다. 그때까지 남편도 내가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밀어주려고 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역을 하겠다는 나의 결정에 대해 남편이 반대를 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내가 사역자가 되기로 결심했다며, 아릴릴 신학대학

One Story

21세기 말씀의 삶

홍요셉 선교사 | (P국, 중동선교전략가)

원 스토리 7강 / 아브라함(1)(창 12,13장)

아브라함(1)

이제 아브라함으로 들어갑니다. 성경에서 400번 이상 이름이 언급되는 아브라함은 성도의 믿음의 출발이자 대표격으로 성경에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들 그리고 아브라함과 함께 행하신 일들은 곧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에게 행하시고 계신 일들이니(갈3:7,9).

이제 본격적인 구원 역사에 들어가며 'One Story'에서 제시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동행의 다섯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부르심 이전'의 단계로서(창15:13,14, 25:23/렘1:4,5/롬8:29/엡1:4,5) 우리가 아직 하나님을 인식하기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말합니다.

둘째, '부르심'의 단계로서(창12:1-3/출2:1-15:21/롬8:30) 하나님이 여러 모양으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불러주시기를 말합니다. 셋째, '자녀의 신분, 죄인의 삶'의 단계로서(창12장-왕하25장) 하나님의 계획안에 부르심을 받았지만 세상에 속한 죄인의 삶의 뿌리를 한순간에 벗어나는 뜻하고 조금씩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과정을 말합니다.

넷째, '분향을 향하는 나그네의 삶'의 단계로서(창23:4, 47:9 / 대 상 29:15 / 시 105:12,23/11:13-16/벧전1:17, 2:11) 마침내 하나님의 열심에 순복하여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마음을 두지 않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분향을 사모하는 삶을 말합니다. 다섯째, '안식의 단계'로서(히4:1-11) 마침내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 땅의 남은 삶을 살다 하나님의 때에 부르심을 받아 기쁨으로 그 분향으로 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에게는 '부르심 이전'과 '부르심'의 단계는 없습니다. 그저 '자녀의 삶'이 없는 '죄인의 삶'만으로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또 그렇게 믿으며 이 세상 것만을 추구하는 삶을 삽니다. 그리고 '분향을 향하는 삶'도

없이 '안식'을 위한 죽음이 아닌 '영원한 형벌'을 향한 죽음을 통해 '심판'(출7:4/시1:4,5/겔30:19/살후2:12/계19:1,2)만이 있는 것입니다.

'부르심 이전'의 아브라함

세상의 문명은 모두 강을 중심으로 만들어졌습니다. '4대 문명'이라는 곳은 이집트의 나일강을 중심으로 한 '이집트 문명', 인도의 인더스강을 중심으로 한 '인더스 문명', 중국의 황하강을 중심으로 한 '황하 문명' 그리고 티그리스강과 유프라테스강 사이에서 만들어진 '메소포타미아 문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고향은 그 문명의 중심지 중에서도 가장 변

한 곳입니다. 그 후 돈을 충분히 벌어야 한다는 내 생각을 접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겠다고 마음 먹었다. 남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려는 것이 분명했다. 나는 그런 그를 더 이상 그 길로 가는 것을 막으려고 하지 않았다.

'부르심' 받는 아브라함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신 곳은 갈대아인의 땅 '우르'였습니다(창11:31/행7:2).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명령은 '고향과 친척을 떠나 하나님 보아실 땅으로 가라'는 것이었습니다(행7:3). 그래서

성경에서 400번 이상 언급되는 아브라함은 성도의 믿음의 출발이자 대표격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과 행하신 일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행하시고 계신 일

성한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었습니다(행7:2). '메소'는 '중간'이라는 뜻이고 '포타미아'는 '강'이라는 뜻으로 두강이 만나는 지점에 있어 더없이 풍요로웠던 비옥한 초생달 지역이 바로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은 갈대아 지역 즉, 바벨론(겔12:13)의 '우르' 지역이었습니다.

이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그 문명이 번성했던 곳 중 하나인 이집트에서 불러 내십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그 우상이 넘치는 풍요로운 땅에서 우상을 섬기던 자였습니다(수24:2).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 멸망할 나라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십니다(렘51:44,45/참고. 렘51장, 계18:2,4/참고. 계18장).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심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그 부르심은 '풍요'에서 '기근'으로의 부르심이며(창12:10) '강함'에서 '약함'으로의 부르심인 것입니다(고후12:1-10).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 가며 척박한 땅 광야에서

아브라함은 아버지의 일행과 함께 우르 지역을 떠났는데 '하란'에 머물게 됩니다(창11:31/행7:4). 그리고 성경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죽으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옮겨갔다고 말합니다(행7:4). 그러나 성경에서는 데라가 아브라함을 낳았을 때의 나이는 70세였고(창11:26) 데라는 205세에 죽었다고 말합니다(창11:32). 그렇다면 아버지 데라가 죽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최소한 135세가 되어야 하는데 성경은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때의 나이가 75세였다고 합니다(창12:4).

적어도 60년이나 되는 공백에 대해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우르 땅을 떠날 때의 아브라함의 정확한 나이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고향을 떠난 후 아버지 일행과 하란에 머물다가 하나님의 2차 부르심을 받습니다(창12:1-3). 그리고 그

이제 그의 마음에서 아버지를 놓습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그의 아버지가 죽으매'(행7:4)로 표현한 것입니다.

또한 데라의 죽음에 대해 창세기에서 모세가 사용한 단어는 '육적 죽음'에만 사용하는 단어인 반면, 사도행전에서 스데반이 사용한 단어는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전15:31)에 쓴 단어와 동일한 단어로서 '마음의 죽음', '정신적인 죽음'에도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도 이런 의미에서 제자들에게 단호히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눅9:23/참고. 마16:24/눅14:27, 눅14:26참조).

그러하여 마침내 아브라함은 본토와 아비 집을 떠나 분향을 향한 믿음의 출발을 하였습니다(히11:14-16). 아직 롯이 아브라함을 따라 하란을 떠났지만(창12:4) 하나님은 그 롯도 곧 아브라함으로부터 떼어내시고야 말 것입니다(창13:1-13).

복은 바로 '복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갈3:8,9).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복은 바로 복음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영생'입니다(시133:3).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 복된 존재가 될 아브라함(창12:2)은 믿음으로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며(히11:13) 하나님이 예비하신 분향을 사모한 것입니다(히11:16).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내리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하신다' 하신 것도 아브라함으로 시작되는 하나님의 복음, 그 구속의 역사에 은혜로, 믿음으로 참여하는 자는 하나님의 구원의 복을 받을 것이고 그렇지 못한 자들은 구원에서 제외되는 저주가 임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녀의 신분, 죄인의 삶'을 사는 아브라함

아브라함은 세상의 풍요이자 죄의 도성이었던 바벨론의 지

역, 그 갈대아 사람들의 지역인 우르를 떠나 하란을 거쳐 마침내 그의 마음에서 아버지조차 부르심이었습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히11:8). 믿음의 여정은 다 알고 이해하고 동의해서 가는 길이 아님을 성경은 아브라함의 부르심을 통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의 삶과 생활에서 양식과 재물까지도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인식하고 인정하게 됩니다. 그는 다시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던 바로 그곳으로 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창13:3,4). 그리고 아브라함과 롯의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자 이젠 그의 마음에서 롯도 내려놓습니다.

창13:8, 9에서 롯을 향한 아브라함의 제안은 아브라함의 신앙 성숙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동안 롯에 대한 애정도 롯을 향한 의지도 모두 내려놓고 롯에게 먼저 좋은 곳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주고 롯이 가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가겠다는 신앙의지는 바로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명하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곳이면 된다'는 신앙결단이 선 것입니다.

그러나 삼촌이자 아버지와 같은 아브라함을 따라왔던 롯은 이제 더 이상 삼촌 아브라함에게 연연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을 떠나 '하나님을 볼드는 쪽'으로 가고 있다면 롯은 아브라함을 떠나 '세상을 볼드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창13:10). (16면으로 계속)

그리고 아브라함의 부르심은 '내가 네게 보여준 땅'이 아닌 '내가 네게 보여줄 땅'을 향한 부르심이었습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히11:8). 믿음의 여정은 다 알고 이해하고 동의해서 가는 길이 아님을 성경은 아브라함의 부르심을 통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부르심을 받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복을 약속해주십니다(창12:2,3).

그럼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선포하신 복은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이미 'One Story'의 관점에서 개인과 셋의 자손들의 삶과 함과 쉼의 자손들의 삶속에 드러난 하나님의 관심을 보았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복이 이 세상에 속한 '힘'과 '물질'과 '향락'의 복이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

이제 그의 삶과 생활에서 양식과 재물까지도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인식하고 인정하게 됩니다. 그는 다시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던 바로 그곳으로 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창13:3,4). 그리고 아브라함과 롯의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자 이젠 그의 마음에서 롯도 내려놓습니다.

창13:8, 9에서 롯을 향한 아브라함의 제안은 아브라함의 신앙 성숙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동안 롯에 대한 애정도 롯을 향한 의지도 모두 내려놓고 롯에게 먼저 좋은 곳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주고 롯이 가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가겠다는 신앙의지는 바로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명하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곳이면 된다'는 신앙결단이 선 것입니다.

매일가정예배

전화령(캄보디아 선교사)
whiteyou11@yahoo.com

월 음녀의 심판 I(계17:1-5)찬144장

모든 사람을 꾀던 음녀는 왜, 어떤 심판을 받습니까? 첫째, 그는 음행 때문에 심판을 받습니다(1-2, 4). 음행은 불신실을 가리킵니다. 거짓으로 천하를 꾀던 그의 행위가 하나님의 의를 대적하지만 그 자신이 스스로 정죄함으로 도리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더 밝히 드러냅니다. 둘째, 그녀는 붉은 짐승을 타고 다녔습니다(3-4). 일곱 마리와 일곱 뿔을 가진 짐승을 탄 그는 세상의 모

든 부귀영화를 음행의 도구로 사용합니다. 그 짐승은 세상과 마귀와 관계된 적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셋째, 그녀는 큰 바벨론의 모든 음행을 만듭니다(5). 세상과 깊이 결합된 적그리스도는 온갖 거짓을 생산하는 음행의 어머니입니다. 그 음녀를 이기는 길은 오직 진리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착념하는 길 뿐입니다.

화 음녀의 심판 II(계17:6-8)찬193장

적그리스도인 음녀는 계속 무슨 일을 합니까? 첫째, 성도를 죽입니다(6). 성도와 예수증인들의 피에 취했음은 그가 성도들을 박해함을 가리킵니다. 교회를 공격하는 모든 음부의 권세를 자랑합니다. 둘째, 열뿔 가진 짐승의 비밀이란 그가 무저갱에서 올라와 그리로 돌아가는 일입니다(7). 적그리스도는 일곱머리와 열뿔을 가진 짐승으로 비유된 거짓선지자를 등에 업고 활동합니다. 그 모습이 너무 흉칙해 요한이 크게 놀

라듯 그의 활동이 온 교회를 놀라게 합니다. 셋째, 또한 불택자들조차도 그 짐승을 보고 놀랍니다(8). 그 짐승은 전에 있다가 지금은 없고 무저갱에 있다가 올라와 멸망으로 나가는 시공간을 자유롭게 오가는 초능력을 보고 불택자들도 두려워하며 놀랍니다. 거짓선지자를 통해 일하던 적그리스도의 멸망을 아는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수 적그리스도의 활동(계17:9-13)찬455장

음녀로 표현된 적그리스도는 어떤 일을 합니까? 첫째, 일곱 산에 앉습니다(9-10). 산은 세상이고 일곱은 완전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것은 일시적으로 모든 권세를 장악하여 하나님의 뜻을 도전하나 그 마지막은 망합니다. 둘째, 일곱 왕의 권세를 짐승에게 넘깁니다. 일곱 산에 앉은 적그리스도는 온갖 음행으로 그 왕

들을 사단에게 모두 넘깁니다(11-12). 사단, 적그리스도 그리고 거짓 선지자는 하나가 되어 세상의 권력을 모두 취한 것 같으나 마침내 망합니다. 셋째, 짐승을 중심한 연합전선을 구축합니다. 적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온 세상이 마귀화되는 연합을 구축하여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지만 그 마지막은 절대 패망입니다.

목 음녀를 이기는 자(계17:14)찬507장

이 마지막에 일어나는 적그리스도의 활동을 이길 자는 누구입니까? 어린양만이 이깁니다. 첫째, 어린양은 누구신가요? 이미 앞서 언급된 어린양은 일찍 죽으셔서 구속을 완성하신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자기 백성의 죄를 대속하신 그의 공로로만 음녀를 이깁니다. 온 세상의 죄를 단번에 제하신 어린양의 죽음만이 능력입니다. 둘째, 어린양만이 음녀를 이깁니다(14). 거짓은 진리가 이기며 음행은 신실함이

이깁니다. 이 진리의 원천이신 어린양 예수 그리스도만이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으로서 음녀와의 전쟁에 승리합니다. 셋째, 택자들도 이깁니다(14). 택자들은 어린양에 속했기에 그 힘으로 음녀를 이깁니다. 세상의 불신실함은 진리이신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만으로 무력해 됩니다. 어린양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만 치유될 수 있습니다.

금 음녀의 심판 (계17:15-18) 찬228장

본문의 음녀는 누구이며 어떤 심판을 받습니까? 첫째, 음녀의 정체는 무엇입니까?(15-16) 세상의 모든 백성, 무리, 열국 그리고 방언을 지배하는 음녀는 그 자신도 통제할 줄 모르고 서로 싸우는 관계가 되어버린 세상을 가리킵니다. 세상과 마귀가 적그리스도를 미워하여 자멸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의 손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음녀는 불로 심판을 받습니다(16). 열뿔과 열왕과 짐승은 음녀와 서로 싸워 버거버거 그의 살을 먹고 불에 살라 버립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손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셋째, 하나님의 의의 심판이 일어납니다(17). 이런 복잡한 싸움은 모두 한정되어 있습니다. 마침내 만왕의 왕의 의가 관계 세워집니다.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토 바벨론의 패망 이유(계18:1-5)찬378장

바벨론으로 비유된 세상은 어떤 결과를 가져옵니까? 첫째, 그의 죄상(1-3) 각종 귀신의 처소이며 더러운 영들의 모이는 곳이며 가증한 권력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망합니다. 동시에 그와 연합한 만국은 온갖 음란과 악으로 떨어져 망하게 됩니다. 적그리스도 왕국의 죄는 온 세상을 망하게 합니다.

둘째, 그러나 하나님 백성은 공물을 받습니다(4). 하늘로부터 죄에 참여하지 말아 그 재앙에서 벗어나는 음성이 그들을 깨어 회개와 믿음으로서 그 악에서 벗어나실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이 반드시 갚으십니다. 하늘에 죄가 사무칠 때 하나님은 그 불의를 기억하시고 그대로 갚으십니다. 그 심판대 앞에 선 자로 살아갑니다.

다니엘 영성 프로젝트 (8)

풀무불 가운데 지날 때 ...

다니엘 3장은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이야기이다. 이 일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 와서 3년간 궁중학교에서 교육을 받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갑자기 생긴 일이다. 다니엘 2장에 보면 다니엘은 느브갓네살왕의 꿈에 본 큰 신상 중 순금으로 된 머리 부분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자신이라는 사실을 해석해주었는데 그것으로 인하여 왕이 교만해진 걸까? 예나 지금이나 인간의 교만의 형태는 자신의 권력에 취하여 스스로를 높이거나 그러한 절대 권력에 아부하고 영합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했노라고 위안할 수 있었지 않을까? 세계 최고의 왕의 두 번째 부탁인데 왕의 체면을 살려주는 것도 좋은 방법 아닐까? 아무 권한도 능력도 없는 이방 젊은이, 나그네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다고 항변할 수 있지 않을까?



이희갑 목사
(이주사파서신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그는 높이 60규빗(1규빗이 대략 45cm이니 높이가 27m), 넓이 여섯 규빗(약 2.7m)이 되는 어마어마한 자신의 금 신상을 바벨론 두라 평원에 세웠고 이어 낙성식이 거행된다. 왕에게 앞 다투어 아첨하는 모든 무리들이 참석하였는데 다니엘 3:2에는 총독, 수령, 행정관, 모사, 재무관, 재판관, 법률가와 각 지방 모든 관원들이 그곳에 참석했다고 나온다. 그 행사를 위해 나팔, 피리, 수금, 삼현금, 양금, 생황, 모든 악기를 다 동원한(단3:5) 엄청난 행사가 열렸던 것! 그러나 어떤 연유인지 다니엘은 이곳에 없었고 세 친구들은 초대받았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듯이 세 친구들은 금신상에 절하지

그러나 그들은 분명히 말한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계신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 내시리이다”(단3:17). 왕이 어느 누구도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 내지 못하리라는 왕의 말에 그들은 하나님이 능히 건져 내실 거라고 응답한다. 더 나아가 참으로 아름다운 고백을 한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금신

하나님의 약속을 100% 신뢰하는 것이 승리 비결 순종은 100% 의미... 적당한 타협, 자기변명 없어

않았고 그 모습을 본 바벨론 관리들이 직접 왕에게 이를 참소했다.

인류 역사상 시기와 질투는 사탄이 역사하는 통로이다. 다리오왕이 다니엘을 총리로 삼자 이를 시기한 사람들이 다니엘이 왕 이외 신에게 기도한다고 하여 그를 고소하고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지게 한 경우와 매우 흡사하다. 이것은 또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바리새인, 사두개 인들을 따르지 않게 되자 이를 시기하여 예수님을 죽이려고 계획을 짜게 되는 유대 지도자들의 태도와 동일하다.

상에 절하지 아니하겠습니까”(단3:18).

필자는 질문해본다. 무엇이 세 친구들에게 죽음을 각오할 정도의 믿음의 결단을 하게 했을까? 바로 2장에서 비결이 나온다. 다니엘 2장에서 그들은 왕의 꿈과 해석을 하지 못할 경우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죽이겠다는 왕의 명령을 들은 후에 그들은 다니엘과 함께 기도했고 그날 밤 하나님은 그들에게 왕의 꿈과 해석을 알려주셨다. 그들은 왕의 꿈을 통해 세상 문화의 유한성과 하나님 왕국의 무한성을 알았다. 그리고 그들은 결단했다. 아무리 바벨론 왕의 권세가 지금은 대대해도 일시적이며 곧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도래한다는 것을 그들이 알았기에 그들이 다른 선택을 할 여지는 없었다.

결국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 것을 알게 된 왕은 매우 분노했지만 그들에게 한번 더 기회를 주기로 허락한다. 왕의 명령을 보자. ‘이제라도 너희가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지만, 절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다’(단3:14). 성경은 바벨론 사람들의 잔인성을 많이 기록하지만 그래도 왕은 경고와 함께 한 번 더 기회를 주었다. “내가 너희를 풀무불 속에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 낼 신이 누구이겠느냐”(단3:16). 과연 우리라면 이때 어떻게 행동했을까?

그러기에 필자는 I surrender all이라는 찬송을 좋아한다. 순종은 100%를 의미(all)한다. 99% 순종은 곧 순종이 아니라는 의미이다. 적당한 타협, 그럴듯한 자기변명을 그들은 하지 않았다. 과감히 풀무불을 그들은 선택했다. 설령 하나님이 그 순간에 역사하시지 않아도 그들은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은 믿음은 변함이 없었다.

다니엘을 통하여 한 가지 흐르는 공통적인 주제가 있다. 믿음은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풀무불 위협에 타협하고 싶은 생각이 그들이라고 없었을까? 앞날이 창창한 10대 후반의 그들에게 살고 싶은 욕망이 없었을까? 한번 고개 숙이지 않은 것으로 그들은 최선을 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결국 풀무불에 던져졌고 왕은 놀람게도 세 명이 불타지 않고 풀무 속을 거닐고 있는 것을 보았을 뿐 아니라 세 명 이외에 예수님(왕은 그의 모양이 신의 아들과 같다고 묘사했다)이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을 보았다. (16면으로 계속)



"사람은 가도 사랑은 남습니다"

가슴으로 쓴 이야기는
세월이 가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열심히 한 생애를 살아온
당신이 남긴 사랑의 이야기들

기억은 추억이 되어
더욱 소중한입니다

최고의 예를 드리는
하늘 가족, 중앙 장의사

머리카락 한올까지
마지막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당신의 이야기
.... 사랑의 꽃이 됩니다



마지막 정성속에 함께 보낸 31년
Since 1988, 최초의 한인 공인장례사

모든지역 - 대형 피랑장 준비

Central Funeral Home: BongHo Ha F.D. NJ LIC 4569 | Gina Chong F.D. NJ LIC. 4504 | John Chong F.D. NJ LIC 5079
NY: 샌프란시스코 162-14 Sanford Ave., Flushing, NY NJ: 워싱턴 809 Broad Ave., Ridgefield, NJ NJ: 잉글우드 129 Engle St, Englewood, NJ

장례사전계획 | 장례식 코디네이터 | 성직자 초빙 | 묘지구입 상담 | 운구 한국소환 | 이장 | 기타 장례의 모든 것
뉴욕 | 718. 353.2424 뉴저지 | 201.945. 2009

특별 간증

하상규 집사

(신유한의원 원장/신유바이오 연구원장)

[편집자주] 한국에서 선교사 건강을 지원하는 하상규 집사의 간증문을 게재한다. 서울 소재 신유한의원(www.thinku.kr) 원장인 하상규 집사는 특별히 코로나19 한방치료제를 개발해 많은 효과를 보고 있다고 한다. 이를 곁에서 지켜본 독일 하노버에서 한인교회를 담임하는 신용철 목사의 소개로 이 간증문을 게재하게 됐으며 신 목사의 글은 다음호에 게재한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

아주 어린 시절, 원인모를 병으로 병원에 입원하였고, 수많은 검사와 치료에도 병세가 악화되자 결국 병원 측에서는 저에 대한 치료를 포기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죽음을 기다리던 저를 살린 것은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와 한방치료였습니다. 서양의학적 치료의 한계를 경험하여 마지막 방법으로 한방치료를 통해 죽음에서 살아난 저는 자연스럽게 한의사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있는 가족을 만들어주시는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립니다. 나선 땅, 열악한 환경 속에서 혼신을 다해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의 기력이 쇠약해져면역이 약해질수록 감기에 더 쉽게 걸리는 것을 자주 접하게 되었습니다. 감기는 만병의 근원이라 하여 감기를 잘 치료하지 못하면, 그로부터 시작된 병이 점차 큰 병으로 발전하여 결국 생명이 위협한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지 모든 감염병에 뛰어난 효능을 발휘합니다. 저희 병원 환자들과 선교사님들뿐만 아니라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치료약을 알려 코로나 팬데믹의 종식에 보탬이 되고자 다방면으로 노력하는 저에게 하나님은 감기치료제인 신유탕을 분말로 캡슐에 담아 지역에 제약 받지 않고 전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셨습니다.

지난날을 회상해보면 저를 아프게 하고 죽을 직전까지 몰아넣었다가 다시 살리시고 한의사의 길로 인도하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큰 그림(big picture)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최근 사스, 메르스, 신종플루,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전 세계가 팬데믹에 빠져 환란 당하는 것을 보며 기도하던 중 하나님께서는 제게 감염병 치료에 대한 또 하나의 사명을 주셨고, 주신 지혜로 감기 치료에 관한 기존의 패러다임을 전환함으로써 해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양의학적인 치료시스템이 “날카로운 창”을 개발하는 것이라면, 한의학적인 치료시스템은 “뚫리지 않는 방패”라고 비유할 수 있습니다. 날카로운 창은 언제 개발이 완료될지 미지수인 상황이지만, 튼튼하고 안전한 방패는 이미 준비되어 있는데도 알지 못하고 있는 현 상황이 그저 안타까울 뿐입니다.

감기바이러스 치료제 신유탕 개발...코로나19에도 큰 효과

가전으로 내려오는 감염병 처방을 오랜 시간 연구한 끝에 감기바이러스 감염 증상 환자들에게 투여한 결과, 복용한 모든 환자들이 수일 내에 치료되는 것을 임상적으로 경험함으로써 그 뛰어난 효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전례 없이 빠른 임상가와 시험으로 급하게 내어놓은 백신은 결코 해답이 될 수 없다는 것은 끊임없이 속출하는 백신 부작용에 대한 뉴스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치료제 역시 천문학적 연구비를 투입하여 연구하고 있으나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은 이미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 청폐독탕이라는 한약처방을 제조하여 자국민의 코로나 치료에 사용하여 유의한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저를 한의사로 만드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를 늘 생각하며 신앙생활을 하던 중 하나님께서는 해외선교사님들의 건강을 책임지라는 사명을 주셨고, 20여 년 전부터 어려운 환경에서 선교사역을 하시던 질병을 얻어 오시거나 안식년에 돌아오시는 선교사님들의 치료와 회복을 돕고 있습니다. 치료의 도움을 받고자 찾아오시는 모든 선교사님과 직계가족 분들께 개 전액 무료로 치료를 해드렸기에 한의원의 재정에는 항상 마이너스였습니다.

감기바이러스를 직접적으로 죽이려고 하기보다는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하고 면역을 극대화시켜 인체의 면역시스템이 바이러스를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따라서 코로나19 확진자, 무증상 감염자, 검사받지 않았으나 감기증상이 있는 자,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청폐독탕보다 훨씬 효과가 뛰어나고 좋은 치료제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익하게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참으로 마음이 아픕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흠으로 창조하신 우리 몸을 온전하게 보호할 수 있게 자연속의 초목들 가운데 치료약을 예비해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내주셨음에도

모세에게 아론이 있었던 것처럼 제게는 에스더의 믿음을 가지신 장모님의 헌신적인 도움으로 파산하지 않고 지금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재작년 하나님과 함께했던 사명의 시간들을 감사하며 제게 함께 동역할 수

신유탕은 바이러스를 직접적으로 죽이려고 하기보다는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하고 면역을 극대화시켜 인체의 면역시스템이 바이러스를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따라서 코로나19 확진자, 무증상 감염자, 검사받지 않았으나 감기증상이 있는 자,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에 이르기까지

(16면으로 계속)

가정선교



이재근 목사 (미주가정선교회 대표)



31.가정사역에서 가정선교로

본 칼럼을 시작하면서 첫 호 '가정선교의 칼럼을 내면서'에서 본 칼럼을 총 3장, '제1장 가정, 제2장 가정선교, 제3장 가정문제 해결방안' 순으로 연재하겠다고 말씀드린 대로 지금까지 30회에 걸친 '제1장 가정'을 마치고 31회부터 '제2장 가정선교'가 연재됨을 공지합니다.

가정선교칼럼을 적으면서 참고할 서적과 논문, 그리고 구글, 다음, 네이버 등의 포털 사이트를 다 찾아봤지만, 참고할 만한 책 한권, 한편의 글도 찾지 못했고, 가정선교(Family Mission)란 정의 자체도 뜨지 않았습니

교(家庭宣教, Family Mission)'로 불리워지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지상명령으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행 1:8)고 마지막 허락하신 사명이었지만, 참으로 힘든 사역이었습니다. 기도하면서 가정선교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구했고, 하나

오늘날 우리는 개인적인 만족이 추구되지 않으면, 언제라도 가정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위험한 발상이 팽배하는 '가정

전가족(Whole Family)의 복음화를 위한 하나님이 저에게 허락하신 사명이었지만, 참으로 힘든 사역이었습니다. 기도하면서 가정선교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구했고, 하나

가정선교는 모든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이며 시발점

파괴와 상실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고, 그로 인한 심한 후유증으로 목숨을 잃고 있음에 피부로 느끼며 살고 있습니다. 결국 이 같은 사회문제는 '가정의 문제'로 귀결됩니다.

가정선교칼럼을 적으면서 참고할 서적과 논문, 그리고 구글, 다음, 네이버 등의 포털 사이트를 다 찾아봤지만, 참고할 만한 책 한권, 한편의 글도 찾지 못했고, 가정선교(Family Mission)란 정의 자체도 뜨지 않았습니

서 '땅끝'에 대한 여러 학설이 있지만 지리적으로는 로마 내지는 서바나(스페인, 롬15:23)를 말하며, 성경적으로는 오늘날까지 복음을 받지 않는 지역, 즉 예루살렘 지역을 말합니다. 이는 아직도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치 않고, 랍비나 선지자 중의 한 분 정도로 밖에 믿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보는 것이 가장 타당합니다. 그러나 영적, 선교적인 의미로 바뀐다면 아직도 완전히 복음화 되지 못한 성도들의 결혼가정을 통칭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갈수록 늘어나는 영미적인 살인행각과 끔찍한 폭력범죄와 도덕적이고 성적인 타락상 등은 심각한 인간성 상실의 문제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가정이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은 시대적 요구이며, 이성을 가진 모든 사람들의 일치된 의견일 것입니다. 그래서 일찍이 가정사역에 관한 세미나, 행복한 가정세미나, 부부세미나, 결혼세미나 등을 빠지지 않고 참석했고, 참석 못 할 경우 교재라도 구해서 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신대원에서 '성경적 가정사역(The Biblical Family Ministry)'이란 제목의 논문으로 박사학위(Ph.D. in Theological Studies)까지 받았습니다. 가정선교사역을 하면서 가장 많은 받은 질문이 '가정사역과 가정선교의 차이가 무엇입니까?'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전혀 듣고 보지 못했던 새로운 개념(Concept)이기 때문입니다. 2007년부터

가정의 문제를 크게 3가지로 대별할 수 있습니다. 즉 첫째, 부부의 문제, 둘째, 자녀(청소년)의 문제, 셋째, 노인의 문제입니다. 이 같은 가정의 문제를 연구, 분석하며 대책을 수립하는 일을 흔히 '가정사역(家庭使役, Family Ministry)'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는 물론 하나님의 사역(God's Works) 가운데 하나이지만, 극심한 가정 파괴와 상실의 시대적 상황에서 말세기적인 종말론적 입장에서 조망해볼 때, 이는 사역의 차원을 넘어 선교적인 차원에서 농도 있게 깊이 연구하고 다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가정사역(Family Ministry)'을 '가정선

성도들의 결혼가정들이 완전히 복음화 된다면 가정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유행성 해외선교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각 가정의 선교, 복음화가 더욱 중요함을 절실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가정의 선교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가정의 파괴와 상실, 가정문제에 따른 후유증을 해결할 수 없으며, 가정의 회복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가정선교는 모든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이며 시발점입니다.

jaekunlee00@hotmail.com (562)714-0691



Table listing 18 churches with their names, addresses, and contact information. Churches include Galbori, Mongo, Bexkaun, Bena, Boston, Andu, Alkan, Anger, Yeongsang, Killin, Winton, Tacoma, and various international branches of the Korean Christian Press.

불확실한 포스트 팬데믹 시대 '작은 계획'으로 헤쳐 나간다!

하버드비즈니스리뷰, 케이트 노스럽이 제시하는 '마이크로 플래닝' 노하우 소개

팬데믹 시대를 겪으며 우리는 계획이 무색하다고 느꼈다. 2020년 연초에 세웠던 계획들은 변경돼야 했을 뿐 아니라 중간중간 수정했던 계획들조차 한 달, 아니 한 주 심지어 하루 만에 바뀌어야 하는 일도 자주 발생했다. 그렇다면 2021년 계속해서 계획을 세워야 할 교회 리더십들은 무엇을 고려해야 할까?

베스트셀러("Do Less") 작가 케이트 노스럽(Kate Northrup)

은 '하버드비즈니스리뷰' 기고문을 통해 불확실성을 전제해 계획수립에 대해 말한다. 그녀에 따르면 계획은 원래 안정감을 준다는 장점이 있다고 한다. 그렇기에 더 미래를 짐작할 수 없는 상황에서라도 계획을 세울 때 얻는 장점까지 놓쳐서는 안 되며, 다만 시간과 목표에 대한 우리의 관점을 바꾸기만 하면 된다고 조언한다(How to Plan Your Life When the Future Is Foggy at Best).

과거에는 계획이 공동체에 안정감을 가져다주는 선한 수단으로 작용했는데, 팬데믹 상황 속에 계획은 더 이상 '확정적인 목표'가 아니며 '언제나 바뀔 수 있는' 것이 됐다. 계획의 장점은 사라지고 오히려 에너지만 소모하는 듯 보인다.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계획의 장점을 살릴 수 있을까?

노스럽은 이런 상황에서 마이크로 플래닝을 제시한다. 급변하는 상황 속에 필요한 것이 적응력인데, 이 적응력은 상황에 수동적으로만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계획 자체에 변화를 포함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만일 새로운 정보나 상황 변화에 따라 계획을 변경시킬 중간 검토 지점을 미리 정한다면, 변화하는 상황 자체가 우리의 계획 아래 있게 된다. 이것을 마이크로 플래닝(Micro-planning), 즉 미시 계획 수립이라고 한다.

마이크로 플래닝은 간단하다. 포괄적인 비전을 세운 뒤, 분기, 월, 주, 일 단위로 진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계획을 세우고 조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마이크로 플래닝의 여섯 가지 요소

에 따라 팬데믹 시대에는 계획을 어떻게 세우면 되는지 살펴본다.

1. 목적을 파악하라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장 큰 목적이 무엇인지 파악해야 한다. 지금까지 우리 공동체의 계획과 발걸음을 되돌아보면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어떤 맥락이 있다. 이 맥락을 파악한다면 우리 공동체가 추구하는 가장 큰 목적을 명확히 제시하기 쉽다. 이 목적을 실행하는 방법은

2. 연간계획을 수립하라.



대하거나 다양한 목표를 세우려 하지 말고, 목적에 집중할 수 있는 세 가지 목표만 우선

목적파악 후 연, 분기, 월, 주간 계획 세워...감사일기로 하나님 의지 계획 수립 과정 세분화로 효과적 사역하고 목표 이뤄내는 기쁨 느껴

상황 변화에 따라 바뀌더라도, 즉 미시 계획 수립이라고 한다.

여전히 우리 공동체의 목적이 불확실하다면, 우리 공동체가 가장 보람차고 행복했던 경험들을 나열해보고, 이 경험들의 공통점을 찾아보라. 그 공통점이 우리의 가장 큰 목적을 알려주는 단서가 될 것이다.

대부분 교회공동체는 연간계획을 필수적으로 세운다. 팬데믹으로 작년 한 해 연간계획이 어그러진 기억 속에서 올해의 연간계획은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 과거처럼 너무 원대한 목표를 세우기보다, 공동체의 목적과 일치하는 작은 목표 세 가지만 우선 세워본다. 너무 원

세우도록 한다.

3. 분기별 계획을 세우고 검토시기를 확정하라

연간계획을 실천하기 위해 필요한 더욱 세부적인 목표를 설정하는 시기다. 연간 목표 세 가지를 이루기 위해 먼저 준비

특정 지을 수 있게 된다.

5. 주간계획은 완료/표기할 수 있는 할일 목록으로 만들라

많은 사람들이 일일 할일 목록을 만든다. 하지만 할일 목록은 주 단위가 적절하다. 일일 목록은 할 일을 다 마치지 못하고 하루가 끝날 때 패배감을 느

끼게 한다. 이와 달리 주간계획을 세우면 예정된 일을 더 넓은 시각에서 볼 수 있고 일반적인 할일 목록보다 더 유연하게 계획을 짤 수 있다.

명심할 것은 주간 할일 목록은 업무만 포함하는 것이 아니다. 휴식, 식사, 모임, 예배, 상담 등 공동체의 목표를 달성해 가는 과정에서 필요한 다양한 일을 모두 포함된다. 공동체의 상황을 최적화하는 모든 과정이 주간 할일 목록에 포함된다.

6. 매일 감사일기를 쓰라

마지막으로 매일 하루를 마감하며 공동체의 감사를 담은 감사 일기를 작성한다. 오늘은 공동체가 무엇을 했고, 일이 어떻게 진행됐는지(무엇이 잘됐고, 무엇이 잘못됐으며, 무엇을 배웠는지), 무엇보다 무엇이 감사한지 적는다. 매일 5분간 이렇게 기록을 하면 더 신중하게 주간, 분기, 연간 계획을 세울 수 있다. 특히 매일 감사를 기록하는 것은 변화하는 상황에서 불안감을 잠재우고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한다.

팬데믹 시대는 우리가 더 이상 5개년 계획과 같은 장기 프로젝트를 세우지 못하게 한다. 그러나 우리는 계획 수립 과정을 더욱 세분화해 사역을 효과적으로 하고 세운 목표를 이뤄내는 기쁨을 여전히 누릴 수 있다. 불확실함이 우리를 멀리 보지 못하게 한다면 가까운 곳을 자세히 보는 기쁨을 찾으면 된다. 매일, 매주, 매일 작은 계획을 이뤄감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누리보자.

원스토리

(13면에서 계속)
마침내 아브라함은 이미 떠난 '본토'와 '아버지의 집'에 더하여 '친척'마저 떠나보냅니다. 아니,

하나님이 떼어내시고야 맙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오직 하나님만을 보아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이며 그 부르심 이전부터 하나님의 구별하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

님은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 말씀하십니다(창13:14-17). 이제 하나님은 풍요의 땅 메소포타미아에서 불리던 이름 '아브라함'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는 자, 믿음의 출발자의 이름 '아브

라함'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의 여정을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의 출발자로 만들어 내시고야 마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정 속에서 아브라함이 그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인정'하며 믿음을 선포하도록 하나님은 계속해서 도우시고 지키시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믿음의 약속들을 주시고 지켜가실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선택받아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브라함의 '자녀의 신분, 죄인의 삶'의 여정, 그 이야기, 계속 이어집니다.
hfamilyfa@gmail.com

다니엘 영성 프로젝트

(14면에서 계속)
그들은 옷을 입고 결박당한 채로 풀무불에 던져졌는데 결박은 풀려졌으나 그들은 타지 않고 걸어 다니고 있었던 것이다. 결국 왕은 충격을 받았고 풀무 입구에 가서 그들에게 나오라고 말하게 된다. 그들이 나왔을 때 그들은 몸이 하나도 상하지 않고 머리카락 하나 그들

리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되고 결국 왕은 하나님을 찬송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들이 옳았다. 세 친구들의 믿음의 결단을 하나님은 귀하게 보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풀무불 속에서 주님을 보내셔서 그들을 보호하셨을 뿐 아니라 그들의 결박을 풀어주셨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다. 성경에는 6000가지가 넘는 하나님

의 약속이 기록되어 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풀무불의 위협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100%(they surrender all) 신뢰했다. 그것이 그들이 승리한 비결이다.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약속의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것이다.

환경에 대한 적당한 타협, 문화에 휩쓸려 믿음이 점점 희박해져가는 오늘 우리에게 다니엘 세 친구들의 이야기는 큰 도

전이 된다. 하나님을 약속을 확신하는 자에게는 문화보다, 권력보다, 이 세상의 호위호식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며 믿음은 결코 세상의 가치와 비교할 수 없는 것임을 안다. 풀무불속에서 보호하시고 결박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약속이 바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hlee0414@gmail.com

특별간증

(15면에서 계속)
불구하고 눈앞에서 이를 보고도 믿지 못한 제자들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미 코로나치료를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영안이 어둡고 믿음이 부족하여 이를 믿지 않고 경시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자들이 행하였던 실수를 반복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끝으로 코로나로 인해 전 세계의 경제가 어려워진 시대에 존폐의 위기에 놓인 한의원 운영이지만 저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인 사명을 포기하지 않고 지금 이 순간에도 저와 함께하시며 때때로 새 힘과 산 소망의 기쁨을 주시며 역사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연락처: drha1075@hanmail.net, 02-794-7585, 549-7588

신학, 목회학 - 학사, 석사, 박사 학위과정

목회자, 선교사, 기독교 지도자를 위한 리더십 전공 Ph.D. 학위

Midwest University 와 함께 동역할 인재를 찾습니다
(부설- MIRI 연구소, 글로벌 리더십 연구원)

- 교수 1. 경영, 마케팅, 리더십 분야의 박사 학위 소지자
2. 신학, 선교, 목회,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3. 국방, 항공, 상담 분야와 관련한 박사학위 소지자
* Full time or Part time - Online Teaching, 전공분야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 할 수 있는 분
- 사역 개발 분야 - 산학협력, 인력개발, IT, 마케팅, 항공, 어카운팅과 관련된 학사학위 이상자
- 자격 1. 미국에서 High School 과 College 졸업 예정자 혹은 졸업자
2. 미국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
3. 영주권 스폰 가능
4. 관련분야 경력자 선호
- 제출서류 : 이력서, 대학이성 성적 증명서, 자기 소개서
- 제출처 : jp@midwest.edu

학위과정 Degree Programs

국제항공대학(원), 경영대학(원), 교육대학(원), 리더십대학원, 국방대학원, 상담심리대학원, 신학대학(원), 음악,문화예술대학원

학점, 학위취득방법 Study Options

1. 미국유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SEVIS-20 혹은 J-1 Visa
2. 직장과 사역을 떠나지 않고 세계 어디서든 집특강 및 Online 으로 학점취득 가능
3. 영어, 한국어 언어에 구애없이 학점취득 가능
4. 타대학에서 받은 학점 최대한 인정하여 편입가능